

東草文化

1992/第8號

東草文化院

1992
Kim Kwang S.

관광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앞장설것을 다짐합니다.

雪嶽觀光株式會社

케이블카



會長
韓丙起



代表理事 社長
崔澤琳



■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34-7365)
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39 정남빌딩 401호 (☎ 558-3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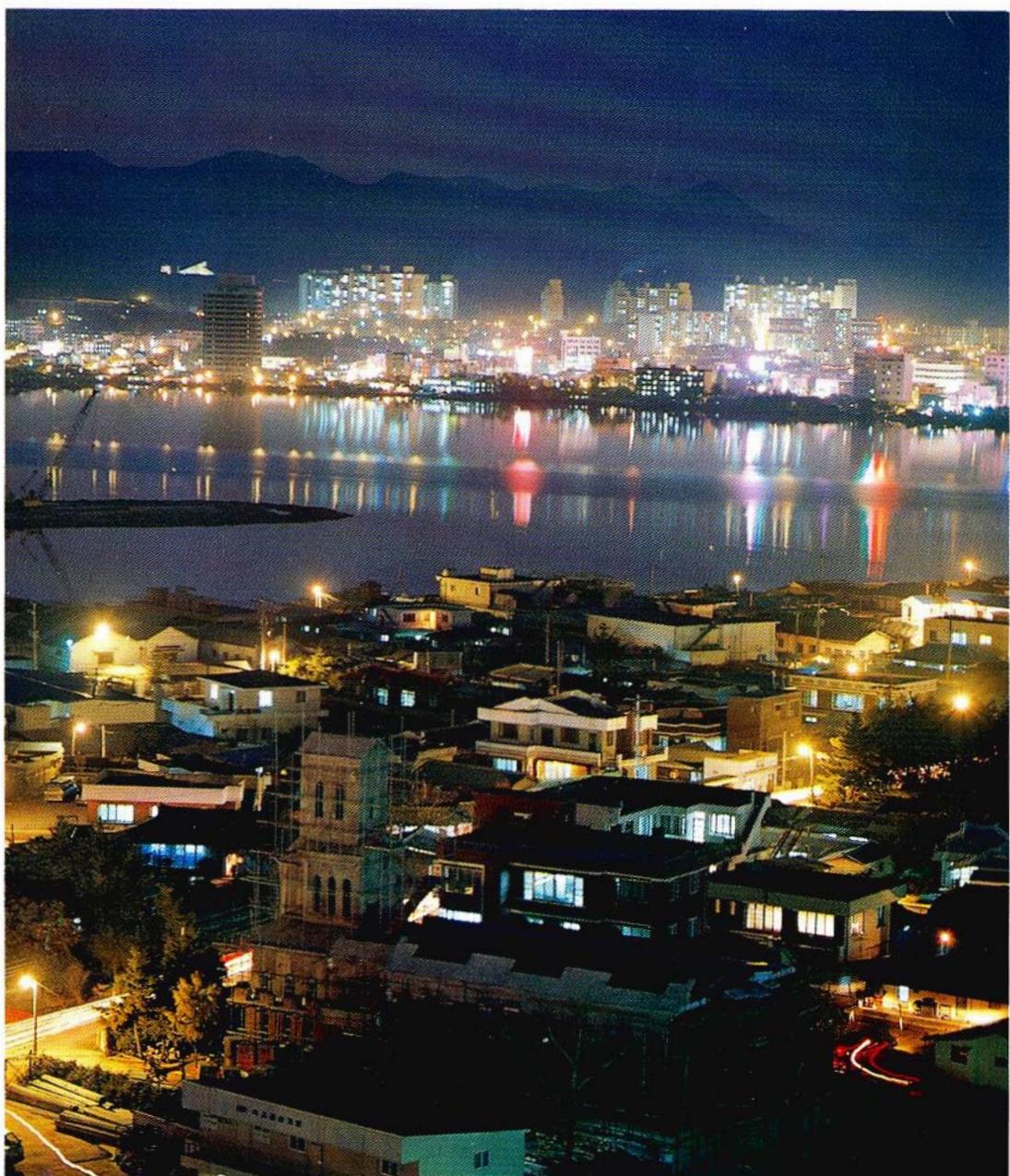


운해속의 울산암



사진 / 崔 洛 珉

82. 서울미술대전 입선
82. 한국전통예술공모전 동상수상
83. 한국예술대전 銀賞수상
제16회 강원도미술대전 입선
81-91 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개인전 1위
(현)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주소: 속초시 설악동 246-119
電話: 34-7019



날로 발전하는 속초시



- ★ 東草文化院에서는 전통고급문화와의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국악원을 초청하여 “국악의 밤”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 東草文化院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이질적인 문화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고수하고 전승했는지를 알아보고, 실향민으로 재구성된 우리 지역의 문화와 비교해 보기 위해, 소련거주 조선족작가 한진선생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였다.





속초여고 풍물놀이팀



북청사자놀이



용왕굿 왈떡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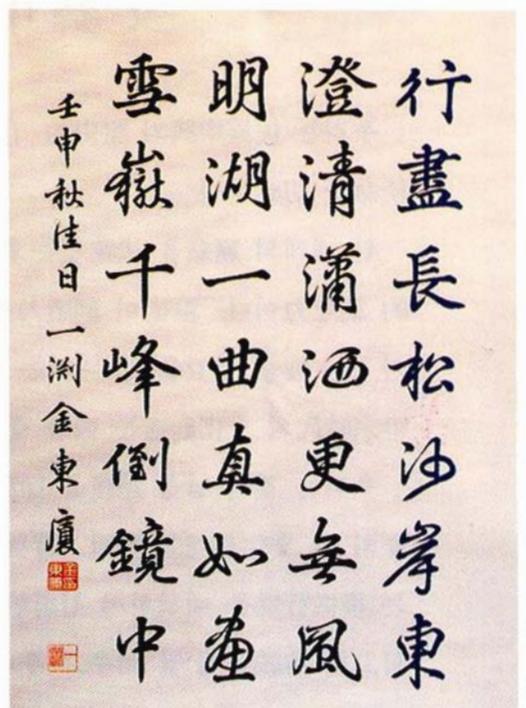
산 신 제

(작품해석)

李世龜의 詩

(영랑호를 옮은 시)

行 盡 長 松 沙 岸 東
모래 해안 동으로 장송 길을 다 달아가면
澄 清 瀟 洒 更 無 風
맑고 깨끗한 호수 바람 한점 없구나
明 湖 一 曲 眞 如 書
밝은 호수 한 굽이 참으로 그림같아
雪 嶺 千 峰 倒 鏡 中
설악 천봉이 꺼꾸로 거울에 잠겼네



一淵金 東 廈

- 玄川 趙達淳先生 師事
- 91년 大關嶺 옛길 詩碑 書寫
- 91년 東高人 記念碑 書寫
- 現 東宇專門大 書藝部 指導講師
- 現 東草書藝學院長
- 주소: 속초시 중앙동 472-7 6통2반



속초서예학원(전화)32-7903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거례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거례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牢固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거례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거례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차 례

東草文苑

1992 / 第八號

□ 속표지 / 운해속의 울산암 속초시의 야경	사진/최낙민· 1
□ 화보	편집부· 3
□ 휘호	김동하· 7
□ 권두사 / 민족흔 살려야	지일권· 10
□ 축간사 / 문화욕구의 수용	김승래· 12
□ 권두시 / 설악산 설인	박명자· 14
□ 특집 / 청동 유적지 및 유물	김종화· 16
□ 특집 / 계조암의 정토사원	민경현· 23
□ 논단 / 속초는 도약대에 서있다	이건석· 28
□ 논단 / 전통윤리	고영하· 32
□ 논단 / 북청사자놀이 복원을	장정용· 34
□ 설악산(속편)	박익훈· 35
□ 오징어잡이 어부출신이 장학재단을 세웠다	편집부· 43
□ 제27회 설악제	편집부· 45
□ 영북지구 경제활성화 심포지엄	편집부· 47
□ 향후 국토개발과 강원권개발 방향	편집부· 48
□ 수음비위 전설	이건석· 50
□ 한시 / 매곡· 오윤환	이시행· 51
□ 속초문화상	편집부· 52
□ 어민 위령탑 건립을	권병창· 54
□ 속초 번영회	최용문· 56
□ 무궁화 장학회, 경찰전적비	김형록· 58
□ 34회 도문화상(속초)수상자	편집부· 63
□ 영북지역의 석탑	주상훈· 64
□ 어촌풍속	장정용· 78
□ 속초지역 개발연구소 탐방	최무일· 82
□ 속초문화예	
• 시 / 속초, 아버지의 새벽	채재순· 85
• 시 / 저항력 투구꽃	장승진· 87
• 시 / 돈별레	최영숙· 88
• 학생글짓기 / 어머니	이미영· 89
• 학생글짓기 / 오월의 빛	노우영· 90
• 학생 미술전 입상작(3점)	92
□ 예총 속초지부 92 업무활동 소개	편집부· 94
□ 속초문화원 추진사업	편집부· 98
□ 在蘇조선인들의 예술활동 한진씨 초청강연	편집부· 100
□ 단편 / 조선극장(실화)	이길수· 100
□ 文化遺跡地 巡禮記	이기율· 107
□ 표지작가	

『민족 혼이 살아야』



池一權
속초문화원장

우리는 찬란했던 역사속에서 삼국시대와 신라문화를 가진 문화민족이다.

고조선시대부터 조상들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족혼의 바탕밑에서 그장점을 우리문화에 접목시켜 독창적인 한민족 문화를 피계 했다. 우리 문화속에서는 항상 약동하는 민족의 기상이 숨쉬고 창작의 의욕이 감돌고 있다. 이로인해 고려청자, 이조백자등 문화유산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는 외침을 당했어도 모두 격퇴하는 용기가 있었다. 특히 근세에 와서 일제가 우리 강토를 강점했어도 끈질긴 항쟁으로 우리는 결국 광복의 그날을 맞게되었다. 그리고 비극적인 한국 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비운속에서도 모두 굴하지 않고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 이강산에 민주주의와 자유의 아성을 수호하는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는 모두 자주적인 자유를 회구한은 민족혼이 우리 마음 속에서 격렬한 애국심을 일개한 소산이고 또 전통문화를 수호할려는 굳은 의지가 사선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므로 전통문화란 정말 위대한 민족유산임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번 속초문화 제8호를 내면서 민족혼의 원류에서 이어지는 속초문화를 이고장에 찬란하게 피계 하는데 뜻을 두고 향토문화의 빛굴, 계승 보전사업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속초의 향토문화 진흥의 첫번째 과제는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싶다. 향토애의 발로는 스스로 솟아 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신념과 궁지가 있어야만이

“
민족혼을 바탕 둔 전통문화(민초정신)수호의
의지는 한국전쟁때 사선을 돌파할 수 있는
결의와 용기를 주었다.
”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이와같은 시민의식은 『속초문화』지를 통해서 소중한 문화유산과 선렬들의 충의심, 향토개발운동, 미래상 제시, 강력한 자립심 고취등으로 민족혼을 발상시키는데 만이 가능하게 되고 성취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본다. 지금 홍수처럼 밀어 닥치는 외래문화는 전통과 뿌리없는 것이 많아 그대로 흡수, 영입할때는 민족혼의 근본이 훼둘릴 위기를 맞게 되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전통문화가 가속도가 붙어 대약진의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속초의 향토문화를 발전시킨다면 시대적 감각에 투철하고 젊은이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될것이 확실 하므로 모두 문화시민의 궁지를 갖고 속초문화 진흥에 참여하는 대열이 대약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속초문화 제8호가 시민문화진흥운동 활성화에 일조되기를 바란다.

文化욕구의 수용을 위하여



金昇來
속초시장

경제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적 欲求입니다. 이는 단순한 ‘生存’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나은 삶을 추구하는 ‘生活’의 세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즐 대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들이 지금쯤은 적극 시도되고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市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文化創出勢力과 文化傳達勢力 그리고 文化享受勢力간의 조화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시정의 방향 개선을 적절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창출 세력인 예술인이나 종교인 또는 학자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적 기반을 견고하게 닦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문화원 등 문화창달세력의 역할도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일반 대중, 즉 문화향수세력들의 문화적 욕구를 대폭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시민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와 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간 속초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문화현상을 연구하고 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화원 고유의 기능인 문화전달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쏟았고, 향토에 관한 자료 수집에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최근엔 ‘문화사랑방 운동’ 등 획기적인 여러 문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
경제적 능력의 향상은 바로 문화적
욕구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선 속초문화원의 기능이 보강
되어야 합니다.
”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들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원의 활동상과 그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책 ‘東草文化’일 것입니다. ‘東草文化’는 매년 문화원의 성과를 요약하고 시민들에게 향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속초시의 문화적 현실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함에 이 책 ‘東草文化’는 조금도 손색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속초문화원의 이러한 시도는 바로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자 함’이고, 이는 우리 市가 추구하는 ‘삶의 질’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온전히 일치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東草文化’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東草文化’제8호도 우리 지역의 한 시대 상황을 기록함에 있어 당대 우리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가 충실히 묘사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설악산 雪人

깊은 겨울 설악산 내설악
검은 죽음의 계곡을 열어볼게 하는
추위와 눈발속에서
36도5분의 체온을 이어가는 생명의 꽃이 있
다

지루한 밤이 어떻게 가고
새벽이 어떻게 오는가를
뜨거운 피의 말로 풀어내는 목숨이 있다

메론 빙하의 계곡이나
마나슬루 봉 근처에서 만났던 雪人

그 발자욱이 침묵의 그림자로
내설악에 나타났다

태고의 눈더미 속에
만년설 속에 설인의 발자욱이
전설 속으로 수수께끼 속으로
꼿꼿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



朴明子 / 시인

특집

史蹟地 指定

새로운 文化意識 음미

束草市 朝陽洞서

先史遺物대량 발굴

新石器 末期에서 初期 青銅器

生活相과 韓半島 전파루트 研究에

중요한 자료, 學界 관심 높아

보전 전시관 건립 요망

史蹟地 指定, 新로운 文化意識 음미

文化部는 속초시 조양동 택지조성 지역에서 先史時代 유물이 대량 발굴돼 學界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이 지역을 事蹟 제376호로 지정했다.

속초지역 주민들은 이 사적지 지정의 의의를 재인식해야 된다. 지금까지 道內에서는 襄陽 오산리와 春川 中島에서 발견된 先史文化유적을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새롭게 평가되고 市民이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식과 珍持를 느끼기 때문이다.

설악제때 조양동 주민들은 「역사가 있는 조양동, 뿐만 아니라 있는 땅」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원시부족인의 가장 행렬 모습에서도 쉽게 우리의 역사의식과 文化의식을 간파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택지개발지역 5천여평에서 발굴된 집터와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살림집 구조와 新石器時代와 青銅器文化의 전환기 및 요령성 문화가 韓半島로 확산된 經路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BC 8~7세기로 추정되는 집터의 가장 큰 규모는 동서 길이 12.3m 폭 6m 면적 23평에 風化된 岩盤을 파서 만든 움집형태로 기둥구멍·화덕자리등이 原形 그대로 보존돼 있다.

青銅器시대의 완벽한 집터가 中部 東海岸지방에서 발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동기 집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적지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돌칼, 돌창, 돌도끼, 돌화살촉, 돌가락바퀴, 돌그물추편등 1백여점이 발굴됐다. 민무늬토기는 漢江邊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주둥이 쪽에 구멍무늬를 내고 그 밑에 문살무늬를 새긴 土器와 같은 것이며 咸鏡道 北青지역에서 出土되는 아가리를 밖으로 겹싼 이중구연토기, 西北지방과 大同江 유역 및 서해안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의 接合부문에 短斜線을 새긴 토기등 다양한 토기의 요소를 포함한 것들이다.

이는 한반도 東北地方과 西北지방 및 中東部 海岸지방의 문화교류는 물론 新石器末과 청동기 초기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굽손잡이 그릇 토기는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인 頭滿江 유역, 무산, 호곡등 1氣層에서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출토된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南韓지역에서는 처음 출토된 것이다. 이것은 신석기말과 초기 청동기의 東北지방과 江原 嶺東지역간의 文化交流는 물론 東海岸 지방의 청동기초기 無紋土器 문화가 신석기 말기 문화를 이어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입증해 주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BC 5세기로 추정되는 고인돌 2기중 1기는 길이 194cm, 폭 13cm 두께 19cm 뚜껑돌 밑에 남북길이 172cm 동서 폭 60cm 깊이 32cm의 활석으로 만든 하부구조가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으

글·江原日報社
편집국 부국장 金 鍾 華
사진·속초시 문화공보실 최 춘 영

며 바닥위에서는 青銅製 부채꼴 주머니 도끼 1 점과 돌화살촉등 부장품도 출토됐다.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도끼는 주로 만주 요령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식 銅劍文化유적에서 발견되는 것과 흡사하다. 한반도에서는 咸南 北青郡 土城里와 永器郡 영홍원등 北韓의 동해안지방에서만 발견되었으며 南韓에서는 扶餘 승국리 돌로 만든 거푸집이 채집되었을 뿐이다.

실물이 발견된 것은 朝陽洞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순수 청동기 문화의 전파와 확산경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곳의 유적 발굴로 지금까지 청동기 문화와 無紋土器文化가 압록강을 넘어서 西北部地方에서 中部이남지역으로 전파된것으로 인식돼 온 지금까지의 學說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이번 유적지 발굴조사팀의 白弘基교수는 『만주 요령성의 무문토기문화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오히려 頭滿江지역과 東海岸지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襄陽郡民들은 오산리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자유시간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은 마음의 풍요와 정신적인 충실을 추구하게 되고 지역활동이나 예술문화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문화활동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이 자발적인 문화활동에 참가하는 한편 文化行政은 사회·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文化意識은 역사의 뿌리를 알고 지역사회와 연관된 文化行政이 조화를 이룰때 생활수준을 높여주는 良識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선사문화연구에 획기적 기회를 마련해준 조양동유적지 발굴조사는 東草地域文化의 새로운 뿌리를 내린 것으로 음미해볼 수도 있다.

朝陽洞 선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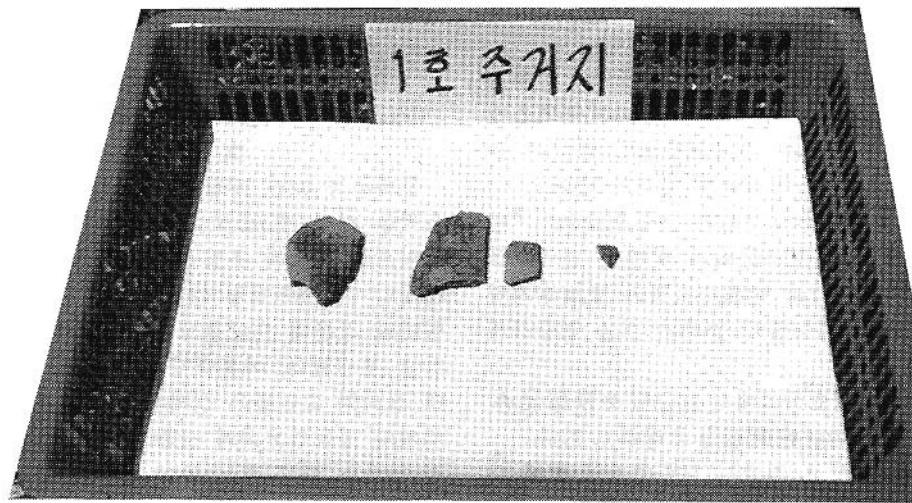
사적 376호로 指定

文 化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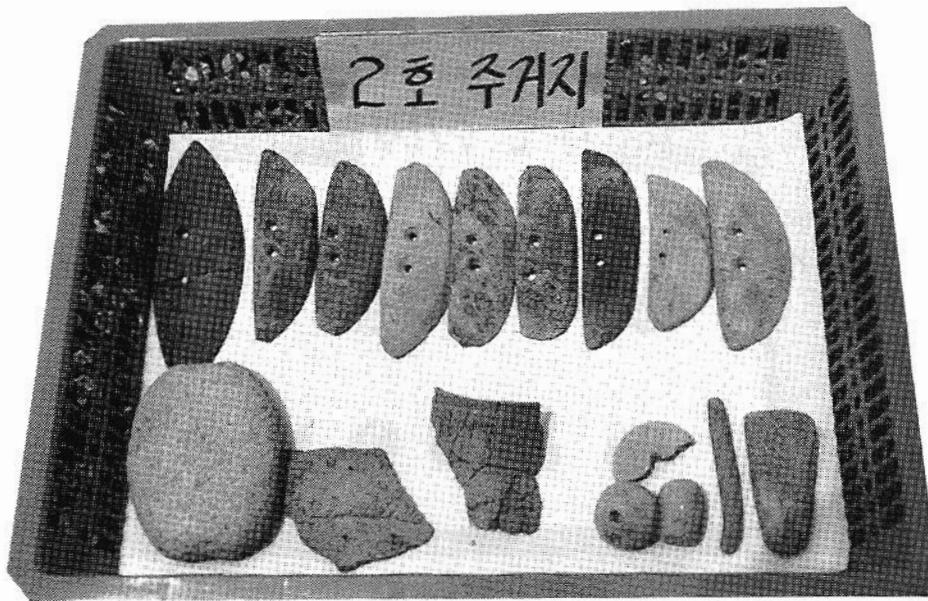
문화부는 92년 10월13일 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을 사적 제376호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조양동 선사유적은 조양동 택지개발지역 3천여평에서 발굴된 것으로 지난5월10일 강릉대 白弘基교수(박물관장)팀에 의해 발굴 조사됐다. 이유적지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집터와 고인들은 선사시대의 살림집구조 신석기와 청동기문화의 전환기 만주 요녕성 문화의 한반도 확산 경로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조양동 선사유적과 함께 전남 장성군 장성대도리 白瓷窯址를 사적 제377호로 지정 고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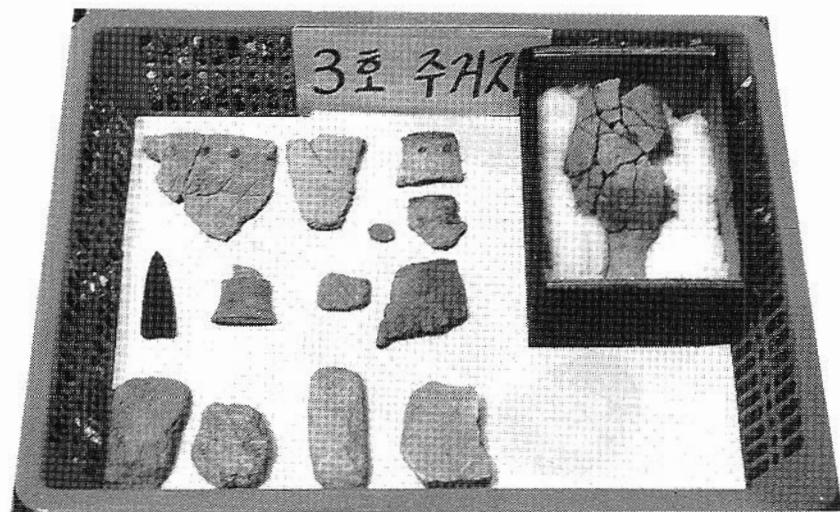
발굴현장 전경



1호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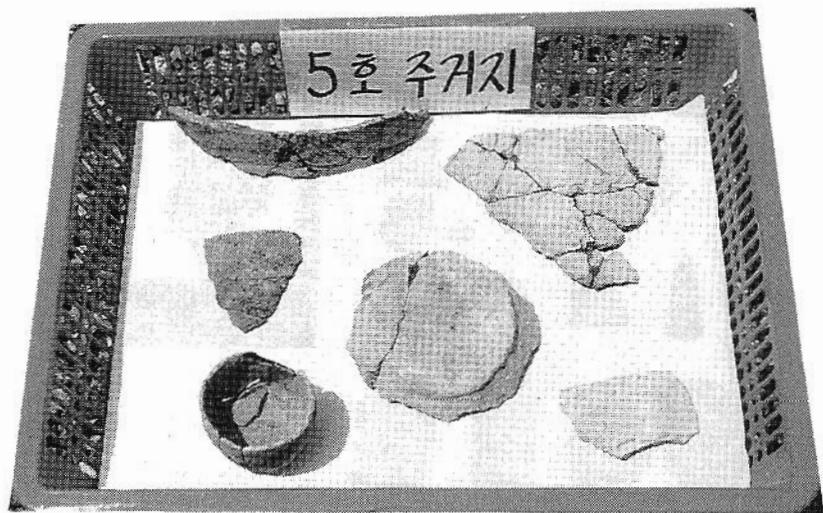
2호 주거지



3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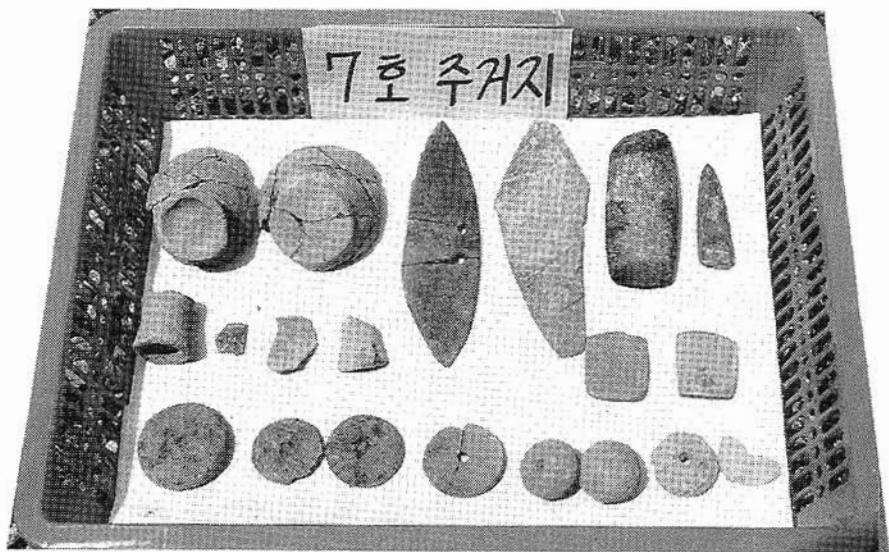
4호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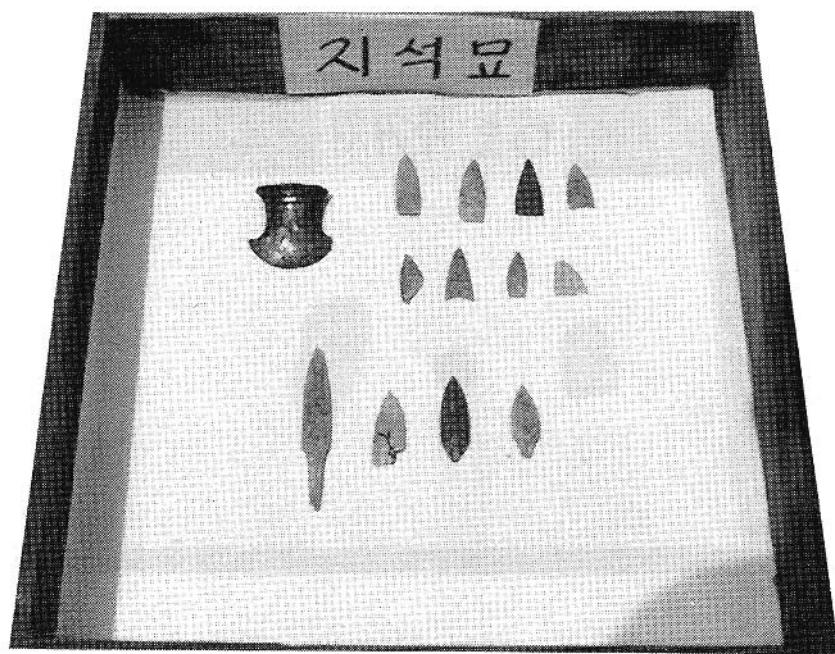
5호 거주지



6호 거주지



7호 거주지



지석묘

繼祖庵의 정토사원, 禪定寺의 선원 보존 시급한 세계적 정원

경원대학교 민 경 현 교수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에는 수많은 옛 정원이 있다. 그중 제한된 지면을 통해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원을 골라 보자면 삼국시대에 조성된 설악산 계조암의 정토사원과 선정사(禪定寺)의 선원, 한송정(寒松亭)의 다정, 낙산사의 의상대를 위시하여 고려 초기의 사원인 문수원 선원과 민가의 별서정원인 해암정,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민가정원인 선교장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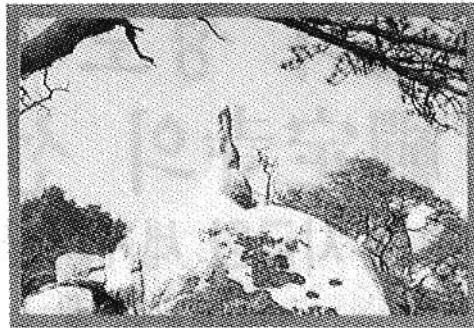
계조암의 정토사원

설악산의 지맥인 천후산(해발 950m) 중복에 위치한 계조암은 신라 선덕여왕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지은 암자로 동산(洞山) 각지(覺知) 봉정(鳳頂) 등 세 분의 조사(祖師)가 수도하였으며, 뒤이어 원효와 의상대사가 수도하였다하여 계조(繼祖)라고 명명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에 정토종과 선종불교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토사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전국의 옛 절을 답사하던 중 다행스럽게도 1983년 여름 계조암 서쪽 언덕에서 삼존석과 극락현(極樂峴)이라 음각된 반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극락정토를 상징화한 계조암의 정토사원의 꾸밈새를 설명하기 전에 당시의 사회상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돋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당시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왕족과 귀족 중심의 호국불교로서 국력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심이 크게 동요하게 되자 몰락귀족과 서민층에서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이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서민층의 호응을 얻어 민간신앙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 아미타정토신앙이었다. 아미타신앙은 일종의 심리적 보상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 무렵 원효대사는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르며, 아미타정토인 극락에서의 왕생은 쉬운 것이라 가르쳐 서민층의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토불교는 6세기 말 원광(圓光)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미타의 정토는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서방극락정토라는 상징적 표현을 쓴다. 미타가 살고 있다는 정토와 중생이 사는 차토(此土)와는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으며, 차토가 정토의 반영이자 정토가 차토의 반영이라는 일반적인 교의에서 유래되어 있다. 이같은 정토의 해석을 공간적으로 풀이할 때 멀리 떨어진 서쪽 어느 곳에 정토가 있다고 믿었는데 믿음이 강한 수도자의 눈에는 극락정토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계조암의 정토사원



은 원효대사가 653—655년 사이에 조성한 것으로 그 꾸밈새는 11세기에 꾸민 일본 교토의 보도인(平等院)과는 전혀 다르다.

내苑은 바위산동굴 활용

세계적 명산인 금강산과 설악산이 이어진 강원도 설악동에 자리한 신흥사앞 계천을 따라 북쪽으로 오르면 울산바위라고 불리우는 천후산에 이르게 된다.

외설악의 동북쪽에 위치한 천후산의 줄기가 동서 양쪽으로 내리뻗어 좌청룡 우백호의 형국을 이루고 그 중심부에 돌출된 돌산을 목탁바위라고 부른다. 이 바위 내부가 넓은 동굴로 되어 있어 그 속에 아미타불전을 짓어 계조암을 창건 하였다. 계조암을 중심으로 가람공간을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가람권과 정토권으로 구분되고 전자가 내원(內苑)이라면 후자는 외원(外苑)에 해당된다.

먼저 가람권은 건축구성에 있어서 다른 절의 경우와 같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마워산의 동굴을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지상에 노출된 건물은 후대에 지은 삼석각 뿐이다. 정토만다라도(淨土曼荼羅圖)에 [도 그려져 있듯이 원래 극락전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앞뜰에는 금당의 지붕 높이의 10~30배가 되는 넓은 뭇이 있고 주변에 호화찬란한 장식물이 가득차 있다. 그러나 계조암의 극락전은

자연그대로의 동굴석실이기 때문에 해발 950m의 웅장한 천후산이 극락전의 지붕에 해당되고, 계조암을 에워싼 동쪽언덕과 서쪽 언덕은 극락전에 연결된 건축적인 희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굴석실로 된 극락전의 넓이는 약 70여坪²로 아미타불을 모신 넓은 석실과 두 개의 방으로 꾸며져 있다. 입구에 세운 세 개의 돌기둥에는 ‘남무대세지보살’‘남무아미타불’‘남무관세음보살’이라 음각되어 있고, 위쪽 암벽에는 ‘계조암 극락전’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입구 밑바닥에는 직경 43cm 크기의 둥근 배례석이 중앙에 심어져 있다. 이밖의 가람권내 시설물에는 계조암 동쪽 언덕 너머로 약 500여m거리에 높이 5m가량의 바위 동굴속에 방을 꾸며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곳이 원효대사가 계조암에 머물러 있을 때 썼던 ‘원효방’이라는 사실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南行月壹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미타불 상징하는 삼존석

계조암의 앞뜰에는 와우석과 용암석이 있고, 그 사이에는 수백명이 쉴 수 있는 널다란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우각석(속칭 혼들바위)이 있고, 이곳에서 남쪽으로 달마봉이 바라다 보인다. 암자 입구 좌측에 높이 솟은 용암석 절벽 아래에는 감로수가 솟아나온다. 이와 같이 계조암의 극락전이 동굴속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람·공간의 모든 시설이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달마봉을 전망할 수 있고 동쪽으로 동해바다와 영랑호, 그리고 서쪽 언덕너머로는 천불동의 선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계조암 자체가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별천지에 위치하고 있다.

계조암의 정토권은 서쪽 언덕의 극락현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멀리 조망되는 달마산과 서쪽으로 전개되는 천불동 계곡, 그리고 동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동해바다와 천동의 천계(天界)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먼저 극락현은 계조암에서 서쪽으로 약 80여 m 떨어진 완경사지를 일컫는 것으로 이곳에는 삼존석, 중심석, 계단석, 사십팔원석산(四十八願石山), 삼반석, 삼산석등이 꾸며져 있다. 극락현(極樂峴)의 북쪽에 있는 삼존석은 높은 선돌형의 돌을 중앙에 세워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좌우에 세모꼴의 산형석으로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존석의 수석(樹石)유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삼존석은 계조암 정토권의 주경일 뿐만 아니라 천·지·인의 삼재(三才)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수석기법의 기본형인 품자(品字)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삼존석의 꾸밈새를 보면 중앙에 세운 선돌형의 들은 높이가 2.55m 폭 1.49m의 네모꼴로 사방에서 볼때 입체미가 뛰어나고 머리부분의 앞면인 남쪽이 북쪽보다 5m가량 높아 돌의 기세가 남쪽의 달마봉을 향하고 있다. 이 중심석에서 우측으로 1.23m 떨어진 전면에 옆으로 누운 산형석이 심어져 있는데 높이가 76cm 폭이 87m이다. 또 중심석 좌측 전면으로 20cm거리에 높이 39~73cm, 길이 97cm의 산형석이 심어져 있는데 양쪽 돌이 八자형을 이루고 있다.

삼산석은 좌선, 조망의 기능

삼존석에서 남쪽으로 63m 떨어진 곳에 둉근 형상의 중심석이 심어져 있고, 이곳에서 다시 13m내려가면 40여개의 크고 작은 돌을 쌓아올린 사십팔원석산이 나타난다. 그 규모는 높이

3.9m, 길이 8m, 폭 4.5m인데 이 돌산은 정토교의 기본경전인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수록된 마흔여덟가지 바램을 영구불변의 돌로 상징화한 것으로 삼존석과는 남북축선상에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돌산의 서쪽 모서리에는 아래쪽에 있는 삼반석과 삼산석으로 가는 원로에 연결된 두 단의 계단석이 조성되어 있다. 계단석 중 아래단은 자연암반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고, 윗단은 50~60cm 폭의 판석 세개를 수평으로 깔아 계단을 축조하였는데 윗단의 계단석 양쪽에 난간석을 세웠다. 서쪽 난간석은 높이가 90cm가량의 선돌형이고 안쪽인 동쪽에는 높이 70cm의 난간석을 세워 통행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원로와 이어짐을 알리는 지표물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계단석을 지나 원로를 따라가노라면 원로 서쪽에 세개의 반석이 나타난다. 원로가에 가까이 있는 두개의 반석은 길이가 2.6~3.5m, 폭 2.2~2.5m, 높이 26~35cm로 윗면이 평평하고 그 위에 앉아 천불동의 선경을 바라다 보면서 좌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한개의 반석은 길이가 4.6m나 되고 폭이 3.5m이며, 높이는 원로쪽인 전면이 53cm, 후면이 4.6m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 놓여지고 경사가 서쪽이



정토사원의 극락현과 읊각된 반석.



정토사원의 삼존불

높아 서쪽의 천불동 선경을 바라다 볼 수 있게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한편 바위 아래쪽 표면에 ‘極樂峴’이라 음각되어 계조암 정토사원의 역사성을 고증하고 있다. 이곳에서 다시 원로를 따라 약 16m 남쪽으로 내려가면 2~3m크기의 타원형 돌 세개가 남동향으로 30~50cm간격으로 띄워져 열상으로 놓여 있으며, 이를 삼산석이라 한다. 이 돌도 원도에서 멀어 질수록 크기가 커지고 높이도 점차적으로 높아져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여 소나무가지사 이로 달마봉의 응장한 모습을 관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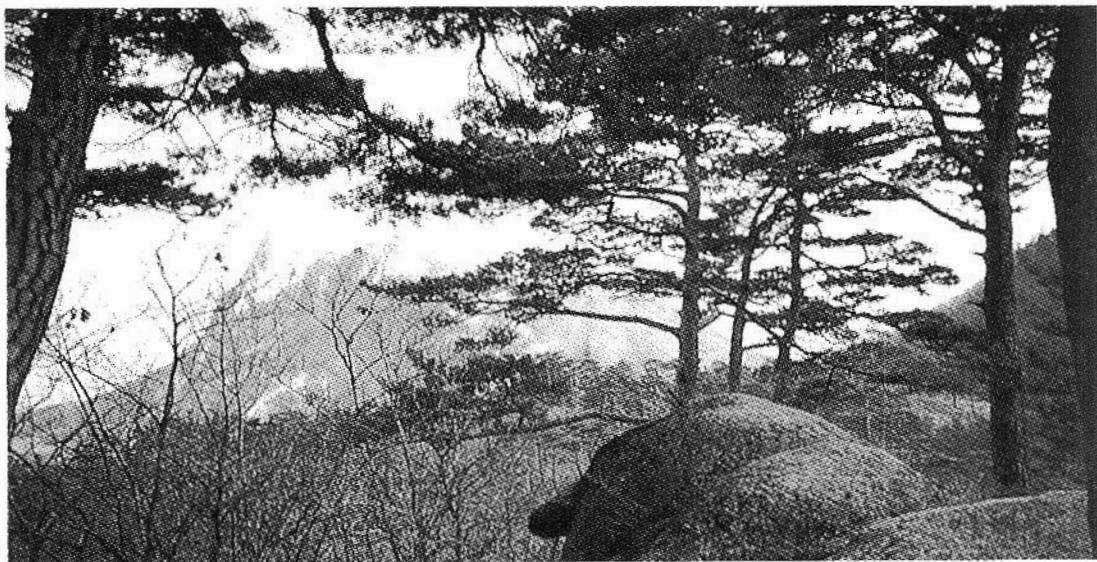
극락현은 지상의 정토

이같은 극락현에 쓰인 상징적이고 축의적(縮意的)인 수석기법을 인체에 비유하면 맨 위쪽에 위치한 삼존석이 머리에 해당되고 중심석이 배꼽, 사십팔원석산은 허리, 삼반석과 삼산석은 다리에 해당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삼존석에서 삼산석까지의 거리가 105m이고 삼존석에서 중심석까지는 65m로 이들 거리의 비례치가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토원의 공간구성은 크게 삼존석과 사십팔원석산이 위치한 상징공간과 삼반석과 삼산석이 있는 조망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불교적인 상징성이 주가되고 후자는 정정인 좌선과 조망의

기능이 주가 되고 있다.

제조암 정토사원에서의 정토의 개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광활하고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인 공간의 개념이다. 계조암에서 볼때 일차적인 정토는 서쪽 언덕위의 극락현이라 할 수 있으나 극락현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 전망되는 천불동의 선경과 동쪽의 달마봉으로 확산되어 두곳에 나타나게 된다. 계조암을 기준할때 동굴속의 극락전은 불계의 정토이고 서쪽의 극락현은 수도자가 밟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상의 정토라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천불동과 달마봉의 선경은 지상에 나타난 실존적인 종토이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정토와의 매개공간으로서 환상적이고 유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극락현이 내원의 정토라면 달마봉과 천불동 선경은 외원의 정토라고 말할 수 있으며 속초에서 약 1km 떨어진 둘레 7.8km, 수면면적 1백만㎡, 수심 8.5m나 되는 영랑호수는 가람권의 연못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정토사원으로 알려진 교토근교에 있는 묘도원(平等院)의 금당앞의 연못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승지를 골라 자연의 동굴속에 극락전을 세우고 자연의 호수를 연못으로 삼아



정토사원의 삼산석과 달마봉

서쪽언덕위에 삼족석과 ‘무량수경’을 상징화한 돌산을 꾸며놓은 계조암의 정토사원은 인간의 오감(五感)을 통한 ‘見聞覺知’에서 얻어진 영성의 세계를 이땅위에 조성한 극치의 사원으로써 자연의 섭리와 불교의 우주관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유일한 자연풍경식 정토사원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곳은 주요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선정사(禪定寺)의 사원

지난 1985년 가을에 설악동 내원암근처 계천가에서 의상대사가 서기 653~70년 사이에 꾸민 선원이 발굴되었다.

계천가 낮은 언덕에 마름모꼴의 좌선석(길이 1.03cm 폭 7.6cm 높이 53cm)이 있고 그 북쪽에 계석(길이 73cm 폭 45cm 높이 28cm)이 설치되어 있다. 좌선석은 계천 전너 서쪽언덕을 향해 있는데 앞쪽이 높고(82cm) 뒤쪽이 낮아(53cm) 방향성이 뚜렷하다. 좌선석 앞공간에는 47~127cm 크기의 6개의 돌을 모아 전체모습이 거북형상을 이루게 하고 거북머리가 계천을 향해 있다. 이곳에서 계천을 건너 서남간으로 50.8m 지점에 반달형의 인공석산이 조성되어 있는데 길이가 48m이고 넓이가 약 280m²로서 78~213

cm크기의 크고 작은 돌을 모아 조성한 돌산이다. 좌선석과 돌산 사이의 계천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9개소에 소폭포를 조성한 흔적이 남아있다. 이와같은 선정사선원의 공간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좌선공간 대경(對景) 공간, 침경(添景)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좌선석의 맞은편에 조성된 대경공간은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꾸며진 공간이며 침경공간은 물을 소재로하여 귀를 통해 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수경이 꾸며져 있다. 선정사 선원의 규모는 약 3,900m²로 지금까지 필자가 발굴한 다섯 곳의 선원중 최초의 자연풍경식선원으로 사적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유적이었는데 지난해 홍수로 그 일부가 유실되고 말았다.

낙산사의 의상대

의상대는 해돋이의 풍경이 뛰어나고 절벽 아래에 푸른 바나나 굽이 보이며 동쪽에 전개되는 수평선 너머로 망망대해가 연해있어 사색및 수도의 장으로 쓰였다. 의상대사가 670~676년 사이에 이곳에 머물면서 선종불교를 널리 보급한 사실등을 감안할때 의상대는 당시 낙산사의 선원의 성격을 띤 정원건축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속초는 도약대에 서 있다

1. 이제까지의 束草

우리네 속초인들은 우리들의 속초를 생각함에 있어 다음의 3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이제까지 속초가 걸어왔던 지난날을 상세히 살펴보는 일이고, 둘째는 오늘날 속초가 과연 어떠한 위상에 놓여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러한 속초를 미래사회에 대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쉽사리 그 해답이 얻어지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설혹 그 해답이 도출된다고 해도 이를 관철하는데는 막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속초인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통일하는 과정등 실로 어려운 문제들이 도약하는 속초를 건설하려하는데 가로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내용대로 우리 속초시는 朝鮮시대에 襄陽都護府 산하 所川面 束草里라는 조그마한 동리였다. 日帝시대인 1914년 府令(제111호)으로 道門面과 所川面을 통합, 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동리로 구성하여 大浦里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37년 7월1일에 束草里에 면사무소를 이전

하고 束草面으로 개칭하고 1942년 10월1일 부령(제104호)에 의해 束草邑으로 승격됐다. 8.15 해방과 더불어 38선이 북지역에 속해 1945년 8월24일 소련군의 진주로 공산치하에 들어가게 됐으며 6.25동란후 1950년 10월1일 국군의 북진으로 자유대한에 수복되고 1951년 1월4일 국군의 후퇴로서 일시 적치하에 다시 들어갔다가 1951년 2월11일 국군에 의해 재탈환 되었다.

1951년 8월18일 수복지구에 대한軍政의 실시로 다시 束草面으로 복귀했으며, 그후 1954년 10월21일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따라 軍政에서 民政으로 이양됐으며 1963년 1월1일 법률 제1176호로 束草市로 승격돼 16개 法定리에 11개 聯合리를 두게 됐다.

그후 1966년 1월1일 속초시의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가 승인되어 12개동으로 개편됐고 1973년 7월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대통령령 제6542호)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흡수, 장사동으로 개칭 13개동이 되었고 1983년 2월15일 대통령령 제1027호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에 편입됨으로서 오늘의 속초시를 이루고 있다.

2. 指定學的 意味에서의 束草

속초시는 동경128도28분29초, 북위38도 12분

董文星

중앙대 법대 행정학과 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졸(지역사회개발전공)

조선일보 사회부기자

현 속초시 재향군인회장



17초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해최북단의 국제개항장인 속초항구를 가지고 있다.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여건중에는 국립공원 설악산과 그산자락에 펴져있는 호수와 온천동이 무한한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겨냥하는 현시점에서 중국 동북지방과 시베리아 대륙을 향한 량질의 국제항을 가지고 있다는데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속초시가 근년에 들어 오면서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적인 증가로 지난해에는 3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속초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이용시설과 편의 시설확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현실에서는 관광산업만을 내세우고 그곳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속초항은 제1차적으로 어항의 기능으로 만족하고 있을 뿐이다. 명색은 건설부의 지정항인 국제개항장이나 정부직 차원에서 속초항을 국제개항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는 물론 이곳을 통해 해외화물 수출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연안수산업의 퇴조로 어항의 기능만으로 겨우 몇백을 유지하고 있는 속초항은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의사를 결집시키

고 속초항에 대한 개발의 당위성을 지방 및 중앙정부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對蘇修交이후 舊蘇聯을 대신한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釜山港이나 東海港등을 이용해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판단은 속초항이 가지고 있는 指定學의 의미를 완전 무시한데서 비롯된 해운정책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속초항은 현재 동해한지방에서 가장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개항장인 항구이다. 가령 속초항에서 러시아에 수출할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블라디보스톡항에 가게 된다면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톡항에 가는 航海의 거리를 5분의3의 거리면 능히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도상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속초항의 지정학적 의미는 동해안의 어느 다른 국제개항장인 항구보다 대러시아 교역에서는 항로가 짧고 시간이 단축되며 운송비가 절감되는 잇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동해안에서 속초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은 지난 9월29일 국교를 수립한 對中國관계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같이 중국의 東北3省은 서해안 쪽인 遼東半島연안의 항구들을 통해 그들의 물

자들을 太平洋 지역에 내 보냈는데 이제 韓·中 관계가 국교를 수립하게 됐고 중·러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3성 중 吉林省과 黑龍省에서 해외에 내보내는 물자들은 러시아의 포시엘항을 이용할 수 있는 公算이 크기 때문에 이들 항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속초항의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엔이 관장하에 한·러·몽고·중국·북한 등이 참여아래 開發計劃이 구체화되고 있는 UNDP의 豆満江經濟特區개발계획이 본격적 實行段階에 접어들게 되더라도 이지역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속초항의 비중은 무게를 더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가장 빠른 바다의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世界先進國들은 海運政策을 세울 것이다. 獨逸의 경제부흥을 흔히 라인강의 奇蹟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라인강이 독일에 공현한 공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라인강을 이용한 각종 原資材와 商品들이 값비싼 육지수송보다 엄청나게 原價를 절감케 함으로서 독일의 경제부흥에 큰 뜻을 해냈다는 것이다.

또 속초항에 대한 擴張과 施設擴充등에 대한 문제는 중국 동북지방이나 러시아 지역의 陸上交易에만 局限하여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한·러漁業協定을 체결한 상태에 있으며 양국간의 어업협정 내용에 따라 한국어선들이 러시아 연안의 오헤츠크해를 비롯한 어장들에 조만간 입어하여 어로를 하게될 것이다.

한·러 어업협정에 따른 한국측 어선들이 러시아 해역에로의 入漁漁撈가 本格化될 때에는 속초항은 그에 따른 동해안 지역에서의 어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도 가장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내다 보면서 속초항의 이와같은 지정학적 입지에 副應하기 위하여는 속초항만에 대한 확대건설과 상당한 육상시설의 병행투자

가 뒤 따라야 함은 물론이지만, 특히 首都圈 지역에서 江原道 內陸地方을 거쳐 속초시를 연결되는 道路施設들이 확장돼 전국에서 속초로 통하는 육상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南北韓의 狀況을 보면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和解·不可避·交流協力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까지 발효시킨 상태이며, 남북의 經濟交流는 불균형이기는 하지만 그 交易量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고 남북의 경제적 교류를 전제하더라도 휴전선기역에 가장 接近한 속초항은 對北交流의 據點항구로서도 중요한 機能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남한에서 북한에 보낸 5천톤의 쌀이 木浦港에서 선적돼 북한의 羅進港으로 보내졌는데 만약 속초항에서 이 쌀을 선적했다면 절반도 안되는 수송거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21세기와 東草人

이제까지 필자는 오늘의 속초가 있기까지 걸어온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한편 그러한 내력을 가진 속초가 21세기로 進入하는 現代社會에서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 어디에 있는가를 나름대로 고찰해 보았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 見解는 큰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적어도 필자의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후손들의 대를 이어 영원히 살아가게 할 속초를 도약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2천년 대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는 요즘이 最適期라고 있기 때문이다.

西海岸의 경우 한·중교류(수교)를 前提로 지난 89년 10월에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강영훈국무총리)를 구성하고 오는 2001년까지 총 22조3천1백33억원 투입, 서해안지방에 산업기지 공단, 항만, 도로, 철도, 공항등 모두 1백26개 사업을 착공, 지금 한창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과의 교역은 미미한 때였고 오늘과 같은 國交正常化는 생각지 못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대한 豫算을

과감히 投資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똑같은 北方政策을 推進하면서도 북방정책의 東海岸基地로서 가장 유리한 立地條件를 가지고 있는 속초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개발정책에서 차별논리를 적용하고 있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東草人們은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복이후 40여년의 오랜 역사속에 이곳에 뿌리를 내려 살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정부로부터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속초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속초항에 대한 개발투자를 확대하여 동해에 연해 있는 中國東北地域과 러시아의 沿海州地方과의 海上交通을 연결하는 가장 최적지가 속초항이

라는 認識轉換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정부가 우리지역에 대한 대북방정책에서의 지정학적 價值를 没覺하고 開發政策을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주민들의 단합된 의사를 결집하여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한편으로 우리의 대변자인 우리지역출신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국정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우리의 이와같은 행동은 흔히 거론하는 「地域的利己主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은 중요한 時期에 우리는 정부가 속초항을 개발을 추진해 줄것으로 믿고 앉아서만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것이 없을 채 귀중한 세월만 허송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렵사리 跳躍臺에 섰다가 밀려나는 신세가 될것이다.

우리의 傳統倫理 孝와 仁을 승상 근면과 誠實로 상부상조

우리민족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전통정신과 민족특유의 윤리가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인간 존중, 예절승상, 협동단결의 정신이 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한 마음과 근면, 성실한 태도로서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생활을 하였다. 또한 많은 시련을 극복해오는 동안 민족의식을 드높여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루워왔다. 세시풍속이나 전설, 속담에서도 예로부터 서로 존중하고 신애하고 이웃끼리 서로 돋고 성실을 중시하면서 이를 생활신조로 삼고 살아왔다. 또 의와 효의 민족이기도한 우리선조는 부모상을 당하면 자식이 효의 상례에 따라 묘지옆에 묘막을 짓고 지묘살이를 지성으로 하였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선조는 「나」아닌 「우리」를 앞세우는 탓으로 한 부락의 주민들은 마치 한식구처럼 다정하게 살면서 마을 경조사는 내집일로 여겼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도았고 이삿짐을 함께 나르고 형편에 따라 노력, 곡물, 금전으로 도왔다. 받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이웃을 돋는것을 지상 미덕으로 삼았다. 이웃끼리 경조사엔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서로 상통하는 맥이 흐르고 있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등 국난을 당할때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국대열에 자진 참여, 의병 활동으로 외적과 대적했다. 그리고 심산에서 수도하던 스님들도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 싸웠다. 이 모두가 우리민족의 애국적 협동정신의 발로요 민족정기의 흐름이였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국운이 기울자 10여만명의 동포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고 나라 찾기에 나서는가하면 침략의 원흉인 이동방문을 해치운 安重根의사는 멸사보국의 성업을 달성한 위대한 선각자이다. 조국을 위한다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선조들의 정신적 유산을 우리 모두가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 혼이 이어져 6.25를 겪으면서 자유대한을 수호했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분별없이 받아들여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의 욕망의 함정에 빠져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우리」라는 범주를 벗어나 「이기」라는 개인주의가 의식의 범주를 지배하게되어 가슴아픈일이다. 요즘의 사정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개인주의는 이웃이나 나라 생각없이 부귀영화만 꿈꾸게되어 아름다웠던 협동정신이 자취를 감추게 되어 힘있는자는 제목소리만 내는 세상이 되었다. 이로써 목적달

高 禮 和

전 문화원이사



성을 위해 소중한 인명을 해치는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 의롭게 살라고 당부하시던 선조들의 가르침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의 개인주의를 우리 생활환경에 조화시켜 전통 윤리의 원줄기

에 동화시킨다면 우리는 다시 정직성을 바탕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가 조성될 것이 확실하므로 다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공간을 마련, 분별없는 행동을 자제할 때 나라 발전은 물론 인간성 회복으로 서로 돋고 웃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北青사자놀이 부활을 바라며

張 正 龍(도문화재전문위원·江陵大 교수)

우리 강원도의 전통민속중 탈놀이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강릉관노가면극, 통천가면극, 고성가면극, 속초사자놀이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강릉을 제외하고는 현지의 실질적인 전승이 끊긴 상태여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재고를 요한다. 통천은 현재 북한지방에 속해 있으므로 재현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고성과 속초는 노력만 기울이다면 새롭게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성의 금단작신가면놀이는 문현으로만 전해오고 있으나 속초사자자놀이는 현재 기능보유 84호인 북청출신 김수석씨(남·84세)가 1951년이래 속초에 정착해있고 1958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재현된바 있어 이제는 속초사자놀이화 되었다. 이 놀이가 북한지방에서는 현재 전승이 끊긴 상태를 감안하면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이를 재현함은 큰의미를 찾을 수 있다. 통일에 앞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은 물론 함남출신의 많은 실향민들이 운집해있는 속초주민의 화합에 기여하고 아울러 분단의 새세대에게 잊혀져가는 북한의 민속을 알려주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이는 서울에서도 공연단이 있어서 행해지고 있

다. 그러나 원 전승지가 속초였고 이곳에 또한 최대 이주민이 모여 살고있음을 볼때 현지의 인간문화재 김수석씨와 북청도청회장을 맡고 있는 김하륜씨(남·75)를 중심으로 속초지역 함남 인이나 그 2세들에 의해 전수됨에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행히 속초에는 1958년에 처음 공연할 당시의 사자탈이 30여년이상 잘보관되어 있고 충분한 인적재원이 있으므로 시나 문화원등 유관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이제 강릉의 관노가면극은 마을주민중심과 대학생들로 민간전승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였고 고성도 재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차제에 속초지역문화에 뜻있는 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올 설악제때는 다행히 사자놀이가 부활되어 마음의 불행을 쪓고 행복을 염원하며 주민단결과 협동심을 유발하는 호방한 사자춤과 특유의 통소소리를 다시 들게되어 흐뭇한 마음을 금할길 없다. 고향잃은 실향민들의 애타는 마음과 같이 아픈상처를 치유하는 대보름 사자놀이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속초에서 포효하기를 희망한다.

국립공원 설악산(8) 화암사(禾巖寺)



박 익 훈

화암사는 오랜세월 동안 흙속에 묻힌 옥돌처럼 빛을 보지 못하다가 요즈음 새로 재건 단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

이 절은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위치한 절로서 신라혜공왕(新羅惠恭王)5년(769)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창건하고 이름을 “화암사”라 했다.

지금으로부터 359년전인 인조(仁祖)11년(1633) 택당 이식(澤堂 李植)선생이 간성군수로 있을때 썼다는 간성지(杆城誌) 화암사(禾巖寺)조에 의하면 “천후산 미시파령(天吼山 彌時坡嶺=미시령)밑에 화암(禾岩)이란 바위가 바른편에 있기 때문에 절이름을 ‘화암사’라 했다. 이절은 산허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까이는 영랑호, 멀리는 창해(滄海)에 임해있고 양양, 간성의 모든 산과 평원심곡(平原深谷)이 눈아래 보이고 넓고 아름다운 경치는 절(寺)이 토(吐)해놓은것 같다. 절뒤에는 반석과 폭포가 특수한 모양을 하고 있어 가히 불만하다.

1622년(光海君14)에 절이 불에 타버려 지금 중건(重建)중이나 완공되지 못했다.

옛날에는 크고 우아한 문루가 있었는데 망가졌다. 문루에서 바라보는 창해에서 해뜨는 모습

은 강호를 찾는데 있어 이곳보다 낳은곳이 없건만 옛사람들은 찾아와 놀아보지 못했으며 지방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또 관동지방에는 이름난곳이 많아 과객들이 이곳까지 올겨를이 없었으므로 절 이름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在川吼山 彌時坡嶺下 禾岩在右故名焉寺在大山腰 近臨水永郎湖 遠臨滄海 房眺襄杆諸山 平原深谷 皆在几席底 吞吐空濶戀態百千 寺後石床瀑布 皆殊狀可玩 寺火於天啓壬戌 今方重建朱完舊有門樓 形勢尤弘敞 取謂樓觀滄海 日門對折江湖者 不是過也 昔人未嘗游焉 土人又輕之 關東多名區 賓客過者 朱暇旁討因 隱故此寺至今無顯稱也)

천후산(千吼山)조에

“간성군 남쪽 70리되는 곳에있는 산으로서 석굴이 많고 그곳으로부터 바람이 나온다하여 천후산이라 부른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양양과 간성사이에 큰 바람이 많은것도 이까닭이라 한다. 뛰어난 성인대가 있는데 돌모양이 불상과 흡사해서 성인대라 하였다. 그옆에 또 큰바위가 있는데 마치 곡식을 쌓아 둔 듯 근처같이 보

인다 하여 세속에서 화암(禾岩)이라 부른다.

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서 적과 싸울때 짚으로 만든 거적으로 이 바위를 둘러싸서 마치 벼가리같이 보이게하여 적을 물리쳤다하여 화암(禾岩)이라 했다.”

(在郡南七十里山 多石穴 風自中出故謂之天吼
世傳襄杆之間 多大風以此云 聖有聖人臺 有石狀似佛像故名 其側又有大石 如藁囷藁 俗呼禾岩
世傳昔有防戍于此而 以藁苫襄此石 示敵以有峙糧仍以却敵故名)

이상을 요약한다면 화암사는 화암이 있다해서 절이름도 화암사라했고 주위환경이 매우 아름다운데다가 광활한 평원과 다른곳에서는 볼 수도 없는 좋은 문루도 있었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것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었고 관동지방에는 이름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유람객들이 이곳까지 찾아올 겨를이 없어 절이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후산은 석굴(石窟)이 많아 큰바람이 불때는 그곳에서 소(牛)울음소리같은 소리가 들린다해서 하늘이 우는산 즉 천후산(天吼山)이라 했고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 하여 이지방에 바람이 많은것도 세속에서는 천후산에 석굴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화암이란 이름도 천후산 옆에있는 큰바위가 벗단을 쌓아둔 노적가리 같이 보이어 적을 막았다는 뜻에서 화암(禾岩)이라 불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암사는 창건이래 고종(高宗) 원년까지 1096년간 화재가 5번이나 낫는데 이것은 화암이란 이름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나 화자를 쓰지 않도록 하고 화자대신 수자로 쓰자는 것이다. 풍수음양오행설(風水陰陽五行說)에 의하면 수극화(水克火)로 물은 불을 이긴다하여 물수(水)자를 쓰야하겠는데 수자를 쓰자하니 절이름에 대한 역사적 의의가 없어진다해서 水대신 穂(수)자를 쓰면 음(音)

은 水와같고 뜻은 禾와 같으니 수암(穗岩)이라 했으나 또 화재가 생겨 1912년에 화암(禾岩)으로 다시 고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이 바위를 “수바위(穗岩)”로 부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穂자는 좀 어려운 한자여서 아는 사람이 적고 바위경치가 아름답다해서 수바위(秀岩)라고 세속에서 쓰기도 한다.

수바위는 예나 지금이나 벼(禾)에 얹힌 이야기가 많다. 화암사에서 약300m떨어진 곳에 계란모양으로 우뚝 솟아 있어 초행길에도 찾기쉬운 목표물이기도 하다. 바위위에 왕관모양의 바위가 또하나 있는가하면 직경 1m 주위 5m가량되는 웅덩이가 있어 항상 물이 고여있고 가뭄이 심할때 이물을 주위에 뿌리며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고 옛날에는 스님들의 수도장으로 사용했다 한다.

수바위에 얹힌 전설

절이 일반 민가와 떨어진 오지에 있어 시주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스님들은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불공에 여념이 없었다. 어느날밤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수바위에 가면 그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을터이니 그 구멍에 지팡이를 넣고 혼들면 쌀이 나온다 했다. 스님들은 그 이튿날 노인이 시킨대로 했드니 그절 스님들이 먹을 쌀이 나와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수도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얼마후 어느날이었다. 객승(客僧)한사람이 이절을 찾아와 보니 이절 스님들은 시주받으려 다니지도 않고 불공만 열심히 드리고 있기에 이상히 여기다가 이내력을 알고 혼자 생각하기를 지팡이 한번 혼들면 한사람분식 쌀이 나오니 백번 넣어 혼들면 백사람분식 쌀이 나오더니 백만장자가 되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물욕이 생겼다. 객승은 불경에는 뜻이없고 젓밥에만 눈이 어두어 스님들 몰래 수바위를 찾아가 바위구멍에 지팡이를 꽂고 수없이 혼들어댔다. 웬일인지 나오라는 쌀은

나오지 않고 붉은 피가 나왔다. 그후부터는 영영 쌀은 나오지 않았다 한다.

화암사는 위와 같이 교훈적인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절앞에 펼쳐진 넓은 평원(平原)은 1991년 세계 챔버리대회장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때 대회에 참가한 천여명의 불교국가 청소년들이 이절 법당에서 수계식을 갖게되어 화암사는 갑자기 세계속의 사찰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가하면 대회장은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각각층의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절앞으로 흘러가는 신선계곡의 맑은 물은 신선봉에서 발원하여 장장 30리에 걸쳐 곳곳에 소(沼)와 폭포를 이루고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들이 깨끗한 공기와 조화를 이루어 그야말로 선경을 이루고 있다.

화암사에는 조선조 22대왕인 정조대왕(正祖大王)이 하사한 6첩으로 된 서병(書屏)과 관음보살상. 이절을 창건한 진표당(眞表堂)의 진영

(眞影)을 비롯 16점의 진영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뿐 모두가 다 해방과 함께 간곳이 없고 남아있든 절의 현판과 탕화몇점마저 20여년 전에 도난 당하고 말았으니 애석하기 짹이 없다.

부속암자로 미타암(彌陀庵)은 화암사 창건 당시 진표율사가 지은 암자로서 창건 당시는 지장암(地藏庵)이라 하였는데 태종(太宗) 원년(1401)에 다시짓고 미타암이라 개칭(改稱)하였다.

안양암(安養庵)은 인조(仁祖)6년(1628)에 광명선사(廣明禪師)가 창건하여 경종(景宗) 원년(1721)에 사승(寺僧) 해성(海城)이 중수하였다 는 기록은 있으나 암자는 없고 빙터만 남아있다. 죽암당부도(竹岩堂浮屠)를 비롯하여 15개의 부도가 천년간의 옛일들을 말없이 전해줄 뿐이다. 이 지방 사람들은 화암사를 “활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
나도 향토기업의 주주와 자부심 가져
市民들의 적극 참여로 93年 5月 착공
95年初에 완공, 年間 24億흑자 예상
市民들의 긍지가 250億조달 성공 확실
”

속초시민들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는 대체별의 투자만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빼져 2백~3백억원씩 투입되는 사업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살았다. 단지 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단위 관광개발 업체를 속초로 유치하면 보람된 시민으로 아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 날 수 없는 범주에서 안주해 왔다. 고작 머리를 짜내는 것이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탄원식으로 건의하여 관철되면 성공과 보람으로 여겨 왔었다.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향토기업의 탄생으로 옹졸하고 예속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 시민 공모주로 설립된 속초향토기업(주)로 지역개발의 기수로서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되어 나도 향토기업의 주주다하는 주인의식을 갖게되었고 참여 못하는 시민은 스스로 아쉬움을 느끼는 시대로 발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고 의식개혁의 전환을 가져 오게된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경제존속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나도 주주(향토기업)다』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방관에서 참여로 유도하여 슬기와 땀으로 새속초 건설의 대렬을 정비하는데도 향토기업이 이바지한 업적이 크다. 池一權속초문화원장이 金亨東속초향토기업(주)사장과 대담으로 속초향토기업(주)의 전부를 알아본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발족한 속초향토기업(주)의 설립취지는.

앞에는 동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마치 병풍처럼 설악산이 펼쳐져있는 우리고장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천혜의 명승지입니다. 이 맑고 푸른 강산에서 예전에 우리는 대자연을 만끽하고 함께 호흡하며 살아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온갖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의 훼손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장의 인사들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본부족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때 막대한 외지의 자본이 무차별 침투하여 영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대형 관광 서비스 업체중 지역민이 경영하고 있는 업체는 몇개나 있겠습니까? 그수는 극히 미미하기 그지 없고 외지에서 온 대형기업들은 엄청난 경영수익금을 단하루도 넘기지 않고 본사로 송금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그들에게 고용되어 잡다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좌시할 수가 없어 이고장의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합쳐 향토기업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고장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조화있게 개발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직접 시민들에게 균등분배 되도록하며 이



金亨東
속초향토기업(주)사장



池一權
속초문화원장

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복리 향상과 지역문화를 창달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이고장은 설악산을 비롯하여 바다와 호수, 온천등 천혜의 부존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이를 특성있게 개발하고 보존하는 문제엔 소홀했음은 우리 모두가 무력함을 드러낸 증거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법인(기업)이 함께 경영의 주체가 되어 지방경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향토기업은 지방자치시대의 선두 기업주자로서 타시·도의 모범이 되기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설립취지를 적극 찬동하고 모두 참여하여 기적의 신화를 냉기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은 시민의 기업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기업으로 강한 이미지를 풍기는 향토기업의 설립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회사 창립은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 회사 설립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을 감안, 그 취지를 어긋나지 않게하는데 치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1. 91년 10월10일 속초시 번영 회의 발의로 발기 준비위원회 구성 2. 91년 12

월19일 제1차(가칭)속초향토기업(주)발기인 대회 3.92년 1월16일 제2차(가칭)속초향토기업(주)발기인대회 ①정관(안)토의 ②가칭이란 명칭삭제키로 결정 ③주식 청약개시 4.92년 2월 19일 속초향토기업(주)주식 인수자 간담회 5. 92년 3월12일 속초향토기업(주)창립총회 예비 회의 개최 6.92년 3월29일 정관확정 7.92년 3월 31일 창립총회 ①정관 공증 ②주주 66명 ③자본금 8억원(설립시 20,330주, 청약금 2억330만 원) ④임원 17명(이사 15명, 감사 2명) ⑤이사회에서 金亨東주주를 초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8.92년4월1일 법인등기와 동시에 대표이사 사장 金亨東취임, 업무개시 9.92년6월17일 세무서 법인 설립신고 함으로써 속초향토기업(주)가 설립되었습니다.

－첫사업으로 모노레일(궤도사업)을 선정하게 된 당위성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위부상으로 여가선용의 욕구가 팽배해진 현실속에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찾는 내·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 드라이브로 인한 자동차의 증가율은 관광객증가율을 훨씬 앞질러 설악산 국립공원의 수용능력을 포화상태로 이르게 했습니다. 현재 주말과 휴일에는 설악산 관광단지 B.C지구에서 설악산 소공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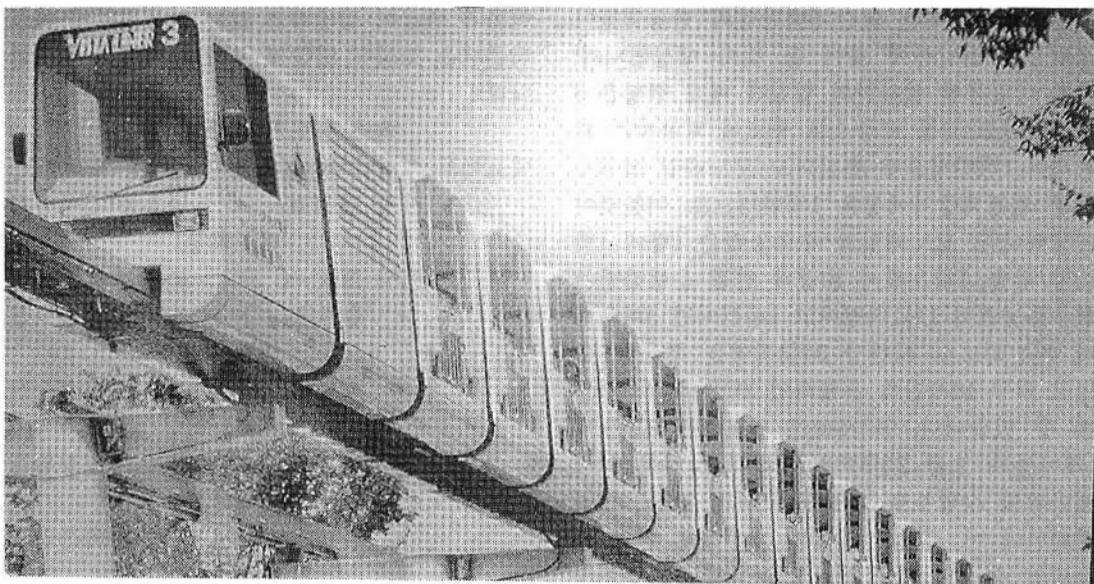


통제해 어쩔 수 없이 4km를 도보로 소공원을 찾는가 하면 교통체증으로 시즌때는 하루 2천 대의 차량이 소공원으로 진입도 못한채 관광단지 B.C지구에서 뒤돌아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른 아침에 자가용차량들이 소공원에 진입하려다 교통마비로 인하여 노면이나 화단, 잔디밭 등에 무단방치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며 이는 교통체증 해소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까지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관광단지 주변에 난립되어있는 콘도, 오피스텔, 골프장 및 각급 기관단체의 연수원등은 관광객 증가의 큰요인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설악산을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별없는 전천후 관광지로 변모케 하였습니다. 현재의 관광객 증가요인을 고려해 볼때 연간 50만명씩 증가추세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공원 진입로에 회차용 도로(순환도로)의 신설이 불가피 하지만 이것은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파괴가 엄청나게 끌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홍수처럼 밀리는 차량행렬을 소화하는데는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소공원

진입로인 관광단지 A.B.C지구에 궤도(모노레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미 개설된 기존도로변 및 인도를 따라 설치 함으로써 자연경관의 훼손을 극소화할 수 있고 관광객의 대량수송을 가능케 해 줄것입니다. 모네레일 시설물은 국제적 규모의 관광이용 시설물로서 국제적 관광단지 조성 및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 개발 차원에서도 시도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시설물이 등장함으로써 관광설악의 새명물로 등장하게 될것이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는 향토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단장, 첫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규모와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노레일 노선 시설비(정류장, 주차장등 제반부대시설비 포함)와 차량구입비등을 합쳐 1km당 64억원이 소요됩니다. 64억원×연장4km=총 2백56억원이 소요되는데 발주시 가격조정을 거치면 2백50억원으로 완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에서는 92년 4월20일 대표이사 회장 尹重國(도의원), 대표이사 사장 金亨東, 이사 白永一, 金利權등 임원들이 서울출장, 관계



기관과 업체를 방문, 92년 4월23일 속초시에서 용역비 5천만원을 지원키로 잠정 합의. 92년 7월27일 尹重國회장등 임원2명 내무부 공원과 방문. 92년 7월27일 金亨東사장등 임원5명이 내무부, 교통부, 국회 방문. 92년 8월18일 임원 3명 서울에서 관계기관과 시공방법을 협의. 92년 5월13일~16일까지 시찰단 20명(임원 12명, 시의원 3명, 시 3명, 국립공원 1명, 교수 1명)이 싱가풀의 모노레일 운영 현황을 시찰. 92년 5월 27일 상공회의소에서 산업시찰 결과에 따른 간담회 개최. 모노레일 시설 관련업체와의 회의(협의) 92년 4월16일 쌍용엔지니어링(주)기술진 본사방문, 임원진과 함께 선로 답사한후 기술문제를 협의. 92년 5월27일 쌍용 엔지니어링(주)측과 사업 협의. 92년 6월15일 쌍용엔지니어링(주)측이 본사에 시설 견적서 제출. 92년 8월12일 금성산전(주) 본사에 사양서 제출, 사업 토의. 92년 7월22일 속초시에 궤도 설치 건의. 92년 7월24일 시에서 도에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추진 건의. 도에서 건의서를 보충, 내무부에 제출. 92년 8월3일 내무부에서 강원도로 설악산 국립공원 모노레일 설치 건의를 회신. 92년 8월 11일 강원도에서 속초시로 회신. 92년 8월17일 속초시에서 본사로 회신 통보. 회신내용은 설악

산 국립공원 기본계획(77.10.4)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신청하기 바람. 92년 8월24일 모노레일의 노선, 정류장의 위치, 역사및 부대시설물 형태, 차종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협조를 관동대 관광개발연구소등 5개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태평양 산업 연구원등 국내 4개 연구기관과 스위스 본사를로부터 재료 제출을 받음. 92년 9월25일~26일 태평양 산업연구위원및 스위스 본회사의 중역간부가 본사 방문, 설악파크호텔에서 문답형식으로 설명회를 개최. 92년 10월10일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본사, 내무부, 도·시, 공원관리사무소등 합동회의에서 모노레일 설치노선, 정류장, 차종, 역사, 주차장에 관한 문제를 결정. ①노선=내무부에 건의한 노선 ②정류장=3개소(C지구 야영장, B지구 주차장, A지구 주차장)로 확정 ③차종=VonRoll社의 타입2(이차종은 현재 스페인의 세빌라에서 운행되는 차종임)로 선정 ④역사=설악산의 특성에 알맞는 설계 ⑤주차장=C지구 야영장에 4만평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키로 했습니다.

—명분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궤도사업의 수지 계산은.

대담

앞으로 2년후면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에 찾아 올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립공원 설악산의 입장객 평균 현황은 3백만명이고 교통 체증으로 중도에 회차하는 관광객이 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모노레일 설치로 인한 관광객 증가예상은 1백만명으로 이를것이 예상됩니다. 모노레일의 수송능력은 1량에 1백 10명 탑승, 1회운행시 10량씩 연결 운행하면 1회수송능력이 1천1백명이고 1시간이면 3회운행이 가능하므로 시간당 3천3백명을 수송할 수 있고 하루 10시간씩 운행하면 3만3천명을 수송 할 수 있습니다. 연장4km의 왕복요금 2천원씩 (케이블카 요금 2천3백원)계산해도 하루 6천6백만원의 수입으로 가정하면 연간 2백40억9천만원인데 이 세입의 35%만 계산해도 연간 84억원의 수입은 확고 하다고 봅니다.(단 주차장 및 휴게소 수입은 제외)이중 인건비, 운영비, 지급이자, 감가상각등 제반 경비가 연간 59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볼때도 순수익이 24억5천여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종사업비중 아직 재원확보가 안된 2백여억원은 이중 51%에 해당하는 자금은 속초시가 채권발행등 재원으로 출자키로 하고 나머지 49%는 시민출자를 추가로 권유, 잘 안될때는 모노레일 차종을 납품하는 본사를 스위스 은행에서 차관으로 공여하는 문제가 잘협의 되고 있어 사업비 조달은 어려운 문제가 없지만 향토기업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의 열의있는 참여와 협조가 열쇠라고 믿습니다.

池一權문화원장-金亨東사장께서 시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향토기업의 마스터플랜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초 향토기업(주)임원

대표이사 회장 尹重國(속초시 설악동·도의원)
사장 金亨東(" 금호동·전상공회
의소회장)
이사 白永一(" 교동·번영회장)
" 金成道(" 조양동·함성수산
대표)
" 李源益(" 교동·원경수산
대표)
" 鄭亨昊(" 설악동·소공원휴
게소대표)
" 朴鶴聲(" 동명동·마을금고
이사장)
" 尹鍾九(" " ·시의원)
" 崔茂一(" " ·제일약국
대표)
" 崔利權(" 노학동·데이타통
신대표)
" 崔善嘆(" 대포동)
" 朴容權(" 도문동·시의원)
" 崔秀吉(" 교동·관동사무기
기대표)
" 崔尚鳳(" 장사동)
" 張東布(" 교동·시의원)
감사 李根春(" 중앙동, 중앙슈퍼
대표)
" 崔昌永(" 조양동·시의원)

오징어잡이 漁夫 出身이 5천만원규모 장학재단 세워

裴 榮 德
現代上人代表



소년시절 구두닦기, 껌팔이 등을 하면서 목에 풀칠하던 裴榮德씨(46)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후세들에게 안물려 주기 위해 끈끈히 모은돈 몽땅 털어 장학재단을 세웠다. 충남 서산이 고향이고 仁川에서 태어난 裴씨는 8남매중 넷째아들로 집안 살림이 어려워 13세 집을 나와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 손에 쥔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기진 배를 허리띠로 졸라매고 구두닦기부터 시작했다. 새벽엔 신문배달, 낮엔 구두닦고 밤엔 껌, 합쌀떡장사, 비오는날엔 빵과 과일을 팔았다. 잠자리는 다리밑 교각을 의지해 가마니를 엮어 만든곳에서 기숙했다. 그는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험한 음식을 먹어도 한번도 부모형제를 원망한 적도 없었고 오직 성공하겠다는 의지만 불타고 있었다. 군것질은 생각조차 가져본적은 없었고 지출은 중고교과정의 강의록을 사보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였다. 정말 주경야독으로 미래의 꿈을 설계했다. 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4.19혁명나던해 같은 또래 소년5명이 春川으로 자리 옮겨 빙과류행상등 닥치는 대로 했지만 일행중 4명은 모진 역경을 이기지 못해 귀가했다. 春川생활 1년동안 당시금액으로 10만원을 저축하게 되었다. 春川생활에서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전남 여수 출신의 金모씨(72)를 따라 62년 봄 東草에 오게되었다. 얼마 안있어 5.16혁명이 일어났는데 그해는 농사도 잘안되고 바다도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웠다. 金모씨는 오징어 장사하면서 裴씨가 땀흘려 모은돈 10만원도 몽땅 날리고 행방을 감추었다. 수중엔 무일푼이 된 그는 속초수협 입구 낚시점에서 갖고 있던 가방과 옷가지를 맡기고 오징어잡이 중고낚시 1조를 외상으로 구매, 첫 출어에 나섰다. 오징어잡이는 우의가 있어야 되

는데 낚시를 겨우 외상으로 얻은 처지에 우의 까지 살 수 없어 그냥 나가 오징어가 배출하는 물세례를 받으면서 조업했다. 첫날은 다행히 파도가 없어 멀미를 하지 않았지만 겨우 두마리 잡고 귀향, 둘째날은 파도가 일어 심하게 선체가 요동하는 바람에 배멀미를 해 겨우 3마리 잡고 퇴하기 시작했다. 선장은 너무 심한 멀미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 허씨를 선실에서 쉬라고 일렀다. 그도 더 견딜 수 없어 선실에 들어갔다. 그렇게 5~6시간 시달리다 보니 의식을 잃고 선실에서 쓰러지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제는 다시 배를 안타겠다고 수백번 다짐했다. 그러나 갖고 있는 돈은 없고 해서 그날 잡은 오징어 3마리를 30원에 팔아 20원어치 배멀리 약을 사먹고 다른어선에 경험이 많다고 말해 겨우 승선, 다시 출어에 나섰다. 약효가 적중되어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어선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浦項까지 「남발이」(원정조업)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오징어 잡이로 당시금액으로 8천원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오징어 어기가 끝난 다음 그는 지금 서울예식장앞 1평짜리 공터를 10월에 4천원주기로하

고 얻었다. 그자리에 술, 과일, 과자등을 차려놓고 노점상을 시작했다. 의외로 장사가 잘되어 17년전인 29세때 고향출신의 처녀 鄭鎮粉씨(41)와 결혼, 속초에서 새보금자리를 마련, 금호동에서 철물가게를 냈다. 그후 잇단 화재(수해)등으로 철물점이 잘되어 기초적인 성공을 얻게 되었다. 이는 부인의 내조가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이렇게 자리잡은 허씨는 지금은 동명동(경찰서앞)에서 각종 유리와 조립식 앵글을 판매하는 현대유리점 사장이 되면서 점포도 4층으로 짓고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되었다. 지난날 너무나 불우해 눈물나던 시절을 연상, 후세들은 자신처럼 공부못하는 불운을 안겨주어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장녀 珉兒양(18·여고3년), 장남 赫군(15·속고1년), 둘째딸 賢兒양(14·설여중2년)등 3자녀의 이름을 따 『珉赫賢문화장학재단』을 설립키 위해 재단법인 등록수속을 밟는 중이다. 그는 재단법인이 등록을 마친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되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장학금을 대폭 증액할 꿈에 부풀어 있다.

제27회 雪嶽祭盛了 향토文化꽃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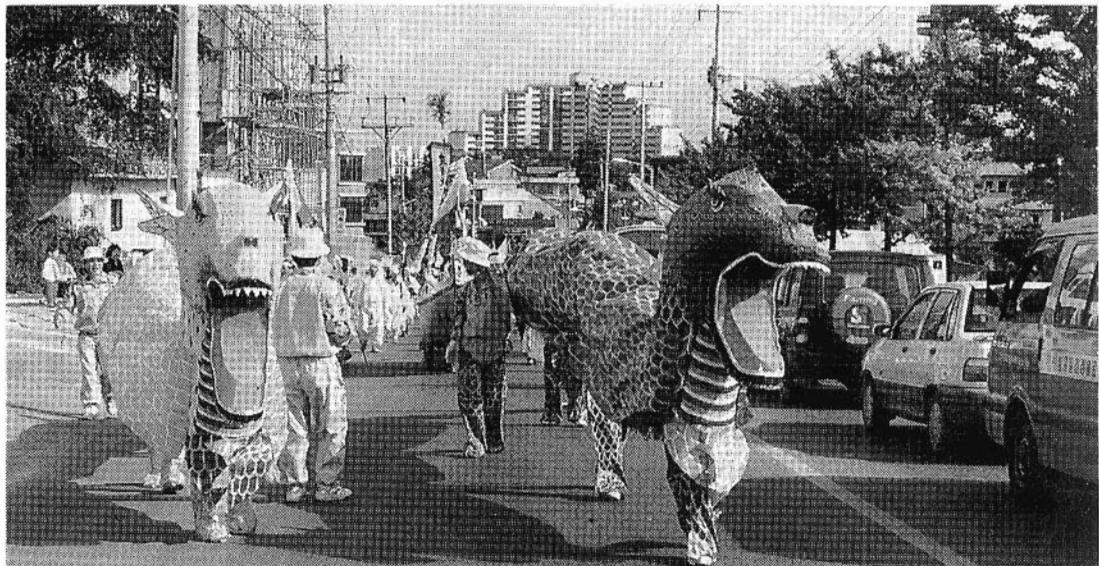
승 원

이 고장의 고유민속과 전통문화를 접목시켜 향토 색깔이 짙은 제27회 설악제가 8만시민들의 환호속에서 10월1일~4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졌다. 산악과 어항의 고리를 연결한 설악제는 첫날 산악인들의 무사고와 시민들의 안녕, 바다의 풍어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 산신과 용왕, 토지신을 봉안하는 설악대제에 이어 밤엔 설악산 관광단지와 시가지를 수놓은 3백발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첫날 오전 10시 공설운동장에서 5천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 앞서 이날 아침9시부터 동별 가장행렬대와 선수단이 농악대를 앞장세운 시가 행진이 속초국민학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행진 하자 연도에 웅집한 시민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0월1일 속초시

민의날과 병행, 실시되는 설악제개막식에서 金昇來시장은 제4회 속초시민문화상 수상자 5명에게 상패와 부상1백만원씩 수여했다. 개회식이 끝난후 속초·중앙국교생들의 매스게임, 대포국교생들의 농악시연,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북청사자놀이와 각종 농악대 경연등 공개행사에 이어 문화예술행사 4종목과 민속체육경기 11개종목이 시내 각행사장에서 일제히 열렸었다. 특히 이번 설악제에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등산행사를 보강, 2일 낮 12시 권금성에서 속초에서는 처음으로 7선녀에 의해 태양열로 채화된 성화가 설악동 설악제 임원에 의해 봉송하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갈채를 보내 더욱 행사의 열기를 높였다. 또 전국 산악회에서 참석한 알피니스트들과 이고장 산악동호인들이 참여한 등반

대회는 단풍물결속에서 열어 설악제의 비중을 내외에 과시하게 됐다. 등반대회의 꽃인 산악왕을 선발해 축제무드를 절정에 달하게 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꽃꽂이전, 분재전시회, 주부가요열창, 연극공연등이 있었고 민속행사로 줄다리기, 그네타기, 널뛰기, 민속축구, 궁도대회등이 열렸고 체육행사로는 배구, 족구, 육상, 노인회의 게이트볼 시범경기가 열렸다. 설악제의 뜻은 단풍으로 곱게 물든 국립공원 설악산을 내외에 과시하여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해 속초시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데 있는데 이행사를 통해서 바다와 산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고 풍년과 풍어의 기쁨

을 안겨주면서 전통민속을 발굴, 뿌리있는 시민상을 정립하여 시민화합에 이바지하는것이 큰 목적이라할 수 있겠다. 이번 제27회 설악제에서 시민들이 요망하는 설악제의 참뜻은 만족시키지 못했어도 근사치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8회 설악제는 27회 개최의 경험을 살려 차원높게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설악제는 특정기관,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축제행사이므로 앞으로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판결이 날 것이므로 동참의식이 제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설악제 가장행렬

嶺北地域 經濟活性化 심포지엄

- 주최: 대한상의·東草상공회의소
- 주관: 東草지역 개발연구소
- 일시: 1992. 9. 25
- 장소: 東草관광호텔 회의실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고장주민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소망이 그 어느때보다 간절하다. 우리들의 꿈이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미래의 땅으로 각광받을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제운영의 기교에 따라 실현시기가 앞당길 수 있으므로 이문제를 신중히 연구 검토할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이 발간하는 東草文化 제8호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난 9월25일 속초관광호텔에서 속초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속초지역 개발연구소(이사장·최무일)주관으로 영북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이 열렸었다. 주제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남북통일을 대비, 전진기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속초시가 북방항로의 요충이 되어야하고 그 경제적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국제화의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관광개발사업, 수산업의 협력화문제, 레저산업의 연계,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가공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사업 형태의 준비작업이 착실히 진행한다면 東草시의 미래는 확실히 밝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다. 현재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는 인내심이 기대된다.

【編輯者註】

嶺北地域 경제현황과 發展方向

權 春 植 教 수 〈관동대·경제학과〉

금강산연계 대단위관광단지 조성을 수산업등 觀光보완產業 育成 절실

속초경제권은 중간재 투입 분야에서 수산가공 인쇄 출판 공공행정이 상위권에 속하고 농산물 전력 수도 교육연구부문이 하위권에 속한다. 총생산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업이며 취업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음식, 숙박업이다. 산업구조에서 1차산업은 비효율적인데다 노동 집약적 성격이고 수산가공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은 자본집약적이어서 고용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3차산업은 생산액기준 67.29%중 관광산업 29.63%, 관광관련산업 40.25%이며 고용자기준 70.37%중 음식·숙박업의 고용자수 기준은 18.77%이나 생산액은 5.36%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특화산업으로 수산물가공 음식 숙박인쇄 출판(영동지역 중심)전력 수도(관광시설 관련) 운수보관(모노레일등) 도·소매업(관광서비스)순위로 나타나 전분야가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초경제권의 활성화

방안으로 설악산~금강산을 연계, 개발에 대비한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이다. 북한은 80년대들어 금강산 원산 묘향산 개성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개발에는 원산~고성구간 정기 유람선을 운행하기 시작했고 향후 4천실규모의 금강산호텔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 금강산 개발에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합작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간 5억달러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개발의 구체적 작업은 남·북한 도로 철도망구축 비행장신설 호텔 등 종합 위락시설개발, 동해안지역 관광개발등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원산~금강산, 강릉~설악산을 하나의 대단위 관광권으로 개발할 것을 예상할때 동서고속전철 동해안 고속도로 경원선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어장을 감안할때 이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의 지원 육성이 절실히 한다. 수산업지원은 북한의 경제특구 인접지역이라는 점과 관광업과의 보완산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무역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國土開發과 江原圈개발方向

楊 枝 靑 教 수 〈국토개발연구원&·경제학〉

東草圈을 국민여가地帶 핵심으로 育成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2.7%가 집중돼 있어 교통, 주택난, 공해, 범죄가 증가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돼 지역격차를 유발시켰다. 지방자치 실시와 고속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방의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도권 집중압력이 쉽

게 감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제3차 국토개발은 수도권 집중에 의한 소극적 균형개발 방식에서 지방개발 중심의 적극적 방식으로 지방도시와 농·어촌 및 촌락지역을 특성에 맞게 육성한다. 특히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에 중점을 두고 접경지역에 남북교류 공간 조성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교류망의 복원·개발 및 수자원 관광자원등의 공동개발 기반을 구축한다. 강원권 개발은 국제적 흐름인 국제화와 남북통일을 전제, 북방국제교류에 대비한 동해안 전진기지의 구축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전, 개발하여 국민관광 휴양공간의 조성등을 강원권개발과 관련 중요 핵심목표로 정할 수 있다.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 동해안 산업기지 개발 계획을 촉진하고 최대 관광 수요원인 수도권으로부터의 시간적 거리단축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및 영동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속초권의 개발방향

은 국민 여가지대의 핵심 관광도시(거점 도시 기능)로 육성한다. 강릉과 연결을 강화하는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 정비하고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과 북방 전진기지를 조성한다. 설악관광권의 중심 도시화에 모든 계획을 집약시켜 항만확충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서울~속초노선 정비와 노선의 다각화를 추진하되 국제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공항건설이 중요하다. 투자 우선순위도 국제화 측면에서의 공항투자와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의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강릉~속초간 고속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북방교역 중대와 두만강 3각지대(소련, 북한, 중국)개발의 실현으로 동해안에 북방교역 전진기지가 구축될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동해안 개발의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雪嶽圈地域의 觀光活性化方案

柳 善 茂 教 수 (동우전문대·관광과)

관광이 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해도 그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일부 숙박업자나 관광기념물 업자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은 피해자 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공업발전과 비교할 때 자연파괴나 오염도가 적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증대 유발률도 높고 동시에 투자나 관광소비가 지역경제에 주는 파급효과도 크다. 이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관광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광수요의 변화에 따라 스포츠기능 각종 현안해결 참가기능 휴양기능 등을 투입하여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즉 단조로움보다 여러 시설을 복합해서 유연성을 만들고 관광지 전체의 환경과 그 지역의 생활 문화까지 포함해서 지역 전체가 관광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경향이다. 관광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 종업원의 서비스 정신뿐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가 안내원이 돼야 하고 관광정보를 풍부히 지니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 관광산업 운영 체계에서 관광행정 그 중

대성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광산업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획적 협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주민소득이 높아진다. 설악산 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의 보완과 금강산~설악산을 연계 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고 지방의 회가 주민합의 조달 모체로서 지방조례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항공면의 확충과 강릉~속초간 4차선 직선화 미시령도로의 개선이 시급하고 기존관광지와 신규관광지에 대한 재편이 요구된다. 오징어, 에델바이스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거나 어촌 박물관 등 매력적인 관광시설 만들기도 지역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특별행사 개최 주민들의 대관광객 서비스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도 개성 있는 요리 토산품개발, 관광 이미지 제고와 홍보강화는 물론 비수기에 대한 상품개발과 할인 요금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음바위의 전설

菊山 李 建 錫 〈편집주간〉

1984년 「속초문화」창간호를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할 때 「속초수복의 역사적 의의」를 기고한 것이 인연이 되어 단골 필진에 속하게 되었다. 그후 기고를 망설였으나 숨겨진 전설과 옛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후진들에게 전할 의무감을 느껴 다시 쓰게 된 점을 이해있기를 바란다. 수음바위 전설은 필자가 국민학교 6학년시절 사촌 동생 건정군(청년시절 작고)과 따뜻한 봄날 도문동(중도문리)에서 도보로 신흥사와 계조암을 소풍간 일이 있었다. 그날 신흥사를 구경하고 5리허에 떨어져 있는 계조암에 당도하니 수도증인 젊은 스님이 반기는 것이다. 그 당시는 관광객도 없고 한적한 산사로 정적이 감돌았다. 어린소년이지만 오랫만에 래방객을 맞은 젊은 스님은 넓적한 너래반석위에 앉아 수음바위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두 소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고히 간직한 전설을 이야기해주는 소박한 인심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리운 시절이었다. 지금 계조암 암자들 문앞 마당에 박힌 큰바위가 있고 그 앞엔 넓은 너래반석위에 흔들바위가 놓여 있는데 흔들바위쪽에서 암자쪽을 향하여 바라보면 큰바위가 펼쳐 있는데 그바위사이의 흠에 꼭 여인의 나상이 있는데 그모습이 예술작품과 같은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누구나 처음보면 모두 감탄하는 여인의 나상은 너무나 신기하게 인간이 조각한 작품 같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수음바위다. 그 여성의 생식기부문에서 샘물이 조금씩 솟아 나오는데 그 샘물을 계속해서 마신 이곳 스님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장사가 되어 출사하였다 한다. 그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샘물의 용출량을 늘리려면 지금의 흔들바위와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흔들바위가 있었는데 이 두개의 흔들바위를 수음바위쪽을 향하여 밀고 당기고 흔들어 대면 샘물이 조금씩 더 나왔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점점 유명해졌다. 세상에 알려진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새명 소로 군림한 것은 틀리없는 사실이었다. 이무렵 강원도관찰사가 새로부임해 각고을을 순시하다

가 이곳 영동지방에 당도하였다. 관찰사가 민심 수렴(요즘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수음바위의 오묘하고 신기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순시에 나선 관찰사는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배척, 탄압하던 유학자였던 것이다. 이 샘물을 마시고 많은 스님들이 장사가 되었다는 말에 분개하고 철저히 불교를 탄압할 목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사실을 확인하자 이지방 백성들을 총동원하여 두개의 흔들바위 중 하나의 흔들바위를 계곡 쪽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래도 불교에 대한 탄압심리가 풀리지 않아 이 고장의 명산 대찰마다 금칠을 한 사찰건물에 관솔불로 그을리게 하여 검정칠을 해놓았다. 사찰건물에서 금빛을 볼 수 없게 해놓았다. 그후부터는 수음바위에서 솟아나오는 샘물도 나오지 않고 말라버려 다시는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지금도 흔들바위가 있는 너래반석밑 후미진 곳에 당시 백성들을 동원시켜 강제로 내려 굴린 옛날의 흔들바위가 존재하고 있어 그전설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같이 불교탄압시책을 시행한 관찰사는 남행하면서 계속 같은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울진에서 순시하고 있었다. 관찰사는 매일 주연과 시홍에 도취되어 시조를 읊으면서 협준한 벼랑길을 걷고 있었다. 당시 행차에는 필목을 휴대해 가다가 산천이 수려한 곳에서는 시경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행차길에 나서다가 협한 오솔길에 뻗어있는 칙줄과 땅땡이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절벽아래로 추락, 이순간 입에 물고 있던 큰붓대가 관찰사의 목에 박혀 횡사하는 비운을 맛보았다고 한다. 막강한 직권을 남용하여 불교를 탄압하던 강원도 관찰사는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다는 전설을 들려주던 젊은 스님은 이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들고 있던 목탁을 두드리며 「나마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몇번 되뇌이며 이야기를 맺었다. 필자가 50여년전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를 더듬다보니 미진한 점 등이 있으나 이고장 전설을 벌굴하는데 이마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漢 詩

梅谷 吳 潤 煥
제공 華庭 李 時 行

이 고장이 놓은 한학자 梅谷 吳潤煥 선생(1872 ~1948)은 上道門리에서 출생, 유년시절부터 율곡선생을 숭배하면서 한학을 전수, 한학의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나 기울어지는 국운을 염려하여 부강한 조국건설에만 뜻을 두고 관계 진출을 사양, 평생 후진양성에 전념하신 선각자이다. 梅谷 선생은 향리인 상도문리에 鶴舞亭(속칭 육모정)을 計建하고 설악산의 명승지를 골고루 답사하면서 많은 자연예찬 한시를 남겼고 그 시문은 「谷谷遺稿集」에 수록되어 있다. 梅谷 선생의 한시중에서 華庭 李時行 선생께서 몇 편을 주석을 달아 소개한 것을 게재했다.

亭鶴翩翩舞下天

主人泉石得其先

亭鶴은 훨훨 날아 춤추며 하늘에서 내리는데 주인(梅谷을 지칭)은 泉石(물과 돌)을 그 先代로 부터 얻었도다.

魚吹細浪流觴日

燕賀新~~告落年

물고기들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데 손님들은 詩酒로 이날을 보내며, 제비는 새로운 처마위에서 이亭子의 落成을 告하는데 이해를 축하하는듯 하네.

九曲風烟詩景活

雙川水月道心傳

九曲의 風烟(멀리 보이는 공중에 서린 흐릿한 기운)으로 아름다운 詩景은 활기가 넘치는데 쌍천에 水月은 은은히 비쳐 道心을 자아내에 전하게 하노라.

武夷境界今何似

一望桑麻眼 然

武夷(중국의 지명)의 경계가 지금 어디와 흡사한가, 이때 한번 시골풍경(桑麻=田野)을 바라보니 눈에 아름답게 펼쳐 있노라.

永郎湖 有感 (영랑호 유감)

魚病水中怨釣士(어병수중원조사)

鳥啼林間蘿露歌(조제임간간해로가)

冀道世間善惡論(막도세간선악논)

到處非理污染史(도처비리오염사)

병든고기 물속에서 낚시꾼을 원망하고 새소리
숲속에서 해로가처럼 들린다
말하지 마라 이 세상을 좋으니 나쁘니 하고 도
처에 비리와 오염의 역사 뿐이다.

거울같이 맑든 영랑호에는 오염되어 물고기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물까지 쳐 가두어 놓고 낚시를 하고 있으니 괴로운 고기들은 낚시꾼을 원망하는것 같고 숲속에서 우는 새소리는 죽어가는 물고기가 불상해서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갈때 부르는 노래(蘿露歌)처럼 슬프기만하다. 그래도 사람들은 “좋으니 나쁘니”하고 떠들어 댄다. 온세상이 다썩어가는데 말해 무엇하나 한스럽기만 하다는 뜻이다.

束草文化賞

1992年度 受賞者 프로필



◇문화예술부문

▲金光秀씨(70·속초시 교동 로얄APT B동489호)

81년 속초지역에 최초로 미숙학원을 개설하여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했고 87년 미술협회 속초시지부장에 피선되어 지역 미술인들의 권익옹호와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는데 공헌한 바 있다. 90년 예총 속초지부장에 취임하여 이고장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클뿐만 아니라 「청소년예술상」을 신설, 청소년 정서 함양에 심열을 쏟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위상정립과 향토예술의 진흥에 기여한 업적을 남겼다.

◇지역개발부문

▲崔九鉉씨(72·속초시 중앙동 474)

금강산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6.25동란

때 남하, 속초에 정착하면서 설악산이 금강산에 못지않은 절경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57년 설악산 개발에 처음 참여, 오늘의 1급 관광휴양지로 조성하는 업적을 남겼다. 설악산의 주요명소의 명칭을 명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사진첩을 제작, 교통부를 비롯, 전국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한바 있다. 또 영국황실 아시아 학술학원등 외국관광객들을 최초로 유치하여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진입로 확장, 설악산관광 호텔 유치, 경영하는등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학술부문

▲張正龍씨(속초출신·강릉대 국문학과교수·문학박사·강릉시 초당동 정아APT 103동)

속초에서 출생 성장하여 88년 민속학으로 박

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강원도 지방의 민속문화 연구에 전념했고 특히 속초의 정통문화와 민속 연구에 남다른 정성을 쏟으면서 속초문화원부설 민속보존회 연구위원으로 참여, 속초시지 민속편을 집필했고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속초 민속의 발굴과 고증, 지도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설악제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설악제의 방향제시에 힘을 써왔다. 특히 10년간 연구한 「속초의 향토민속」을 출간하여 학술적으로 체계를 정립시킨 공로를 세웠다.

◇체육부문

▲金正文씨(62·대명기업 대표이사·속초시 청학동 10통3반)

속초시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10여년 재임하면서 연1천여만원의 체육성금을 지원하여 선수 육성은 물론 시민 체육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남다른 업적으로 이바지해 왔다. 제16회 강원도 민 체육대회에서부터 올해 열린 제26회 도민체전에 이르기까지 속초시 대표선수단 인솔 단장으로서 선수들이 지역명예를 드높이도록 체육 성금지원은 물론 대회기간동안 현지에서 머물면서 선수들을 격려해 왔으며 그결과 91년 9 위에서 금년도 종합5위로 부상하였고 일부종목 선수들에게 격려금 지원을 통한 사기양양으로 사이클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특히 매

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특별격려금지원과 아울러 이번 26회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속초상고의 홍경화선수(육상)와 동교 염종엽선수(사이클)에게는 졸업할때까지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장학증서를 전달한바 있다.

◇사회봉사부문

▲金澤松씨(67·속초약국경영·속초시 496) 중앙동

84년 속초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5천만원을 건립기금으로 내놓아 이지역 5천여명의 노인복지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독지가이다. 82년 이후 불우환자 및 영세민들에게 무상투약, 비상 약품비치등 의료시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불우환자 1백35명은 금씨가 무상투약한 약품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사회활동을 벌여 밝은사회건설에 큰몫으로 이바지했다. 금씨 희사금으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부는 수복후 처음으로 84년 12월11일 노인회관을 갖게되어 노인복지사업의 효시적인 인물로 치하받고 있다. 또 불우아동들과 자매결연으로 지금 1백24회결쳐 사랑의 지원을 계속했고 관내 경노잔치엔 한번도 빠지는일 없이 참여하여 경노효친사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외도 교통질서 계도 및 자연보호 캠페인에도 솔선 수범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漁民위령탑 세워주셔오

『명절때나 제삿날 술잔을 부어놀 무덤도 없고 유족과 함께 북념조차 드릴 위령탑하나 없다니 말이 됩니까.』

망망대해에 떠도는 동해안 어부들의 영혼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호소하는 속초항 어민들과 유족들의 목멘 호소이다. 지난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동해서 조업중 사망자는 5백33명에 이르며 특히 76년 10월29일~11월5일까지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오징어잡이 하던 어부들이 기상예보도 통보받지 못한 가운데 강풍을 동반한 격랑을 맞아 64명이 익사하고 3백44명이 실종(사망)되는 대참사를 입어 온시민들이 비통속에 잠긴때도 있었다. 이런 참변이 있은지 4반세기가 흘러도 동해안(속초포함)에는 제례를 올릴 위령탑조차 없어 유족과 친지들은 매년 텅빈 가슴만 여미며 망자의 넋을 마음속에서만 안쓰럽게 떠올릴 뿐이다. 부산에는 14년전인 78년 위령탑을 건립해 바다에서 숨진어부 6천2백63명의 위폐를 모셔놓고 있다. 동해안에서도 선원노조와 유족들에 의해 80년 초 위령탑 건립이 추진돼 왔으나 발벗고 나서는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없어 흐지부지되고 추진 활동이 전무 상태다. 선원 申又二씨(52·속초시교동16)는 『먼저간 동료선원들의 넋을 달래줄 술한잔 올려 보지도 못하고 찾아갈 눈물 무덤도 없다』면서 이제라도 관계기관과 사회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동료선원들과 유족들에게 그 원혼을 달래줄 위령탑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江原日報 東草주재

권 병 창 기자

束草邑長 朴祥喜 頌德碑 建立推進委員회4의 집행위원



속초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주민복지 행정의 선각자 故朴祥喜읍장(1890~1948)의 송덕비가 속초항 개항60주년을 맞아 송덕비 건립추진회(위원장·金鍾錄)가 92년 8월 15일 설악산 입구 소공원(대포동)에서 제막됐다. 故朴祥喜읍장의 공적은 본원발행 束草文化 85년 제2호 82페이지에 수록돼 있으나 참조하기를 바란다. 제막식에 참석한 송덕비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들이 기념촬영한 사진이다.

내고장발전 선도역 다짐 국립공원 제척에 앞장

시도시계획행정망도지적
속초시번영회



속초시번영회(회장·백영일) 92년도고문·자문·이사회의가 10월22일 속초관광호텔에서 열려 국립공원관리현안문제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동우전문대 류선무교수의 특강 「설악권지역의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한 제시」에 이어 ①국립공원관리현안문제(발표자·장동희시의회부의장) ②고속전철(백영일회장) ③대학설립현황(윤중국도의회의원) ④국립공원제책요구(〃) ⑤향토기업육성방안(김형도대표이사) ⑥항공및 도시교통문제(백영일회장) ⑦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류교수는 특강에서 설악권이 명실공히 국제관광지 천연자원보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보고·느끼고·쉬고(위락)·배우고·생산하는(토산품등)관광」으로 지향해야하는 소위 삼텍타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립공원관리현안문제에서는 시의회가 지리산등 전국의 타국립공원의 현지조사(국립공원운영관리답사)를 토대로 한 보고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해야 자연보존과 수익증대가 됨이라고 결론지었다.

4년제대학(동우공과대학)의 인근 군으로의 자리바꿈을 한다는 설은 설립자측이 협부지(인가된)가 협소하고(종합대학목표) 실험용수가 부족하는등 여건이 미흡하여 인근 군에 용지를 물색한 사실이 있고 또 전재옥학장이 속초시민 대표 몇사람에게 이를 양해사항으로 받아줄 것을 표명한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날 회의에서 윤중국의원은 현재로 본대학은 인가조건대로 현지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후에 확장이 필요할때 실험실등 부대시설을 타군지역에 세운다는 미래의 계획발상이라고 정재칠국회의원의 언질을 인용 보고했다.

국립공원제적요구건은 강원도가 이미 내무부에 건의했으며, 도의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국립공원제적관철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맹활약중임을 윤중국의원이 보고했다.

윤의원은 보고서에서 속초시의 행정구역면적 총 104km²(54%)나 차지해 도시 발전에 지대한 저해요인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주민의 생활필요구역인 척산지구(도문·노학동) 11.23km²만이라도 해제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시당국이 꾸며 놓은 「속초도시 기본계획」도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토론회에서의 지적이었다.

즉 행정구역면적에서 국립공원이 54% 점유한데다가 자연녹지점령구역을 무려 21.23km²나 지정해 놓아 실제 도시계획구역면적은 26.97km²이고 이중에도 시가지구역면적은 6km²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자연녹지점령구역중 상당한 구역을 동시에 제적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시립공원은 일부가 건설부에 의해 이미 20년전에 기본계획에서 제적된 것인데 시당국은 제적은커녕 개발계획조차 수립치 않고 방치한 사안은 도시기본계획이 「무계획의 표본행정」이란 헐난한 성토였다.

향토기업육성방안에서는 김형동대표이사의 보고에서 설악산모노레일사업이 그간 시민주주 모집에 이어 싱가포루등 동남아의 현지시설시찰, 정부가 인가의 긍정적인 반응과 총 2백 50억원(추정가)의 투자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설명되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이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대표들은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산과 바다·호수·온천을 함께 갖고 있는 이 천연보고를 우리의 손으로 가꾸고 키워 잘 사는 고장을 만드는데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친 것을 결의했다.

【최용문 본원부원장】

警察 無窮花동산

-警察 戰績碑와 交通教育長-



○ 8.15解放의 感激이 채 가기도 전에 38線을境界로 國土는 南北으로 分斷되어 1950年 10月 收復되기까지 束草, 襄陽 대부분 地域이 共產治下 暴政앞에 시름하는 產苦를 겪어야 했다.

當時 이 地域 治安을 맡은 警察은 北傀의 掠奪蠻行으로부터 自由大韓의 住民을 保護해야 했고 民族相殘의 悲劇인 6.25動亂中에는 自由守護를 為해 肉身을 던졌으며 休戰後에도 우리나라 이땅의 繁榮과 安定을 摳亂하려는 저들의 만행앞에 당당히 맞서 응징하여 결코 建國, 救國, 護國 警察로서의 부끄럼없는 발자취를 남겼다.

○ 그러나 殉職警察官의 靈魂을 달래고 勇戰과

犧牲으로 이룩한 戰績을 남길 이렇다 할 碑文조차 없어 안타깝게만 여겨지다 1991年 11月 江原道地方警察廳 特殊施策으로 警察戰跡地 發掘事業이 發議(當時 鄭鎮奎 地方廳長)되면서 束草警察署(當時 金洪權 署長)에서는 6.25參戰警察官과 遺族 그리고 地域元老人事들을 對象으로 戰跡 發掘에着手한 結果

○ 分斷되어 60年代 武裝共匪 浸透事件에 이르기까지 25個所의 크고 작은 戰史를 통하여 哀痛하게도 32名의 警察官이 戰死 殉職하였으며, 북괴군 48명 섬멸, 생포 1명, 무장공비 사살 41명, 생포 1명의 전과를 올렸음이 밝혀졌다.

○ 곧이어 束草·襄陽地域 뜻있는 人事 스물한



분이 自請하여 警察戰跡碑 建立推進 委員會
(委員長 金麗洙)를 構成, 戰跡碑 造成事業을
推進하여 9,800만원의 誠金으로

1992年 2月 着工, 同年 5月31日 完工, 名實共
히 束草·襄陽地域의 民, 官, 警의 정성어린
뜻으로 警察戰跡碑를 세우게 되었으며

○ 地域 幼稚園과 初, 中, 高等學校 學生은 勿
論, 이 地域을 찾는 觀光客에게 산 交通教育
長으로 活用할 어린이 交通教育長과 觀光案
內圖등 便宜施設을 고루 갖춘 警察無窮花동
산을 江原道 襄陽郡 縣北面 잔교리 4-4번지
1,500평의 부지에 조성하였다.

○ 높이 13m의 경찰전적비는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는 형태로 建國, 救
國, 護國警察을 알리는 외침과 祖國을 위해
장열히 戰死, 殉職하신 영령들의 넋을 달래
고 위로하며 統一을 念願하는 간절한 소망이며
외형전신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반도 지
도모양이며 層層이 파도무늬를 한 형태는 이
곳의 치열했던 공방전투에서 포탄과 탄환의

스치고 지나간 흔적을 나타냈고

독수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
찰의 강인한 상징이며 우리조국의 상징인 허
리부분의 무궁화는 전사, 순직한 넋을 이어
받아 영원히 후세에 기리자는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

○ 다음은 국토분단에서 6.25사변 휴전이후까지
경찰의 활동상을 요약하면

• 분단이후(38경찰경비대)

국토분단과 함께 이곳 양양지역은 제2판구
경찰청 강원도 산하에 제12구 경찰서가
38선 경비담당경찰서로 창설되어 경비임무
를 수행하면서 살상과 약탈 만행을 일삼는
북괴군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불법남침 도발행위를 분쇄 하였다.

• 6.25당시

38선 경비임무를 수행중이던 경찰은 기습
남침을 감행한 북괴군에 대항하여 최후까
지 결사의 각오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후퇴하였다가 국군과 함께 진격하여 북괴

군을 격퇴시키고 3개월만에 이 지역을 수복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후방지역에 대한 치안확보에 주력함과 아울러 적 퇴로 차단 및 잔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 휴전이후에는

3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끝에 동해안지역의 휴전선은 38선에서 70km북상하여 조인되었다.

휴전이후 계속적으로 침투하던 무장공비소탕 및 폭력을 앞세운 북괴의 대남공작에 대응하는 대공활동을 전개하였다.

○ 후세에 길이 남길 비문을 소개하면

8.15 광복후 조국강토의 허리를 잘라놓은 38선인 이곳 동해안은

공산군의 도발로부터 경찰이 유일하게 조국을 수호했던 곳이다.

3.1독립만세운동이 제일 치열했던 역사의 고장 이지역은

공산군의 적화통일 야욕으로 수많은 기습을 받으면서

경찰전우들은 고귀한 생명을 밟쳐 아름다운 산하 속초, 양양지역을 지켜왔다.

젊음을 끌피우지 못하고 한을 삼키며 산화한

지 어언 40여년

여기에 그들의 전적비를 세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높이 기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영원히 전하고자 한다.

1946. 10. 17부터 1952. 3.19에 이르기까지 서면 서림리, 현북면 대치리, 장리, 잔교리, 면옥치리

현남면 남애3리 등지의 전투에서 희생된 경위 박만수외 3명, 경사 장석환외 6명, 순경 전운갑외 20명등 32명을 비롯한 지금도 이름 모르는 경찰전우들의 영령앞에

우리모두 옷깃을 여미고 주검으로 지킨 피맺힌 이땅위에서 다시 한번 지난날을 되새겨 보자

겨레의 소원이었던 민족통일을 위하여 가신 영령이시여 못다한 일 후세에 맡기시고 고이 잠드소서

無窮花獎學會

○ 91.11.21 東草警察署(金洪權 署長)는 奬學會를創立하는 뜻깊은 行事を 가졌다. 이날 出



무궁화 장학회 현판식

帆한 東草警察署 無窮花獎學會는 特殊한 地域與件과 아울러 薄俸의 어려운 生活與件임에도 不拘하고 地域治安維持에 獻身하고 있는 警察官들의 士氣를 振作시키기 위해 東草, 襄陽管內 56名의 地域人事들이 自進하여 奨學基金을 出捐하여 創立發起人 모임을 갖고 같은해 11.7 江原道 教育委員會로부터 財團法人 建立認可를 받아 奖學財團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된 것이다.

○ 現況

- 名稱: 財團法人 東草警察署 無窮花 奖學會
- 代表者: 理事長 林 昌 基(東寶商社代表)
- 總資產: 6,365萬 원
- 理事會構成: 理事 11명(理事長은 地域人事로 委嘱)
- 監查 2명(地域人事 1名, 警察幹部 1名)
- 奖學金 支給計劃: 92.3.28. 東草警察署 在職

警察官 子女 30名에게 300萬만 원의 奖學金을 이미 支給하였고 93年度 以後부터는 收益金增加에 따라 擴大 調整豫定

○ 現在의 無窮花 奖學會는 그 規模나 資產面에서 極히 微微하여 걸음마段階에 不過하지만 地域住民들이 自進하여 警察의 處遇與件을 理解하고 愛情으로 감싸주면서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 큰 意味를 갖게 하고 있으며 더우기 民警親和와 警察福祉增進에 標本이 되고 있어 警察内外部로부터 부러움마저 사고 있다. 이제 우리 東草警察은 이를 契機로 보람과 爰持를 갖고 地域의 法秩序 確立에 邁進하여 明朗하고 快適한 福祉社會建設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地域住民들의 精誠이 헛되지 않도록 內實있는 奖學會로 키워질 것으로 期待하는바 크다.



경찰무궁화동산 전경



경찰무궁화동산에 세운 경찰 전적비

제34회 道文化賞 束草출신 受賞者 공적



◇ 전통예술 부문

▲ 張正龍(35·束草출신·강릉대 국문학과 조교수)

향토민속예술 지도 및 고증 「속초의 향토민속」「관노 가면회 연구」「강릉의 민속문화」「삼척의 마을신앙」등 저서와 속초시지 편찬위원, 속초향토 민속 보존위원회장을 역임, 그 공로로 92속초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이외도 많은 전통 문화예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전통 문화 발전에 이바지 했다.



◇ 문학부문

▲ 朴明子(52·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73년 현대문학지 추천으로 문단에 등단, 시집 「땅 끝에서 부르는 소리」출판. 90년 속초시 문화상을 수상, 속초문화원 발간 「속초문화」등 지역 문단에 다수의 시를 발표. 이고장 문단에서 관심과 촉망을 받고 있는 현역 시인이다.

영북(嶺北) 지역의 석탑(石塔)

양양출생(1955년)

속초여자고등학교교국사교사

90년 제2회 속초 시민 문화상(학술부문)

주상훈(朱尙勳)

(속초고교 교사·향토사학자)

목 차

1. 머리글
2. 탑(塔)의 의의(意義)와 양식 변천
3.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
4. 진전사지 3층석탑(陳田寺址 三層石塔)
5. 선림원지 3층석탑(禪林院址 三層石塔)
6. 양양 오색리 3층석탑(襄陽 五色里 三層石塔)
7. 낙산사 7층석탑(洛山寺 七層石塔)
8. 기타 석탑(石塔)

1. 머리글

속초(束草)의 문화재(文化財)로는, 우선 보물(寶物) 제 443호로 지정되어 있는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탑(塔)이 속초(束草)의 유형 문화재(有形 文化財)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 지정 문화재(國家 指定 文化財)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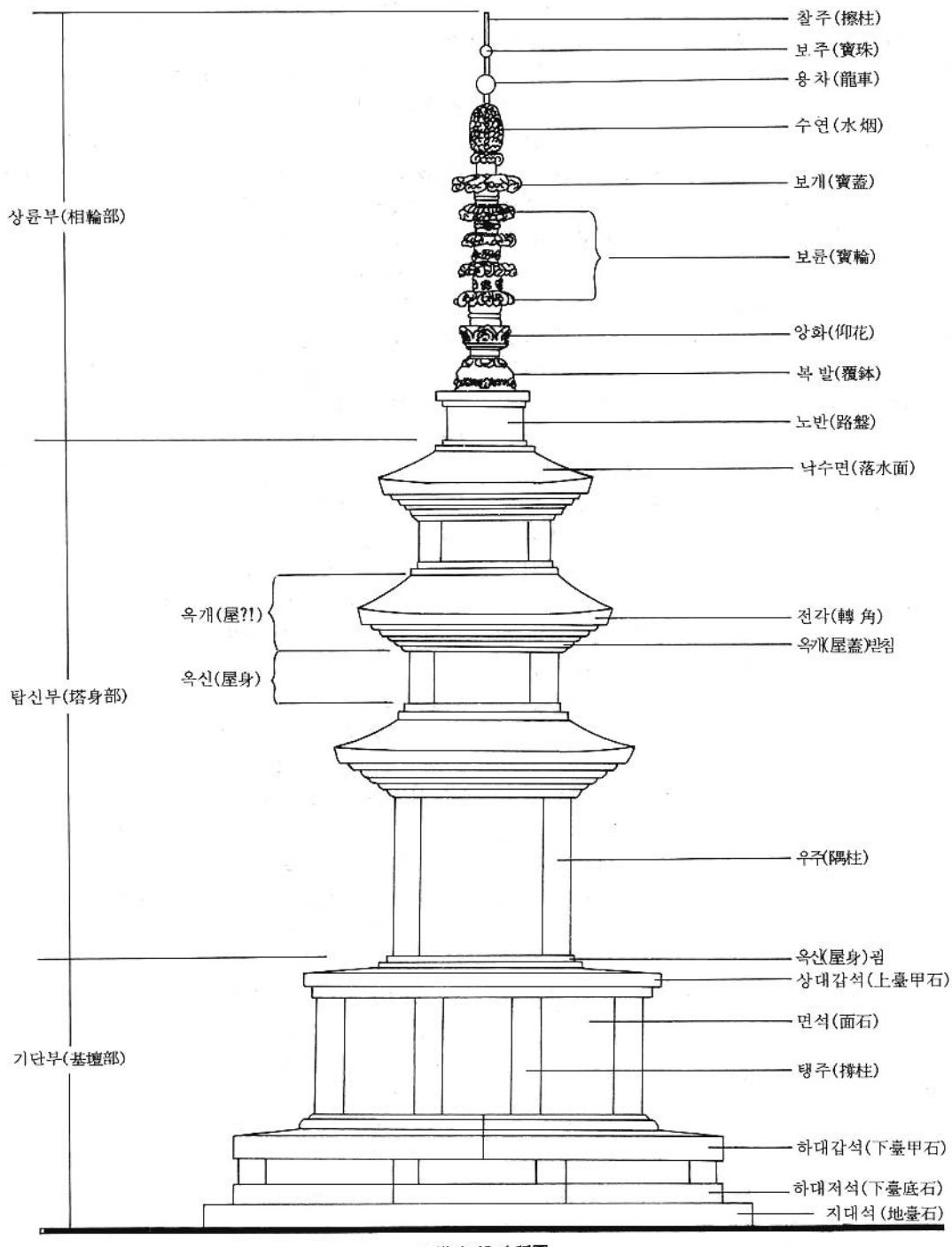
문화재 보호법(文化財 保護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文化財)는 종류에 따라 유형 문화재(有形 文化財), 무형 문화재(無形 文化財), 기념물(紀念物), 민속 자료(民俗 資料)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흔히 문화재(文化財)라고 하면 유형 문화재(有形 文化財)를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재(文化財) 중 우수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법(文化財 保護法) 제 2조 제 2항에는 지정 문화재(指定 文化財)의 종류를 국가 지정 문화재(國家 指定 文化財), 시·도 지정 문화재(市·道 指定 文化財), 문화재 자료(文化財 資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속하여, 문화재 보호법(文化財 保護法)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國家 指定 文化財)의 지정에 대하여, 유형 문화재(有形 文化財)는 국보(國寶), 보물(寶物)로, 무형 문화재(無形 文化財)는

중요 무형 문화재(重要 無形 文化財)로, 기념물(記念物)은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 기념물(天然 記念物)로, 민속 자료(民俗 資料)는 중요 민속 자료(重要 民俗 資料)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속초(束草)의 지정 문화재(指定 文化財)는 모두 10점이 있다. 그중, 설악산 천연 보호 구역(雪嶽山 天然 保護 區域)과 설악동(雪嶽洞)의 소나무가 천연 기념물(天然 記念物), 속초 조양동 선사 유적(束草 朝陽洞 先史 遺蹟)이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 유형 문화재(指定 有形 文化財)는 7점이 된다. 그중, 국가 지정 문화재(國家 指定 文化財)는 보물(寶物) 제 443호인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뿐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國家 指定 文化財) 이외에, 강원도 지정 유형 문화재(江原道 指定 有形 文化財)로 신흥사 극락보존(新興寺 極樂寶殿)이 강원도 유형 문화재(江原道 有形 文化財) 제 14호, 신흥사 경판(新興寺 經板)이 제 15호, 속초 도문동 김종우 가옥(束草 道門洞 金宗友 家屋)이 제 85호, 신흥사 보제루(新興寺 普濟樓)가 제 104호로 지정되어 있고, 강원도 문화재 자료(江原道 文化財 資料)로 신흥사(新興寺)가 강원도 문화재자료(江原道 文化財 資料) 제 7호, 속초 도문동 김근수 가옥(束草 道門洞 金根洙 家屋)이 제 6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초(束草)의 문화재(文化財), 유형 문화재(有形 文化財) 중에는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양양(襄陽)에는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과 같은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의 석탑(石塔)으로 진전사지 3층석탑(陳田寺址 三層石塔)이 국보(國

영북(嶺北)지역의 석탑(石塔)



石塔 細部 名稱圖

영북(嶺北)지역의 석탑(石塔)

寶) 제 122호, 선림원지 3층석탑(禪林院址 三層石塔)이 보물(寶物) 제 444호, 양양 오색리 3층 석탑(襄陽 五色里 三層石塔)이 보물(寶物) 제 497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에 우리 고장에서는 불교(佛教)가 크게 발달하였고, 석탑(石塔)도 많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양(襄陽)에는 또한 보물(寶物) 제 499호로 지정된, 조선 초기(朝鮮初期)의 낙산사 7층석탑(洛山寺 七層石塔)이 있다.

그러므로, 영북(嶺北) 지역의 문화재(文化財) 중에서는 불교 문화재(佛教 文化財)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석탑(石塔)이 가장 대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현상은 비단(嶺北)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제 7호까지 나온 <속초 문화(東草 文化)>에서도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이 사진과 함께 간단히 소개되었을 뿐, 세부 양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 기록을 정리하여, 미숙하나마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근 양양(襄陽), 고성(高城) 지역의 석탑(石塔)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석탑(石塔)이외에도, 탑(塔)이 소재한 절의 사적(史蹟)이나 다른 유물(遺物)도 같이 고찰하여야만 탑(塔)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므로, 여기에서는 석탑(石塔)의 세부 양식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개의 석탑(石塔)에 대하여 고찰하기 전에,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탑(塔)의 의의(意義)와 양식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2. 탑(塔)의 의의(意義)와 양식 변천

불교(佛教)에서의 탑(塔)은 탑파(塔婆)의 준말이고, 탑파(塔婆)는 고대 인도어(印度語)인 산스크리트어(Sanskrit어, 梵語)의 스투파(stupa), 또는 팔리어(Pali語)의 thup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튜파(stupa)의 원 뜻은

“신골(身骨)을 담고, 토석(土石)을 쌓아 올린 불신골(佛身骨 眞身 舍利)을 봉안하는 묘(墓)”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탑(塔)이란 당초에는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사리(舍利)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로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그 형태도 현재 인도(印度)의 산치(Sanchi)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복발형(覆鉢形)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후, 인도(印度)에서 발생한 불교(佛教)는 중국(中國)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동시에 탑(塔)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삼국 시대(三國 時代) 탑(塔)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석탑(石塔) 3기(基)밖에 없다. 그러나, 탑(塔) 양식의 형성 과정으로 보아, 우리나라 초기의 탑(塔)은 목조탑(木造塔)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곧 중국(中國)에서 발생한 전탑(磚塔)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특유의 석탑(石塔)도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석탑(石塔)이 발생한 시기는, 삼국 시대(三國 時代) 말인 600년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佛教)가 전래된 지 약 200년이 지나, 그 사이에 익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석탑(石塔)을 건조하기에 이르렀다. 목재는 비바람과 화재에 약하고 제작에 노력이 많이 들어감으로, 이보다 영구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산출되는 석재를 사용하는 데 착안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백제(百濟)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益山 彌勒寺址 石塔)과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을 살펴보면, 백제탑(百濟塔)은 화강암만을 사용하여 목탑계(木塔系) 양식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존하는 경주(慶州)의 분황사 모전 석탑(芬皇寺 模填 石塔)으로 추정해 볼 때, 고신라(古新羅)의 탑(塔)은 안산암을 주재로 하고 화강암도 혼용하면서 전탑계(磚塔系) 양식을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모두 기본 평면을 정사각형으로 하여 다층(多層)을 이루었고, 석재를 사용한 사실은 일치한다.

신라(新羅)의 삼국 통일은 국토와 국민의 통

합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도 융합을 가져왔다. 석탑(石塔)에 있어서도, 동서 두 지역에서 따로 발생하였던 목탑계(木塔系)와 전탑계(埴塔系)의 석탑(石塔)이 하나로 집약, 정돈됨으로써 한국 석탑(韓國 石塔)으로서의 독창적인 새로운 양식을 냥게 되었다. 감은사지 3층석탑(感恩寺址 三層石塔), 고선사지 3층석탑(高仙寺址 三層石塔), 불국사 3층석탑(佛國寺 三層石塔 釋迦塔)등이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 전형적 석탑(石塔)의 대표적 걸작품이다.

통일 신라 말기(統一 新羅 末期)로 내려가면, 전형적인 석탑(石塔)에 비해 차차 규모가 축소되고 간략해지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한, 불국사 다보탑(佛國寺 多寶塔)이나 화엄사 4사자 3층석탑(華嚴寺 四獅子 三層石塔)과 같이 전연 다른 형태의 이형 석탑(異形 石塔)도 만들어 지고, 이곳의 진전사지 3층석탑(陳田寺址 三層石塔)이나 선림원지 3층석탑(禪林院址 三層石塔)과 같이 전형적 석탑(石塔)의 기본 양식을 갖추면서도 장식이 조각되는 탑(塔)도 나오게 된다.

고려 시대(高麗 時代)에 들어와서도, 불교(佛教)는 왕실과 국민의 두터운 믿음 속에서 왕성의 일로(一路)를 걸었고, 이에 따라 불교적인 조영(造營)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탑(塔) 또한 많이 건립되었다. 석탑(石塔)은 신라 시대(新羅 時代)의 전형적인 양식을 계승하였으나 세부적인 변화를 볼 수 있고, 형태면에 있어서도 저시대에 볼 수 없었던 6각 혹은 8각의 다각 석탑(多角 石塔)이 성행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전 시대의 작품을 모방한 석탑(石塔)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月精寺 八角 九層 石塔), 경천사 10층석탑(敬天寺 十層石塔)등이 고려 시대(考慮 時代)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조선 시대(朝鮮 時代)에 들어오면, 신라(新羅)이래 번성하였던 불교(佛教)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불교 미술(佛教 美術)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불교(佛教)

를 신봉한 세조(世祖)무렵에 우수한 탑(塔)이 몇 기(基) 조성되었는데, 현재 서울 파고다 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圓覺寺址 十層石塔), 양양 낙산사 7층석탑(襄陽 洛山寺 七層石塔)등이 그것이다.

3.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

속초시(束草市) 설악동(雪嶽洞) 뉴설악 관광호텔 앞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석탑(石塔)으로, 1966. 8. 25 보물(寶物) 제 443호로 지정된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의 전형적인 석탑(石塔)이다.

8매의 돌로 구성된 지대석(地帶石)은 거의 하단까지 지표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에는 높직한 팜대와 같이 4매의 장대석(長大石)으로 결구(結構)된 기대(基臺)를 마련하여 하층 기단(下層 基壇) 면석(面石)을 받치고 있다. 하층 기단(下層 基壇) 면석(面石)은 대소(大小) 8매의 장방형(長方形) 석재로 이루어졌는데, 각 면



<향성사지 3층석탑>

영북(嶺北)지역의 석탑(石塔)

마다 양쪽 우주(隅柱)와 중앙의 1 탱주(擣柱)가 정연(整然)히 각출(刻出)되어 있다. 그 위의 갑석(甲石)은 대소(大小) 5매의 판석(板石)으로 덮었는데, 그 상면은 현저하게 경사를 이루었고, 각기 네 귀퉁이는 합각(合角)이 뚜렸하며, 중앙에는 원호(圓弧)와 각형(角形)의 꼴을 각출(刻出)하여 상층 기단(上層 基壇) 면석(面石)을 받치고 있다.

상층 기단(上層 基壇) 면석(面石)은 8매의 판석(板石)으로 조립(組立)하였는데, 네 귀퉁이에는 양쪽 면에 우주(隅柱)가 각출(刻出)된 주형(主刑) 석재를 배치하고, 각 면 중앙부에는 탱주(擣柱) 2주(柱)가 모각(模刻)된 판석(板石)을 세워서 결구(結構)하였다. 그리고 갑석(甲石)은 4매의 판석(板石)은 4매의 판석(板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면에는 부연(副緣)이 마련되어 있고, 상면은 약간의 경사도 없이 평평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에 아무런 꼴대도 없이 그대로 탑신부(塔身部)가 세워져 있다.

탑신부(塔身部)의 각 층 옥신석(屋身石)과 옥개석(屋蓋石)은 모두 1매의 돌로 조성되었고, 각 옥신석(屋身石)의 양쪽에는 우주(隅柱)가 통식(痛式)으로 정연(整然)히 각출(刻出)되었다. 각 옥개석(屋蓋石) 하면에 낙수(落水) 홈 등의 시설이 없고, 받침만 5단씩이며, 중앙에는 각형(角形) 꼴 2단을 조출(彫出)하여 옥신(屋身) 꼴을 삼고, 그 위에 각 층의 옥신(屋身)을 받치고 있다. 낙수면(落水面)이 평박(平薄)하고, 네 귀퉁이의 합각(合角)도 뚜렸하나, 추녀부(部)에 이르러 반전(反轉)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각 전각(轉角)에도 반전(反轉)이 경미하므로 옥개석(屋蓋石)이 경쾌하지 못하며 오히려 둔중(鈍重)한 느낌마저 들고 있다. 그러나, 네 귀퉁이의 전각(轉角) 양면에 풍경(風磬)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있어, 당시 이 석탑(石塔)이 장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추녀부(部)가 직선으로 전각부(轉角部)까지 뻗치고 있음은 신라 시대(新羅 時代)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이 석탑(石塔)은 3층 옥개석

(屋蓋石)까지 남아 있고, 그 위에 노반석(露盤石)부터 상륜부(相輪部)는 전부 없어졌다. 각 옥개(屋蓋)의 전각부(轉角部)에 약간씩의 파손이 있고, 하층 기단(下層 基壇) 갑석(甲石)에도 그러한 정도이므로 비교적 완형(完形)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석탑(石塔)은 정부의 보수 복원 계획에 의하여, 1966. 12. 23 해체되었는데, 당시 공사감독관이었던 김주태(金周泰) 문화재(文化財) 전문위원(專門委員)의 보고 기록에 의하면, 제 3 층 옥신석(屋身石) 중앙에 사리공(舍利孔)으로 생각되는 장방형(長方形)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7\text{cm} \times 5.5\text{cm}$, 깊이 9cm) 그 위에 동판(銅板) 1장($12\text{cm} \times 9\text{cm}$)이 덮혀 있었으나, 내용물은 도난당하였는지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석탑(石塔)은 신라(新羅)양식으로 전체적으로는 규율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예외적인 양식과 조성(造成) 수법을 보이고 있으므로 꼭 주목되고 있다.

첫째, 상. 하 기단부(基壇部)에 있어 면석(面石)의 탱주(擣柱)가 상. 하층 정연(整然)한 순서가 아니다. 즉 상. 하 2주(柱)씩 같지 않으면, 하층이 2주(柱)이고 상층이 1주(柱)인데, 이 석탑(石塔)은 정반대로 하가 1주(柱)며 상이 2주(柱) 각출(刻出)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전혀 유례가 없는 예외적인 형태이며, 규율성(規律性)을 잃은 조탑(造塔)이므로 연대를 내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로, 하층 기단(下層 基壇) 갑석(甲石) 상면의 옥신(屋身) 꼴 구조가 예외적이다. 신라 시대(新羅 時代)의 석탑(石塔)은 모두 각형(角形) 2단의 꼴이나 혹은 호형(弧形)과 각형(角形) 꼴 각 1단씩을 조출(彫出)하여 옥신(屋身) 꼴을 삼고 있는데, 이 석탑(石塔)은 아무런 꼴이 없는 평평한 갑석면(甲石面)에 옥신(屋身)을 놓고 있다. 이러한 점도 특수한 형태이므로, 신라(新羅)양식의 통식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후대의 조성(造成)임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가지 점은 이 석탑(石塔)의 건립 연대

고찰에 있어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렇게 형식화한 양식은, 위축된 전체 형태와 잘 보조를 맞추고 있으므로, 시대가 하강(下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의 일반형 석탑(石塔) 중에서 건립 연대가 확실한 것은 경덕왕(景德王) 17년(758년)에 세운 갈항사지 동·서 3층석탑(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인데 이 석탑(石塔)은 상하 기단(上下 基壇) 갑석(甲石) 중앙에 2단의 각형(角形) 퀵을 마련하여 탑신부(塔身部)를 받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일 성시(統一 盛時)인 8세기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불국사 3층석탑(佛國寺 三層石塔)이나 청도 봉기도 3층석탑(昌寧 達亭里 東 三層石塔)은 위의 여러 석탑(石塔) 건립기인 통일 성시(統一 盛時)에서 강하(降下)되는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기단(基壇)의 각 부재(部材)나 옥신(屋身), 옥개(屋蓋)의 조성(造成)수법이 역시 신라 시대(新羅 時代)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기단부(基壇部)의 약화된 양식이나 둔중(鈍重)한 옥개석(屋蓋石)의 형태와 치석(治石)으로 보면, 성대(盛大)에서 훨씬 떨어지는 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석탑(石塔)은 동해안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신라 석탑(新羅 石塔)이어서 그 유존(遺存)의 의의가 크다. 이곳 절터에서는 신라 하대(新羅 下代)로부터 고려 초기(考慮 初期)에 걸치는 와당(瓦當)이 출토되고 있어, 9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석탑(石塔)의 건립 연대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신흥사 사적비(新興寺 寺跡碑)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시대(朝鮮 時代) 신흥사(新興寺) 이전에 선정사(禪定寺)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향선사(香城寺)가 있었다고 한다.

각 부의 실측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cm)
 현재 전체 높이 550,
 지대석(地臺石) 높이 20, 1변의 길이 333,
 하층 기단(下層 基壇) 높이 45, 1변의 길이 295,

상층 기단(上層 基壇) 높이 119, 1변의 길이 236,

초층 옥신(屋身) 높이 101.5, 너비 102,

2층 옥신(屋身) 높이 34, 너비 86.5,

3층 옥신(屋身) 높이 27, 너비 75,

초층 옥개석(屋蓋石) 두께 64, 1변의 길이 176,

2층 옥개석(屋蓋石) 두께 61, 1변의 길이 160,

3층 옥개석(屋蓋石) 두께 58, 1변의 길이 144

4. 진전사지 3층석탑(陳田寺址 三層石塔)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둔전리(屯田里)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의 전형적인 석탑(石塔)으로, 1966. 2. 8 국보(國寶)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2층 기단(二層 基壇)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相輪部)는 노반석(露盤石)까지 남아 있고, 그 이상은 없어졌다.

8매의 장대석(長大石)으로 구성된 지대석(地臺石) 위에 기단부(基壇部)가 형성되었는데, 하



<진전사지 3층석탑>

영북(嶺北)지역의 석탑(石塔)

총 기단(下層 基壇)은 4매의 장대석(長大石)으로 결구(結構)된 대석(臺石)위에 면석(面石)을 놓았다. 5매석으로 구성된 면석(面石)의 각 면에는 (동남북은 1매씩이나, 서면은 2매로 구성되었음) 양쪽에 우주(隅柱)가 각출(刻出)되었으며, 중앙의 1탱주(撐柱)로 양분하여 1면에 각 2좌(座)씩의 천인 좌상(天人 坐像)을 양각(陽刻)하였다.

이들 천인상(天人傷)은 다같이 7엽(七葉)의 연화좌(蓮華座)위에 안좌(安座)하고, 2중의 원형(圓形) 두신광(頭身光)을 구비하였으며, 천의(天衣)를 날리고 있는데, 수인(手印)은 합장(合掌)을 하거나 혹은 천의(天衣)를 잡고 있는 등 각각 다른 형태이다. 이 조각은 각 천인(天人)의 상호(相好)가 원만 미려(圓滿 美麗)하며, 유려(流麗)한 천의(天衣)자락이 잘 어울려서 당대의 수작(秀作)으로 볼 수 있다.

갑석(甲石)은 4매석으로 결구(結構)되었는데, 하면에 너비 1cm, 깊이 0.7cm의 낙수(落水) 홈을 음각(陰刻)하여 세밀한 의장(意匠)을 보이고 있다. 갑석(甲石)상면에는 원호(圓弧)와 각형(角形) 꼼을 마련하여, 그 위에 상층 기단(上層 基壇)을 받치고 있다.

상층 기단 면석(上層 基壇 面石)은 1면 2매 씩 모두 8매석으로 조립되었는데, 양쪽에 우주(隅柱)가 각출(刻出)되었고, 중앙의 1탱주(撐柱)로 양분하여 팔부신중(八部神衆)을 조각하였다. 이들 팔부신중(八部神衆)은 모두 운문(雲文)위에 앉아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남면의 1구(軀)는 천수상(千手相)을 하고 합장(合掌)하였으며, 북면 1구(軀)는 영락(瓔珞)을 잡고 있다. 각 면의 조각은 부조(浮雕)가 강하여 입체적이며 웅건한 조각 수법을 보이고 있다. 상층 기단 갑석(上層 基壇 鉀石)은 3매의 판석(板石)으로 결구(結構)되었는데, 하면에 너비 3.5cm, 깊이 0.5cm의 낙수(落水)홈이 음각(陰刻)되었고 부연(副緣)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상면에는 원호(圓弧)와 각형(角形)의 꼼대를 마련하여 탑신부(塔身部)을 받치고 있다.

탑신부(塔身部)는 옥신(屋身)과 옥계석(屋蓋

石)이 각기 1매석식으로 조성되었는데, 각 층의 옥신석(屋身石)에는 양쪽에 우주(隅柱)가 정연(整然)하게 각출(刻出)되었고, 초층에는 4면에 여래상(如來傷, 四方佛)이 조각되어 주목된다.

사방불(四方佛)은 모두 양련좌(仰蓮座)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원형(圓形)의 이중 두신광(二重 頭身光)을 구비하였으며, 나발(螺髮)에 육계(肉髻)가 큼직한 여래상(如來傷)인데, 그 존용(尊容)은 각각 다르다. 즉 동면은 통견 법의(通肩 法衣)가 양쪽 팔에 걸쳐 무릎을 덮었고, 오른쪽 손을 배꼽 앞에 들어 엄지 손가락을 모은 듯하며, 왼쪽 손은 가슴 앞에서 약합(藥盒)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존명(尊名)은 약사여래(藥師如來)로 보여진다. 서면은 서방 극락(極樂)세계의 무량수불(無量壽佛)인 아미타불(峨眉陀佛)인데, 통견 법의(通肩 法衣)가 양쪽 팔에 걸쳐 무릎을 덮었으나 양쪽 발은 노출되었다. 수인(手印)은 양쪽 손을 가슴 앞에 들었는데, 오른쪽 손은 외장(外掌)하여 약지와 엄지 손가락을 잡고 가운데 손가락을 꼬부리고 있으며, 왼쪽 손은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잡고 약지 손가락을 꼬부려 내장(內掌)한 설법인(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남면 여래상(如來像)의 법의(法衣)는 우견 편단(右肩 偏袒)이며, 오른쪽 손은 무릎 위에 놓고, 왼쪽 손은 어깨까지 들어 외장(外掌)하여 가운데와 엄지 손가락을 잡았고 약지 손가락과 꼬부리고 있다. 북면의 좌상(坐像)도 우견 편단(右肩 偏袒)하였으며, 수인(手印)은 오른쪽 손을 가슴까지 올리고, 왼쪽 손은 배꼽 밑에서 내장(內掌)하고 있다.

각 좌상(坐像)의 양령좌(仰蓮座)는 단엽(單葉) 5판(五瓣)인데, 각 판(瓣)안에는 큼직한 자방(子房)주변에 5엽자(五葉子)의 꽃문양(花紋)이 장식되어 있다. 원만한 상호(相好)와 목에 돌려진 삼도(三道)가 어깨위까지 길게 늘어진 양쪽 귀와 잘 어울려서 위엄과 자비가 넘치며, 그 풍려(豐麗)한 존용(尊容)과 옷 무늬(衣文)의 조각 수법이 유려(流麗)하여 비할 데가 없だ.

초층 옥신(初層 屋臣) 상면 중앙에는 1번의 길이 32.5cm, 깊이 11.5cm의 방형 사리공(方形舍利孔)이 뚫려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각 층 5단씩의 옥개(屋蓋) 받침이 정연(整然)하고, 상면은 2단씩의 각형(角形)ием으로써 각기 그 위의 옥신석(屋臣石)을 받치고 있다. 낙수면(落水面)이 평박(平薄)하고, 전각(轉角)의 반전(反轉)도 경쾌하다. 추녀에는 낙수(落水) 홈이 음각(陰刻)되었고, 네 귀퉁이의 전각(轉角) 양쪽 면에는 풍경(風磬)이 부착되었던 작은 구멍이 한 개씩 보인다. 3 층 옥개석(屋蓋石) 위에는 중앙에 지름 10cm, 깊이 10cm의 찰주(擦柱) 구멍이 있는데, 그 밑면은 지름 7.5cm로 약간 좁아들었다.

상륜부(相輪部)는 노반(路盤)뿐이고, 그 윗부재(部材)는 없어졌다. 노반(路盤)은 2매석으로 구성되었고, 중앙에는 지름 11cm의 찰주(擦柱) 구멍이 관통되었는데, 그 구멍의 크기가 고르지 않고 윗지름은 11cm이나 중간 지름은 9 cm, 아래 지름은 13cm이다. 이것은 아마도 찰주(擦柱)를 견고히 수립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상면 네 귀퉁이에 지름 1.3cm, 깊이 2.2cm의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찰주(擦柱) 상부에서 느리워진 장식적인 철쇄(鐵鎖)를 부착시켰던 구멍으로 추정된다.

석탑(石塔) 남쪽 68cm되는 위치에 1매석으로 된 배례석(拜禮石)이 놓여 있는데, 상면에는 연판(蓮瓣) 등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측면에는 사방에 안상(眼象)이 음각(陰刻)되었다. 좌우측에는 1구(區)씩이고, 전후면은 2구(區)씩인데, 그 형태는 전형적인 신라(新羅) 양식을 갖추고 있다.

상·하층 기단부(基壇部)의 면석(面石)이나 갑석(甲石)의 결구 조립(結構 組立)에 있어서 각 면석(面石)이 네 귀퉁이나 탱주(撐柱)에서 접속되는 부분을 홈을 파서 밀착되게 치석(治石)한 점이라던가, 특히 수 매로 구성된 상·하 갑석(甲石)의 각 석재가 결구(結構)되는 곳에는 양측을 연결하는 형의 홈을 깊고 크게

파서 철제정(鐵製釘)을 놓아 고정시킨 점에서도, 이 석탑(石塔)은 신라 시대(新羅 時代)의 전형적인 결구(結構) 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 석탑(石塔)의 건립은 기단부(基壇部)와 탑신부(塔身部)의 양식으로 보아 물론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이나, 하층 기단 면석(下層 基壇 面石)의 천인상(天人像)과 상층 기단 면석(上層 基壇 面石)의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 그리고 초층 탑신(初層 塔身)의 사방불(四方佛) 등의 균형이 잡히고 원만스럽고 수려(秀麗)한 조각 수법으로 미루어 9세기보다는 앞서는 8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cm)

현재 전체 높이 504

기단부(基壇部) 높이 200

지대석(地臺石) 1번의 길이 291, 높이 11

하층 기단 면석(下層 基壇 面石) 높이 31.5, 너비 232.5

하층 기단 갑 석(下層 基壇 甲石) 길이 244, 두께 22

상층 기단 면 석(上層 基壇 面石) 높이 93, 너비 178

상층 기단 갑 석(上層 基壇 甲石) 길이 197, 두께 20.8

초층 옥신(初層 屋身) 높이 80, 너비 91.5, 우주(隅柱) 너비 14.5

2층 옥신(二層 屋身) 높이 27.7, 너비 81.8, 우주(隅柱) 너비 10.8,

노반(露盤) 높이 18.2, 상면 1번의 길이 44.5, 하면 1번의 길이 37.3

초층 옥개석(初層 屋蓋石) 추녀 1번의 길이 150.6

2층 옥개석(二層 屋蓋石) 추녀 1번의 길이 133.5

3층 옥개석(三層 屋蓋石) 추녀 1번의 길이 112.5

배례석(拜禮石) 높이 18, 상면 90×38.5, 전후면 안상(眼象) 26.5×8, 좌우 측면 안상(眼象) 26.3×8

그리고, 3층석탑(三層石塔) 자리에서 계곡을 따라 약 600m정도 올라가면 작은 구릉에 학소암(鶴巢庵) 자리로 추정되는 대지(臺地)가 나타

영북(嶺北)지역의 석탑(石塔)

난다. 이곳에는 진전사지 부도(陳田寺址 浮屠)가 남아 있고, 보물(寶物)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이곳에서는 “진전(陳田)”이란 절 이름을 새긴 기와가 발견되었다.

5. 선림원지 3층석탑(禪林院址 三層石塔)

선림원지(禪林院址)는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황이리(黃耳里) 미천골(米川谷)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석탑(石塔)위에 세워진 3층석탑(三層石塔)으로, 신라 석탑(新羅 石塔)의 전형 양식을 잘 이어 받고 있다. 1966.9.21 보물(寶物)제444호로 지정되었다.

지대석(地臺石)은 6장의 판석(板石)으로 짜여져 기단(基壇)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여러 매의 판석(板石)으로 짜여진 높은 1단의 꼼대를 마련하여 하층 기단 면석(下層 基壇 面石)을 놓았다. 하층 기단 면석(下層 基壇 面石)은 면마다 2개, 곧 8매의 길고 큰 돌로 이루어졌는데 우주(隅柱)와 중앙의 탱주(撐柱)하나가 정연(整然)히 모각(模刻)되어 각 면은 2구(區)로 나뉘어졌다. 하층 기단 갑석(下層 基壇 甲石)은 6장의 판석(板石)으로 덮고, 윗면에는 각형(角形)과 호형(弧形)의 2단 꼼을 새겨서 상층 기단 면석(上層 基壇 面石)을 받치고 있다.

상층 기단 면석(上層 基壇 面石)은 각 면 2장씩 8장의 판석(板石)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면에는 우주(隅柱)와 탱주(撐柱)를 모각(模刻)하였고 탱주(撐柱)로 2분한 각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양각(陽刻)하였다. 상층 기단 갑석(上層 基壇 甲石)은 4장의 판석(板石)으로 덮었는데, 밑에는 부연(副椽)이 있고, 윗면에는 각형(角形) 2단의 꼼이 있어 탑신부(塔身部)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塔身部)는 옥신(屋身)과 옥개석(屋蓋石)이 각각 한개의 돌로 조성되었고, 각 층 옥신(屋身)에는 각 면에 2주(柱)의 우주(隅柱)가 모각(模刻)되었다. 초층 옥신(屋身)은 높은 편이고, 우주(隅柱)가 있을 뿐 다른 조식(彫飾)은 없다. 2층 이상도 같은 양식이고, 체감 비율은



<선림원지 3층석탑>

견실하다. 초층 옥신(屋身) 상면에는 1번의 길이 19cm, 깊이 10cm의 방형(方形)과 그 밑에 깊이 5cm의 2단으로 된 사리(舍利)구멍이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널찍하고, 받침은 각 층 모두 5단식이며, 추녀 밑은 수평이고, 네 귀퉁이의 전각부(轉角部)에는 풍경(風磬)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남아 있다. 낙수면(落水面)은 평박(平薄)하며, 전각(轉角)에도 반전(反轉)이 있어서 경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옥개석(屋蓋石)정상면에 각형(角形) 2단의 꼼을 마련하여 그 위 층의 옥신(屋身)을 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新羅 石塔)의 양식이다. 3층 옥개석(屋蓋石) 정상면에는 지름 10.5cm의 등근찰주(擦柱)구멍이 있다.

상륜부(相輪部)는 옥개석(屋蓋石)에 비하여 매우 작은데, 윗 부분에 2층의 단이 있는 노반(露盤)이 있고, 그 위에 보륜(寶輪)과 보주(寶珠)를 같이 조성한 원추형(圓錐形) 돌이 하나 놓여 있다.

현재 탑(塔)앞에는 장방형(長方形)의 배례석(拜禮石)이 하나 놓여 있는데, 위에는 아무 조각이 없으나 옆면에는 앞뒤에 2좌(座), 좌우에 1좌(座)씩의 통식(通式)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다.

이 석탑(石塔)은 외형상 정제(整齊)된 비례를 보여 주지만, 각 부(部)의 결구(結構)수법에 규율성이 없고, 조가 수법도 섬약(纖弱)한 편이다. 신라 석탑(新羅 石塔)의 양식을 충실히 이어받고 있으나, 조성 연대는 신라 하대(新羅 下代)에 가까운 9세기 경으로 짐작된다.

쓰러져 있던 것을 1965년에 복원하였는데, 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기단부(基壇部)에서 납석제 소탑(蠟石製 小塔) 60여 기(基)와 동탁(銅鐸) 1개가 발견된 일이 있다.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단위는 cm)

현재 전체 높이 약 500

초층 옥신(屋身) 높이 81, 너비 85

2층 옥신(屋身) 높이 30, 너비 74

3층 옥신(屋身) 높이 25.5, 너비 66

초층 옥개석(屋蓋石) 길이 145.5

2층 옥개석(屋蓋石) 길이 130

3층 옥개석(屋蓋石) 길이 115

노반(路盤) 길이 43

선림원지(禪林院址)에는 보물(寶物) 제444호인 3층석탑(三層石塔) 이외에도, 보물(寶物) 제445호인 석등(石燈), 보물(寶物) 제446호인 홍각선사 탑비 귀부 및 이수(弘覺禪師 塔碑 龜趺 및 蝶首), 보물(寶物) 제447호인 부도(浮屠)가 남아 있다. 이들 석조 유물(石造 唯物)은 대부분 쓰러져 있던 것을 1965년에 복원한 것이다.

그리고 선림원지(禪林院址)에서는 1948년에 “정원 20년(貞元 廿年)”이란 연대가 새겨진 국보(國寶)급 신라(新羅) 범종(梵鍾)이 출토되었다. 이 종은 곧 오대산(五臺山) 월정사(月精寺)에 보관되었으나, 아깝게도 6.25전쟁 때 불에 타버렸다.

그리고 홍각선사 탑비(弘覺禪師 塔碑)는 현재 귀부(龜趺)와 이수(蝶首)만 남아 있고, 비신(碑身)은 깨어져 잔편(殘片) 하나가 서울 경복

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회랑(廻廊)에 보관되어 있으나, 그 전에 만들어진 탁본(拓本)이 발견되어 그 전문(全文)을 파악할 수 있다.

6. 양양 오색리 3층석탑(襄陽 五色里 三層石塔)

이 탑(塔)은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오색리(五色里) 성국사(城國寺)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의 전형적인 석탑(石塔)으로, 1968. 12. 19 보물(寶物) 제 497호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탑(塔)이름을 절 이름과 함께 성국사 3층석탑(城國寺 三層石塔)이라고 불러야겠으나, 성국사(城國寺)는 최근에 세워진 절인데 탑(塔)은 통일 신라 시대(統一 新羅 時代)의 석탑(石塔)이므로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마을 이름과 함께 오색리 삼층석탑(五色里 三層石塔)이라고 명명되었다. 충남(忠南) 보령군(保寧郡)소재, 성주사지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



<양양 오색리 3층석탑>

영북(嶺北)지역의 석탑(石塔)

(聖住寺址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와 <조당집(祖堂集)>에 “설산 오색석사 (雪山 五色石寺)”, “설악 오색석사 (雪嶽 五色石寺)”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탑(塔)이 바로 통일 신라(統新羅) 당시 오색석사(五色石寺)의 탑(塔)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절 이름 성국사(城國寺)의 유래는, 조선 후기(朝鮮 後期)에 오색(五色)에 있었다고 읍지(邑誌)에 기록되어 있는 현곡사(玄谷寺)가 절이 없어진 상태에서 절 이름만 주민들에게 구전(口傳)되는 과정에서 와전(訛傳)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

이 석탑(石塔)은 완전히 쓰러져 있었던 것을, 1971년에 부재(部材)들을 수습하여 복원하였다. 5장의 길고 큰 돌로 결구(結構)된 지대석(地臺石) 위에 건립되었는데, 2층의 기단(基壇)을 형성하고, 그 위에 탑신부(塔身部)를 올려놓았다.

하층 기단(基壇)은 높직한 껌과 면석(面石)이 한 돌로 조성되었으며, 석재는 좌우에 기단석(基壇石)을 놓고 그 사이 전후에 1석씩을 배치하여 4매의 장대석(長大石)으로 짜여졌는데, 각 면에는 우주(隅柱)와 중앙의 텡주(擗柱)하나가 정연(整然)하게 새겨져 있다. 갑석(甲石)은 3장의 판석(板石)으로 덮었는데, 상면은 경사를 이루어서 네 귀퉁이의 합각(合角)이 뚜렷하며, 중앙부에 높직한 원호(圓弧)와 낮은 각형(角形) 꿈으로 그 위의 상층 기단(基壇)을 받치고 있다.

상층 기단 면석(基壇 面石)은 4장의 판석(板石)으로 짜였는데, 각 면에는 양쪽의 우주(隅柱)와 중앙의 텡주(擗柱)하나가 모각(模刻)되어 있다. 상층 기단 갑석(上層 基壇 甲石)은 2장의 판석(板石)으로 덮었는데, 하면에는 깊숙이 낙수(落水)의 흠이 얕게 음각(陰刻)되고, 네 귀퉁이에도 낙수(落水)의 흠이 표시되어 있다. 부연(副椽)은 크지 않으나 정연(整然)하게 새겨져 있다. 갑석(甲石)상면은 약간 경사가 겨서 네 귀퉁이의 합각(合角)이 뚜렷하며, 중앙에 있는 호형(弧刑)과 각형(角形)의 꿈이 탑신부(塔身部)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塔身部)는 옥신(屋身)과 옥개석(屋蓋石)이 각각 한 개의 돌로 조성되었다. 각 층 옥신(屋身)에는 우주(隅柱)가 정연(整然)하게 새겨져 있고, 조총 옥신(屋身)상면 중앙에는 1변 길이 32cm, 깊이 8.5cm의 정4각형 사리공(舍利孔)이 있어서 주목된다.

옥개석(屋蓋石)은 각 층이 같은 형태인데, 옥개(屋蓋)받침이 4단씩이고, 옥개석(屋蓋石)위에 새겨진 옥신(屋身)꼽도 각 층이 2단씩이다. 밑면 깊숙한 처마에 음각(陰刻)된 낙수(落水)홀은 얕은 편이다. 낙수면(落水面)이 얕고, 4면 합각(合角)이 예리하며, 전각(轉角)에 반전(反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전각(轉角)마다 풍경(風磬)을 매달았던 구멍이 있는데, 1층에는 구멍이 하나씩이지만 2, 3층은 2개씩이어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장엄했던 것 같다.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부터 아무런 부재(部材)도 남아 있지 않으며, 3층 옥개석(屋蓋石)윗면에 지름 7cm, 깊이 4.5cm의 등근 찰주(擦柱)구멍이 있을 뿐이다.

이 석탑은 부재(部材)들로 보아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정연(整然)한 치석(治石)수법이어서 석탑(石塔)은 단정하고 우아하다. 정연(整然)하게 구성된 2층 기단(二層 基壇)과 탑신부(塔身部) 옥개석(屋蓋石)의 낙수면(落水面)이 얕은 점, 옥신(屋身)꼽을 2단 각형(角形)으로 마련한 점 등으로 보아 신라 석탑(新羅 石塔)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성국사(城國寺) 경내에는 이 3층석탑(三層石塔) 이외에도 또 다른 석탑(石塔)의 부재(部材)가 흩어져 있고, 원각(圓刻)의 석사자(石獅子)가 남아 있다. 그리고 범당 자리에는 주초석(柱礎石), 충계석, 좌우 난간석(欄干石) 등이 원위치에 남아 있다.

7. 낙산사 7층석탑(洛山寺 七層石塔)

낙산사(洛山寺) 원통보전(圓通寶殿) 앞뜰에 세워진 조선 시대 초기(朝鮮 時代 初期)의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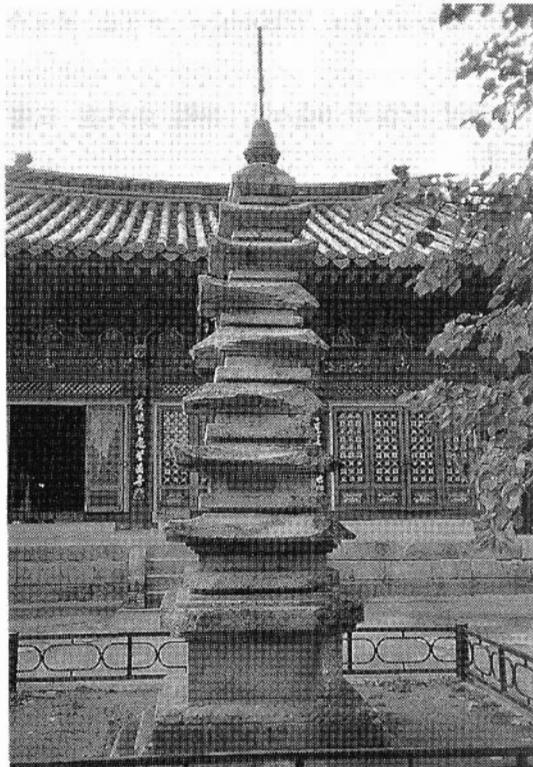
석탑(七層 石塔)으로, 1968. 12. 19 보물(寶物) 제 499호로 지정되었다. 일부는 손상을 입었으나, 상륜부(相輪部)까지 모두 남아 있는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단부(基壇部)는 맨 밑에 1석으로 된 방형(方形)의 지대석(地臺石)이 있고, 그 윗면에 높고 큼직한 2단의 각형(角形) 꼼을 각출(刻出)하여 하대석(下臺石)을 받치게 하였다. 하대석(下臺石) 윗면에는 24엽(葉)의 복판(複瓣) 연화(蓮華) 무늬가 조식(彫飾)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1단의 낮은 각형(角形) 꼼을 각출(角出)하여 기단 면석(基壇 面石)을 받치고 있다. 면석(面石)은 방형(方形) 1석으로서, 각 면에는 아무런 조각도 없어 우주(隅柱)도 모각(模刻)되어 있지 않으며, 그 위에 갑석(甲石)이 놓여 있다. 갑석(甲石)은 아래 위가 수평으로 된 1장의 판석(板石)인데, 밑에는 얇은 부연(副椽)이 있고, 위에는 각형(角形) 2단의 꼼이 있어 탑신부(塔身部)를 받치고 있다. 기단부(基壇部)는 이처럼 간략한 구조이지만, 높이가 높아진 것인 눈에 띈다.

탑신부(塔身部)는 옥신(屋身)과 옥개석(屋蓋石)이 층마다 한 돌씩인데, 옥신(屋身) 자체는 매우 얕으나 옥신(屋身)보다 넓고 거의 같은 두께의 옥신(屋身) 꼼 1단씩이 끼어 있는 것이 이 석탑(石塔)의 특이한 양식이다. 옥신(屋身)에는 우주형(隅柱刑)의 표시가 없고, 상층으로 올라 가면서 체감 비율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다.

옥개석(屋蓋石)은 그 아랫면에 각 층마다 3단씩의 각형(角形) 받침이 각출(刻出)되었으며, 추녀는 매우 얇고, 네 모퉁이의 전각(轉角)은 반전(反轉)이 심한 편이다.

낙수면(落水面)은 매우 평박(平薄)하고, 각 모퉁이의 합각(合閣) 머리가 뚜렷하며, 특히 여기에서도 전각부(轉角部)에 이르면서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어서, 추녀의 반전(反轉), 평박(平薄)한 낙수면(落水面) 등이 잘 어울려 경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옥개석(屋蓋石) 또한 체감 비율이 낮아서, 탑신부(塔身部)



<낙산사 7층석탑>

의 전체형태는 고峻(高峻)하게 보이기도 한다. 각 옥개석(屋蓋石) 윗면의 옥신(屋身) 꼼은 각형(角形)으로 1단씩을 각출(刻出)하였는데, 이것은 그 위의 꼼돌 아랫면의 받침부와 잘 맞도록 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조탑(造塔) 양식의 일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상륜부(相輪部)는 7층 옥개석(屋蓋石) 위에 각 층의 옥신(屋身) 꼼과 같은 형태의 돌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밑으로 3단의 받침이 있는 화강암제 노반(露盤)이 얹혀 있다. 그 위에는 청동제 찰주(擦柱) 등이 있어, 형태가 원대(元代)의 라마탑(喇嘛塔)을 연상시킨다.

기단부(基壇部)의 연화(蓮華) 장식과 옥신(屋身)에 꼼들이 있는 것이 이 석탑(石塔)도 고려(高麗)의 양식을 이어받고 있으나, 더욱 간략화되고 무기력해 보인다.

이 탑(塔)의 건립 시기는, 낙산사(洛山寺)가 조선(朝鮮) 세조(世祖) 때 크게 중창된 것으로

영북(嶺北)지역의 석탑(石塔)

보아 중창과 함께 건립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1) 양양 서림리 3층석탑(襄陽 西林里 三層 石塔)

현재는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서림리(西林里) 현서 국민학교(峴西 國民學校) 교정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래는 같이 옮겨진 석불좌상(石佛 坐像)과 함께 학교앞(南方) 200M 쯤 되는 경작지에 위치하여, 기단부(基壇部)가 매몰되고 일부 부재(部材)는 부근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65. 6. 25 부재(部材)를 수습하여 학교 교정으로 이건하였다.

4장의 돌로 된 사각형의 지대석(地臺石)위에 1개의 돌로 하층 기단(下層 基壇)을 세워 놓고, 상면에 1단의 뾰로(樎)으로 상층 기단(上層 基壇)에는, 각 면에 양쪽 우주(隅柱)가 각출(刻出)되었을뿐 탱주(撐柱)는 없으며, 갑석(甲石)하면에는 고려 하대(高麗 下代) 양식의 사형 부연(斜刑



<양양 서림리 3층석탑>

副椽)이 있고, 상면에 2단의 각형(角形)꼴으로 탑신부(塔身部)를 받치고 있다.

초층과 2층의 옥신(屋身)은 각각 별개의 돌로 이루어졌는데, 우주(隅柱)가 표현되어 있고, 3층 옥신(屋身)은 2층 옥개석(屋蓋石)과 동일석으로 되어 있다. 초층과 2층 옥개석(屋蓋石) 상면 중앙에는 사각형의 찰주(擦柱)구멍이 있고, 그 위에 노반(露盤)을 놓았다.

각 옥개석(屋蓋石)의 낙수면(落水面)이 급경사여서 둔중(鈍重)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전각(轉角)에 반전(反轉)이 있어서 경쾌한 면도 있다.

기단 갑석(基壇 甲石) 상면 네 모서리마다 합각(合角)이 진 것이라던가, 부연(副椽), 기타 각 부(部)의 수법으로 보아, 연대는 고려 하대(高麗 下代)로 추정된다.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cm)

현재 저체 높이 310

초층 옥신(屋身) 높이 33

2층 옥신(屋身) 높이 16

3층 옥신(屋身) 높이 9.5

초층 옥개석(屋蓋石) 길이 79

2층 옥개석(屋蓋石) 길이 67

3층 옥개석(屋蓋石) 길이 57

(2) 아직 확인하지 못한 탑(塔)

그 외에도 문현 등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한 탑(塔)이 몇 기(基) 있다. 우선 일제 시대(日帝 時代)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펴낸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朝鮮 寶物·古蹟 調査 資料)>에 의하면,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금수리(金水里)에 5층석탑(五層石塔, 塔身部는 倒壊, 下層 基壇石에 眼象 조각, 三層 基壇), 고성군(高城郡) 현내면(縣內面) 대강리(大康里)에 3층석탑(三層石塔, 소규모 塔, 基壇과 地臺石과 屋蓋石이 있을 뿐 다른 것은 명확하지 않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탑(塔)이 지금은 대개 파괴되어 부재(部材)만 남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훼적도

없이 사라졌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양양 읍지(襄陽 邑誌)인 <양주지(襄州誌)>에는, 양양(襄陽) 서쪽 10리 지점에 안심암(安心庵)이란 절과 자심탑(慈心塔)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곳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또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 소림암(小林庵)터에 석탑(石塔)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또, 영북(嶺北)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설악권(雪嶽圈)인 내설악(內雪嶽)에도 몇 기(基)의 탑(塔)이 남아 있다. 인제군(麟蹄郡) 북면(北面) 한계리(寒溪里) 장수대(將帥臺) 한계사지(寒溪寺址)에는 3층석탑(三層石塔)이 2기(基) 남아 있고, 백담사(百潭寺)에는 5층석탑(五層石塔), 봉정암(鳳頂庵)에는 3층석탑(三層石塔)이 각각 남아 있다.



<한계사지 3층 석탑>



<한계사지 서북쪽 3층 석탑>

어 촌 풍 속

속초의 어로(漁撈)민속



장 정 룡(강릉대 교수)

어로민속(漁撈民俗)은 어민들이 나름대로 안전조업과 풍어를 위하여 그들의 생활속에 전승시켜온 민속을 말한다. 아직은 생소한 용어나 농경민속, 산간민속연구에 많은 업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연구과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단편적인 어로민속의 고찰이다. 주로 속초민속의 전반적인 범위내에서 살펴본 것으로 심층적 연구가 되지 못했다. 다만 선진화되고 있는 어로작업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전통민속의 계승자들이 남아 있으며 그들의 민속을 체계화시켜야 될 것이라는 문제점 제기를 위해서 개괄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속초시 중에서 1990년부터 금년 까지 몇차례 필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대포동, 장사동, 영랑동, 청호동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몇가지 속초지역의 어로민속중 특색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 그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추적해보고 아울러 가능하다면 상징성의 논의에까지 진전시키고 싶다.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로민속의 연구를 위한 기초보고자료에 충실하기로 하겠다.

세시풍속은 한 해 가운데 특정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풍속인데 속초의 어로민속중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정초의 뱃고사, 연날리기, 영등제등이 있다.

뱃고사는 정초에 좋은 날을 가려 선주가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대체로

개인적으로 행하거나 무당을 청하여 마을의 서낭당에 가서 정성껏 빈다음 “용왕님 위한다”며 제물을 따로 장만하여 배성주에 바친다.

정초와 10월 상달, 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배안에 모신 성주님께 빈다고 한다. 이 때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나물, 메, 술과 향, 소지울림을 한다. 정초에 지내게 되는 것은 한해의 시작을 고하고 1년동안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때문이며, 가을은 수확을 뜻하기 때문이다. 속초지방에서는 ‘배성주’라는 호칭이 대부분이며 전라도나 경상도의 경우처럼 ‘배서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드물다.

배성주의 형태는 실과 한지를 매단 경우가 많고 간혹 부적을 옆에 붙여놓은 것이 보였다. 배성주의 위치는 작은 톤수의 배는 기관실 앞쪽 벽의 모서리에 성주 신체(神體)를 걸어 두었는데 집에서 모시는 성주와 동일하다. 그러나 동력선으로 규모가 큰 배의 경우 선장실 앞에 따로 문을 내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봉안하였다. 매년 새 것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나 몇 해 동안 갈지 않고 여러 성주 신체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배도 있다.

배성주의 신격(神格)은 남성신과 여성신이 있는데 처음 배를 건조할 때 무당들이 정해 주었다고도 한다. 또는 선주의 꿈에 신이 현몽을 하여 남·여를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여신의 경우 설악산 여산신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대포동의 한 제보자는 배성주님이 매우 꺼리

는 것이 많다며 출어시는 봄을 깨끗이 하는 것 이 첫째라고 하였다. 하루는 꿈에 한복을 입은 여자(여자성주)가 배에 타는 꿈을 꾸고 싶지 못할 만큼 고기를 잡았다고 말하였다. 정초에 배성주제사를 지낼 때 한복감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다.

배성주의 성별(性別)을 나누는 방법은 현몽, 무당에 의한 결정외에도 마을의 수호신에 따르는 경우, 목수에 의한 결정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포, 외옹치의 경우 여신이 남신보다 훨씬 우세하게 배성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원인으로는 여성이 풍요의 상징으로 출산과 번식에 따른 풍어기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동해안 일대는 여신들이 마을의 중심신격으로 봉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출때 이 여신이 배의 신격으로 임용(仍用)된 것으로 생각된다.

무녀가 여성으로 여신을 많이 배성주신으로 정해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듣지 못했으며, 속초의 무녀들에게서 들은 예화(例話)로는 실제로 굿을 하다보면 금방 신의 모습이 눈에 선연히 보이게 되므로 그대로 정한다는 것이다. 배성주의 신체(神體)는 한지 전지를 네 번 접은 것을 명주 실타래에 묶어서 걸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신체가 없이 그냥 배의 선장실에서 술과 약간의 제물을 차려놓고 빌기도 한다. 첫 출항을 해서 잡은 고기는 지느러미를 떼서 신체에 한지와 함께 매달라 풍어를 기원한다. 그러나 어로작업이 안되고 배에서 말썽이 생기면 배성주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주로 무시나물, 무채를 많이 해서 바친다. 무[청근]는 발음상 무(無)와 통하므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무성함을 뜻하는 무(茂)와도 상관성이 있을 것 같다.

음력 정월 보름날까지 어촌마을의 아동들은 연날리기를 하는데 내륙마을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 ‘연 귀양 보내기’라 하는데 참나무 껍질로 배를 만들고, 여기에 연을 매달아 바다 멀리 띄워 보낸다. 이때 쑥을 연줄에 매다는데 불을 쑥대에 붙여서 보내면 얼마쯤 가다가 쑥이 다 타

면 연줄이 끊겨 날아 가게 된다. 이를 “연 귀양 보낸다”고 하며 이렇게 해야 그 해 탈이 없다고 믿는다. 연을 이날까지 날려 보내지 않고 집에 놔두면 귀신이 붙는다 하여 꺼린다.

2월 초하루가 되면 ‘영동날’이라 하여 어촌에서는 극진히 모신다. 2월달을 ‘바람님 달’이라고 할 정도로 바람이 심한데 영동할머니가 오시기 때문이라 한다. 이 날이 되면 배선주나 어부들은 비린내 나지 않는 생선이나 비늘없는 생선을 차려놓고 떡을 해놓고 기원한다. 또는 무를 넣은 밥을 쪘서 식구수 대로 수저를 꽂아 놓고 평안과 풍어를 빈다.

요즘에는 영동신의 관념이 많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바다에서는 바람을 보고서 고기의 이동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풍랑을 동반하기에 신격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영동할머니는 2월 초하루 하늘에서 내려 왔다가 15일날 다시 올라가며 20일에는 따라 왔던 수부신도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되어 간단히 상을 차려놓고 빈다.

엄격히 신봉하는 가정에서는 주부가 색깔있는 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금기가 지켜지고, 상가집이나 흥한 일을 꺼린다. 전하는 말로는 영동신은 할머니로 초하룻날 올때 머느리와 함께 오면 비를 오게 하여 머느리 치마가 젖게 하는데 이를 ‘물영동’이라 한다. 물영동이 되면 그 해 해사(海事)가 잘 된다고 믿는다. 또한 딸과 함께 올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 치마나 잘 날려서 보기 좋게 한다고 하는데 이를 ‘바람영동’이라하고 출어시 주의를 한다. 따라서 영동신은 비와 바람을 관장하고 항시 수부신을 대동한 신격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내방신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어촌에서는 아직도 영동할머니를 믿는 집안이 있다.

속초의 어촌에서 신봉하는 민간신앙은 서낭제, 뱃고사, 용왕제 등이 있는데 청호동의 용왕위령제, 외옹치 고풀이제, 모래기 수살제, 물치 용왕굿 용떡제가 전한다. 이러한 제의에는 굿이 들어가는데 용왕위령제는 청호동 어부가 어로 중 회생되었으므로 그 넋을 위로하며 용왕신의

가호를 비는 제의다.

대포동 외옹치 고풀이제는 여서낭제와 용왕굿이 행해지고 장승제도 함께 지낸다. 3월과 9월에 여서낭제를 지내고, 3년에 한번씩 용왕제와 굿을 하는데 풍어를 빌고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고풀이를 한다. 고풀이는 위령굿으로 먼저 용왕신을 위한 굿을 한 다음 바다에서 사망한 어부의 혼을 건져 위로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절차를 행해 맺혔던 고를 봉다.

장사동 사진리 즉 모래기의 수살제 역시 조업도중 해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의식이다. 대포동 물치리의 용왕굿 용떡놀이는 마을 서낭제를 지낸 후 용왕님께 바치는 용떡을 시루에다 10개를 해 놓고 꽃을 그 위에 꽂고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다. 옛날부터 바다에는 용궁이 있고 용왕이 산다고 하는 용신사상이 널리 퍼져 있는데 속초지방에서도 용왕신의 가호가 있어야 풍어가 되고 재해가 없다고 믿는 어부들이 있다. 자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서 용왕신이라는 신격을 설정하고 보호를 바라는 신앙심이 자연 생겨난 것이다.

뱃고사는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 엄숙히 지내는 형태가 되지만 용왕제는 무속이 겪해지는 개방적이고 여성위주의 제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용왕제는 굳이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특성이 있고 마을의 축제적인 성격도 떤다.

다음 속초어촌의 금기와 점복에 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었다. 가장 꺼리는 금기는 상가(喪家)에 가는 것인데,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상가에 다녀온 사람이 배를 타야 할 경우는 마른짚에 불을 붙여 배의 이물에서부터 휘둘러 고물에다 버림으로써 '부정을 가신다'고 한다. 이 '부정가시기'는 불의 정화력(淨化力)에 의지한 것으로 불과 연기를 이용한 퇴거(退鬼)방법이라 하겠다.

배를 새로 만들어 처음 물에 내리는 '실망'을 할 때도 역시 짚으로 만든 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며 액막이를 하고 소금을 뿌린다.

다음의 금기(禁忌)로는 출산부정을 꺼리는 데, 피를 부정물(不淨物)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후를 보면 사흘동안 배를 타지 않는다.

이밖에도 개고기를 먹는 것을 꺼리며 잔치집에 가는 것도 꺼린다. 상가집에는 가도 결혼식에는 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또한 고기잡으려 나갈때 여자가 길을 앞질러 전너는 것을 보면 흥하다고 한다. 배성주에서 짹짜하는 새소리가 나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꿈으로 풍어를 점치는 예는 흥미로운데 길몽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꿈에 송장을 보거나 산에가서 솔잎을 한 침 지고 오면 풍어
- 꿈에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풍어
- 누군가의 창고에 가서 소금을 지고 오면 풍어
- 사람을 죽이거나 싸워서 피가 나면 풍어
- 꿈에 상복을 입으면 풍어

다음에 관습적인 예조(豫兆)로는 갈매기가 날개를 물에 적시면 비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설악산에 구름이 끼면 동풍이 불 것으로 짐작한다. 마바람이 불면 고기가 많으며, 동풍이 불면 도루매기가 많이 잡힌다. 설악산의 구름이 한 일자로 가면 큰 바람이 분다고 미리 짐작한다. 이밖에 방향을 읽으면 몸의 이(風)를 놓아서 움직임을 보는데 반드시 육지쪽으로 향한다고 한다. 또한 멀미가 나면 가지고 간 흙이나 미역을 먹는다고 한다.

속초어촌에서 쓰이는 어휘를 살펴보면 타지역과 차이가 있는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나 민속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민현식교수와 함께 채록한 것이다. ()은 표준어임.

<어선, 어업어휘>

도꾸(돛), 아돛줄(용총줄), 치(키), 따래·딸

(키), 놀(노), 놀쫓기(노를 거는 고리), 놀망치(잡는 부분), 놀지치(놀꼴), 한놀(운전대), 엎놀(빨리가는 것), 묘씨(큰 몽애), 이풀(배앞), 한창(배 중간), 고물(배뒤), 재주(배임자), 신(복신), 바지(투덕바지), 산대(고기 뜨는 기구), 방장(배의 큰방), 좌상(어부중 나이 많은 사람), 머구리(잠수인), 보통바리(어획을 분할로 하기), 지따먹기(어획 능력별로 분배), 덤장(정치망), 미래(그물구멍), 패담(배들어 올릴때 밑에 괴는 나무), 든대(배를 바다에 내릴때 들어올리는 나무), 짓(고기를 분배하는 것), 화장(배에서 밥하는 사람)

<바람, 조류어휘>

들바람(동풍), 서마바람(강한 동풍), 마파람(남풍), 하누바람(서풍), 갈바람(남서풍), 셋바람(북풍), 급새(강한 북풍), 뒷새바람(서북풍), 원산내기(서북풍), 나울(큰파도), 멀개(파도), 서마나울(동남 폭풍 해일), 성에(바다밑 바위), 짜매(바다밑 바위), 꼭두(바다밑 바위꼭지), 불발·미겁·허비(바다밑 모래발), 모래부리(바다밑 모래언덕), 지탈·허통(바다지면), 갈매(깊은 바다), 설물(북남조류), 들물(동서조류), 새안들을(남서에서 동북으로의 조류), 만물(남북조류), 마안들을(동북에서 남서로의 조류), 시거리(바다물이 번쩍거리는 것)

<어류어휘>

알땅구(성게), 쪽발이(불가사리), 행우(멍게), 우렁쉥이), 말(바다풀), 도박(파래), 써거리(아가미), 날개미(지느러미), 되미(고등어), 노랑태(노란명태), 메루치(멸치), 빽쟁이(복어), 눈치(정어리), 싱어·신통이(도치), 새치(이면수), 다꼬(문어), 까재미(가자미), 감동이(검은 열갱이), 불열갱이(황열갱이), 조가지(조개)

<기타>

가에 나간다(근해어업), 바다로 나간다(원양어업), 천기를 본다(하늘의 움직임을 본다), 비대(별)

지금까지 속초지방에 전승되는 어로민속의 일부를 정리하여 보았다. 동해안의 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어로민속은 아직까지 여러 방면에서 연구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다른 민속현상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사라져 가는 어로민속에 대한 체계화가 요망되며 아울러 속초는 함경도 이주민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의해서 이뤄진 이주민속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신앙이나 믿음, 민속 등을 단순한 미신행위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 어로방식과 어민들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등을 오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리라 본다.

탐방

束草地域開發問題研究所



최무일

(속초지역개발연구소장)



이 고장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發展된 속초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지역의 뜻있는 젊은 실업인들이 90년 3월 속초지역 개발문제연구소(소장=崔茂一)를 발족시켰다. 이 연구소의 회장은 尹重國도의원을 비롯, 權春植교수(관동대), 魏丁主교수(동우전문대)등이 전문위원으로 학술적으로 연구에 전념해 체계적으로 개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의 운영은 52명의 임원이 매월 3만원의 회비와 10개 기업체의 협찬금으로 운영하는데 남이 모르게 崔茂

一소장이 기본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사재로 부담해 날로 연구 활동이 활발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임원들의 대부분은 이 고장 산업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실업인들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은 서로 분담하여 분임토의로 시급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지혜를 쏟고 있다. 연구소 임태의 주역인 尹重國, 崔茂一, 白永一, 李根春, 崔龍文, 洪成萬, 安國俊, 朴鶴聲, 김연진씨등 9명이 발기인이고 그후 많은 인사들이 발기 취지를 찬동하고 뭉치기 시작했다.

연락사무소는 동명동 제일약국에 두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다. 그 중요사업을 살펴보면 ①시민의식과 지역문제 설문조사. 90년8월 10일~25일까지 시내 13개동별로 9백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우전문대학 魏丁主교수가 작성한 12개분야 총 41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②설문조사결과 시민보고 대회 개최. 91년9월27일 동명 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시내 각급기관, 단체, 시민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문조사 개요를 동우전문대 魏교수가 발표했고 관동대 權春植교수가『속초지역 경제의 잠재력과 도시개발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③설악권 속초발전 세미나. 90년 11월20일 장산 속초관광호텔 6층 회의실에서 기관, 단체, 시민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 1주제:『21세기 북방교역과 고속교통체계(설악권 중심으로)』란 주제로 교통부 운송정책국 金세호과장이 발표했고, • 2주제:『속초 설악권 지역개발 방안』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黃明燦박사(전 국토개발 연구원장)가 발표했고 • 3주제:『속초지역 경제의 잠재력과 도시개발 방향』을 관동대학교 權春植교수(경제학과)가 발표했다. 토론에는 유영희박사(국토개발원 기획실장),呂鴻九박사(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魏丁主교수(동우전문대), 채희용씨(속초시 도시과장)등이 나섰다. ④설악권 자연훼손 문제 설문조사. 91년8월15일~25일까지 동별 직능별로 2백명을 추출하여 5개문항에 걸쳐 실시했다. ⑤설악권 개발연구 일본 취재. 91년 7월10일~18일까지 사이에 연구소 임원,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번영회 회장, KBS및 강원일보기자등 15명의 취재단이 일본 오사카, 고오베, 나라, 교또, 아다미, 하코네, 동경등지를 대상으로 취재했다. ⑥일본취재 보고 대회및 세미나. 91년9월30일 속초관광호텔 6층 회의실에서 • 1주제:일본적 경험과 설악권 개발모델—權春植교수(관동대), • 2주제:설악—금강 관광특구와 속초의 미래—黃明燦박사(건국대 행정대학원장)가 발표했다. 토론에는 朴容權 시의회 의장, 白永一시번영회장, 李揆喆속초시

상공회의소 회장, 이수현 강원도 관광협회 부회장, 韓基鍾속초수협장등이 일본 시찰동에서 얻은 견문으로 속초시 발전문제를 토론했다. ⑦설악권 관광실태 설문조사. 92년8월10일~15일까지 관광객 6백명을 임의 선정하여 3개분야 19개항목에 걸쳐 조사했다. ⑧영북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 92년9월25일 속초시 장산호텔 6층 회의실에서 본 연구소 주관으로(주최:상공회의소)열렸는데 이날 심포지엄에서 2천년대 속초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소 임원

- ◇전문위원 ▲權春植(관동대교수) ▲魏丁主(동우전문대교수) ◇회장 ▲尹重國(도의원) ◇소장 ▲崔茂一(제일약국) ◇후원회장 ▲李揆喆(상공회의소회장·한진상사) ◇부소장 ▲朴鶴聲(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 ▲李根春(中央슈퍼) ◇총무이사 ▲金熙哲(신성통상대리점) ◇재무이사 ▲尹義永(한진수산) ◇이사 ▲金永國(신성산업사)▲白榮哲(明新상회)▲鄭榮來(새한가정의원)▲崔鍾奉(세운인쇄사)▲洪成萬(다경개발)▲尹鴻(하티스트대리점)▲崔敬順(華信상회) ▲金基明(프로스팩스대리점)▲金鉉達(국민일보 속초지사)▲金澤松(속초약국)▲金成圭(동명식품)▲金容煥(한일횟집)▲金珠鎮(오복당)▲金在燮(영랑약국)▲金椿權(원약국)▲金亨鎮(평화양행)▲姜童玄(동운선어구상사)▲朴容吉(대동약국)▲方勝文(내외건축사무소)▲裴英德(현대상사)▲裴洪均(헬스론대리점)▲孫雄鄉(손이비인 후과의원)▲梁光植(대우자동차판매(주))▲劉吉弘(설악칼라현상소)▲尹鶴均(삼화제재소)▲嚴愷植(현대냉동)▲嚴柱天(중앙동새마을금고)▲李正吉(대관령우유특약점)▲李明德(충무로양복점)▲李柱喆(설악산관리사무소)▲李秀憲(풍전실업)▲林元基(아성기획)▲張龜鳳(삼진건설)▲鄭峰壽(강원제제소)▲池春暎(송암기획)▲崔峰英(대명기획)▲崔然圭(대신엔지니어링)▲崔墩杓(화인 월드컵대리점)▲崔岩明(공영조선소)▲秋雲燮(태평상회)▲洪喆洙(서독약국)▲洪學英(경남상회)▲金周燮(동림수산)

東草市功勞市民錄을 制定 審議委員會서 登載決定 유공자기록 영구 보전

東草시는 시조례(91.12.23)제1394호로 공로시민록을 제정, 시행규칙773호(92.7.25)로 공로시민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공자를 영구히 기록, 보전키로 했다. 등재대상자는 ①정부(외국포함)로부터 훈장, 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②속초시 문화상을 받은 경우 ③중앙단위 각종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 ④속초시민 또는 이고장 출신으로서 나라와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하기로 했다. 대상자추천및 신청은 본인 또는 그대리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자료에 의해 시장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고 이외는 대상자를 시의회 의장, 각급기관 단체장, 각급학교장, 시의 실과소 동장이 추천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시장이 당연직), 부위원장, 위원 7명등 모두 9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다. 등재가 결정된 공로시민은 순금3돈반짜리 기념메달을 매년 설악제행사때 시장이 수여하고 등재기록은 시가 영구히 보전한다.

속초

우리는 아직 피난민이다

철조망 거두고 늠름히 걸어갈 수 있다고
그날이 곧 온다고
살아갈수록 잠들지 못하는 북청사자들이
실향의 겨울을 울고 있다

두고온 북녘 하늘 부르며
무너진 원산행 철교 위를
청초호 갈매기떼 끼룩이고
위대한 봄은 도착하지 못했다

숯처럼 쓰러져 있는 이 도시의 성
길조차 함박눈이 지워버리려는데
피난민 실은 목선이
어슴 새벽을 떠가고 있다.



채 재 순 / 시인

<약력>

- 1963년 강원 원주 출생
- 1992년 2월 심상과 KBS공동주최 문예 공모에 시 '속초'로 1회 추천 받음
- 1992년 10월 통일문예작품 공모에 최고상인 부총리상 수상
- 현재 속초중앙국민학교 교사로 근무

아버지의 새벽

다 식은 새벽을 데우느라
아궁이 앞에서 청솔가지 넣기에
바쁘시던 아버지

채 재 순

청소부 비질 보다 앞서 깨이는
선잠 탓하시고
쓰레기 들고 오르내리는 비탈길에
허리 두드리시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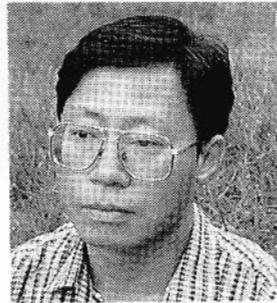
부엌을 개량한 뒤엔
통 할 일이 없다며
새벽잠을 청해보지만
살아갈수록 새벽은 길더라고
꿈은 언제나 자막처럼 설명하다고

꼬리를 문 생각들이
대문 틈 사이로 솔솔 기어들더니
아버지 방 문턱을 넘어
바스락거리며 들어오고 있다

갓 마흔에 얻은 외동 아들마저
대처로 떠난 방구들이어서
더욱 시려오는
아버지의 새벽.

저항령 투구꽃

저항령 통해 황철봉 가는 길
우툴두툴 돌들 참 많네
계곡물에 잠긴 길을
돌에게 묻고 나무에게 물어
마침내 올라 앉은 봉우리
노오란 돌채송화 작은 꽃송이
노랗게 절정의 바람은 혼들리네
엉겨붙은 바위들의 고요한 주검
검버섯 돌아나듯 세월만 살아
쉽사리 구원을 말하지 않네
절망조차 말하지 않네



장승진

하산길에 몇번이나 넘어지며 보았네
칠부능선 그늘 속
투구꽃들 모여앉아
그 절정의 침묵을 지키는 걸
잠시도 투구를 벗지 않는 걸.

<약력>

- 심상 신인상 등단
- 「갑외」동인
- 영북문학회 회원
- 동광농공고 교사

돈벌레

돈벌레이야

시골농부 잠든사이 설설 기어다닐

돈벌레이야

깻모 못 옮기는 봄 가뭄에서

강남콩 썩어드는 장마속까지도

또는 무심한 어둠속에서도

치렁치렁 치마꼬리 잡고 허등대는

돈벌레이야

꼭 움켜쥐어도 손아귀사이로

슬슬 빠지는 이 시대 슬픈 농부들의

돈줄을 찾아다오

햇빛에 그을른 얼굴

논도랑에 개구리 시름없이 풍당거리고

걷어울린 바지가랑이에 진흙덩이 자꾸 매어달리고

폭폭한 세월

내던져버린 삽자루 썩어가네

흔들리는 깨꽃, 어두운 산 그늘아래

농부의 어깨와 함께 흔들리는 깨꽃

돈벌레이야

바람벽 타고 다니며 스멀스멀 웃지말고

숨어도 숨어도 보이는 가난한 농사꾼 옷자락 끌고

내 눈에 환하게 보이는

이 시대 돈의 물꼬를 터다오

물꼬를 터다오.



최영숙

<약력>

- 85 속초상고 졸
- 현 농협 고성군지부 근무
- " 설악문우회 갈뫼 동인

제3회 학생 백일장

제3회 학생백일장이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의 주최로 92년 5월12일 수복탑 놀이광장에서 3백71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문과 시 부문에서 채주를 겨루웠다. 이날 백일장에서 산

문에서 장원한 중고생의 작품을 게재했다.

심사위원은 ▲尹弘烈(문인협회 지부장) ▲朴明子(문인협회 부지부장) ▲이희갑(문인협회 사무국장) ▲채재순(문인협회 회원).

중등부 산문 장원

어머니

설악여자중학교
2학년7반 이영미

“때르르르……!”

새벽 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깨우는 아버지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온다. 어머니는 금새 일어나겠노라 하시고는 또다시 잠에 취해 버리신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안스러운듯 쳐다보시고는 장사 가셔야할 어머니를 깨우시지 못하신다. 그럼 나는 일어나서 어머니옆으로 간다. 어머니는 내가 옆에 있는 걸 눈치채셨는지 부시시 눈을 뜨신다. 피로한 어깨는 축들어졌지만 어머니는 일어나셔서는 옷을 입으신다. 어머니 손에는 용달차 열쇠가 들려있다. 벌써 2년째 된다. 배를 타시던 아버지가 사고가 나셔서 집에 누워 계시게 되자 어머니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용달차를 사셨다. 그리고는 한번도 해 보신 적 없는 장사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친척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누워계신 아버지와 우리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운전을 시작하셨다. 처음 장사를 하고 오신날은 3일동안 아무일도 못하셨다. 차를 타고 일곱시간 거리를 가셔서는 보통 40키로그램이 넘는 골뱅이 가구를 차에서 내려서는 다시 큰 냉장고에 집어 넣으셔야 한다. 여자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요즈

음 어머니는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다. 시계보다 먼저 일어나시기도 하신다.

어머니는 장사를 시작하신지 1년쯤 되던해에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늑초가 되어서 오셨다. 아버지는 몹시 걱정하셨다. 엄마는

“별일 아니예요.”

하시고는 저녁도 안잡수시고 이불속에 들어가셨다. 아버지는

“동생이랑 자”

하시고는 누으셨다. 밤11시가 될쯤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건넌방에서 알아들을 수 없도록 멀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뭔가 말하고 계셨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영미 정훈이 학교는 어찌라구! 흐흐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곧이어 아버지 목소리도 들렸다.

“나쁜 놈들”

하는 한마디 말이였다. 조용히 이야기 듣다보니 어떤 일인지 대강 알 수 있었다. 물건을 받던 사람들이 도망을 간 것이다. 사백만원 가까이 돈을 도둑맞은 것이다. 사백만원은 우리 가족에게는 큰 돈이다. 뼈에 사무치도록 서러운

중등부 산문 장원

일이다. 그자리에서 울어버렸다. 소리도 안나는 눈물이었다. 그저 서럽기만한 이 세상 밀기만 하고 죽고만 싶었다.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일찍 아침을 잡수시고 또 나가셨다. 어머닌 내가 간밤에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엄마 장사하러 가. 아버지 걱정 안하시게 일찍 들어와서 정훈이 밥줘.” 하셨다.

“엄마, 엄마” 가슴 속에서 끓어 오르는 한마디 말 ‘엄마’였다. 다 알고 있는데, 간밤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짓말 인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 당부하신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왔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았다. 빨리 집에 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집에 들어왔다.

“아”

예감이 불길한 대로였다. 아버지는 부엌에 엎어져서 앓고 계셨다.

“아버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를 안았다. 가벼웠다. 누워계신 2년동안 훨씬 가벼워진 몸무게는 나를 슬프게 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방으로 모실수가 없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다.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울기는 처음인듯 싶었다. 2년간 우리집 기둥이었던 엄마마저 옆에 없으니 서러움에 무서운 마음까지 깊이 내 가슴을 찢었다.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는데 차소리가 났다. 엄마다. 표범에게서 도망나온 토키가 엄마를 찾은만큼 큰 기쁨이었다. 이번에는 종전과는 다른 이상한 눈물리 불과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집 가장은 제가 할께요. 힘든 부모님모습 보기 싫어요. 단지 제 옆에 계신것으로 족해요. 정말로’ 가슴속 깊이 이 말이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했다. 나만이 아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했다. 그리고 가슴깊이 기쁨으로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고등부 산문 장원

오월의 빛

속초여자고등학교
1학년3반 노우영

깨어진 사이다병 조각에도 오월의 빛은 따사로이 내리쬐고 끝이 없는 저 바다에도 금실은 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이 후하고 나정한 햇살아래 신은 하나의 기쁨을 더 주었다.

1976년 바로 오늘 이 땅에 아름다움과 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엄마의 고통과 아빠의 걱정을 뒤로하고 신은 씩씩한 울음으로나마 나를 보냈다. 하지만 내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주었는지 태어난 아기를 뒤로하고 산모에게만 매달려

서 걱정을 하게하는 서러움까지 겪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외할머니의 말씀을 빌린다면 내가 얼마나 우량아였는지 엄마가 나를 낳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실신까지 시켰다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수술실 전등불 아래에서 목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러운 울음 소리로 간호원 언니를 불렀다고 한다. 탄생때에는 특별히 엄마를 괴롭혀서 서러움과 구박을 받기는 했지만 자라면서 특별함은 없어지고 그저 평범함의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백일장이 열리는 날과 내 생일이 같은 날이 되어서 미역국도 못 먹고 오는 불행을 겪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흰 장미 한 다발을 받아서 기분이 좀 묘하다.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태어날 때 엉덩이를 맞아서 나오는 울음과는 다른 눈물이 내 뺨을 타고 내렸다. 내 곁에서 늘 장난만 치고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했던 국민학교 코흘리개 동생들이 내게 흰 장미 한 다발을 전네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신이 이 오월의 따사로움과 함께 이 세상에 내린 하나의 희망은 내 탄생이었다고 내 자신만은 굳게 믿고 싶다. 어린 시절에 올챙이 잡고 크로바 꽃을 따서 소꿉놀이를 할 수 있게 비춰 주었던 빛이 내게 신이 내려준 두번째 기쁨의 빛이었다고 생각한다. 논의 흙탕물 아래서 한가로이 노니는 올챙이를 요쿠르트병 두 개로 물아넣은 이 나쁜 어린이에게도 하늘은 파랗고 오월은 따뜻했으며 크로바 꽃을 찾아 언덕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내 친구의 머리위로 역시 눈부실만큼의 햇살이 감싸주었다. 그 때를 돌이켜보니 엄마의 품속에서는 잠이 들어서야 따스함을 느꼈었고 항상 같은 양을 모든 이에게 골고루 내

리쬐어 주는 햇살의 품속에서는 아이들과 놀던 사이에 서로의 눈빛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 햇살의 품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묻는다면 내 뒤를 돌아다니는 까맣게 탄 아저씨들의 발소리와 선생님 두 분의 웃음 섞인 대화 속에서 긴장됨과 다정함이 느껴진다고 하겠다.

신이 내린 세번 째 오월의 빛은 내 마음을 가꾸어 주었다는데서 기쁨을 찾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비추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만은 내 마음이 겨울철 비닐 하우스 속에서 자라나는 상치의 잎만큼 여리고 빵속에서 녹아 흐르는 크림만큼 부드럽다고 생각한다. 작은 일에도 지나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내 주머니의 먼지까지 털어 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내게 여태껏 뿌려 주었던 빛에 대해서 웬만큼은 보답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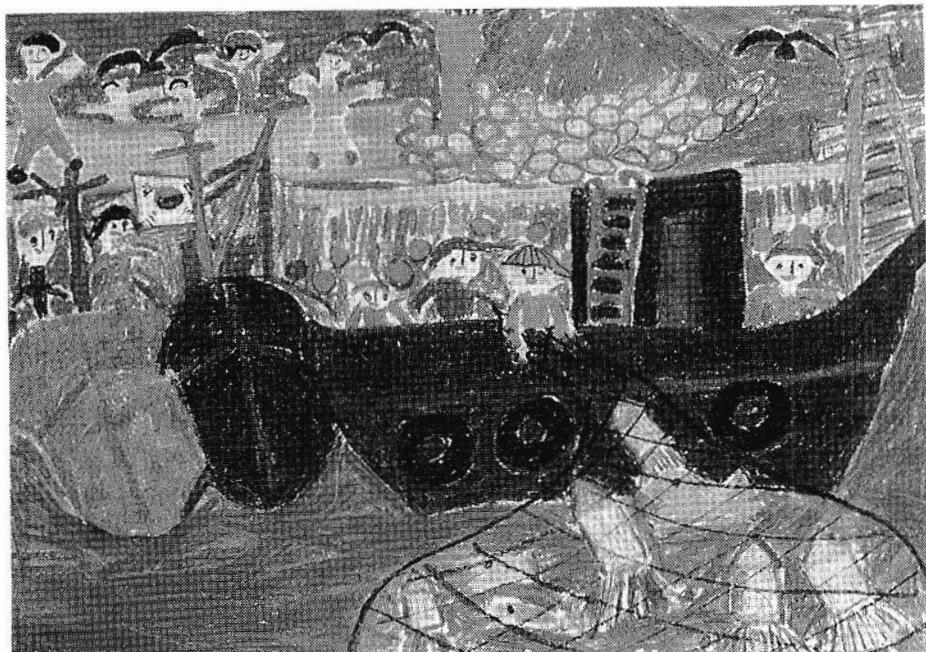
정신없이 글을 쓰다보니 해가 구름속에 숨어서 하늘이 젯빛인지도 몰랐다. 해가 언제나 다시 얼굴을 내밀려는지 파도가 어깨보다 심하게 치고 있다. 국민학생들의 노랗고 빨간 옷에 배인 오월의 빛이 웬지 더 따스하게 느껴진다.

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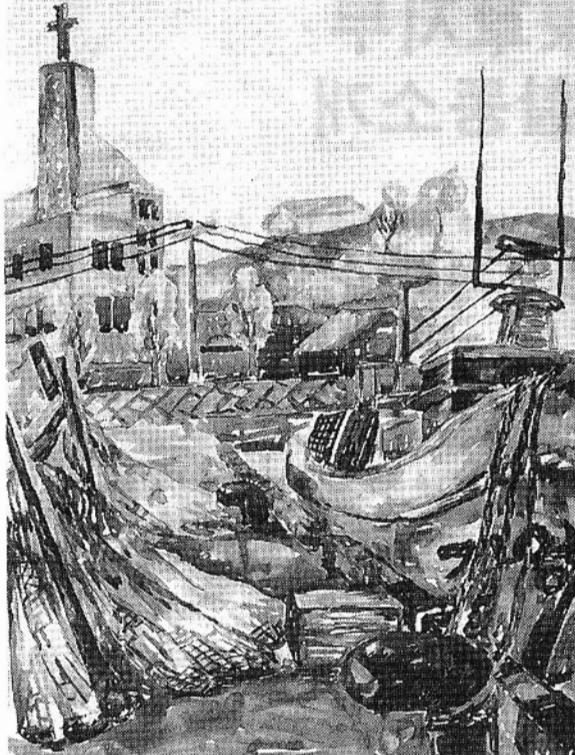
때: 1992. 5. 23~26 전시

곳: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주관: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국민학교부 金賞
중앙국교 하 지 영



고등학생부 金賞
속초고교 3년 장 준 규



고등학생부 銀賞
속초여자고등학교 2년 문 미 진

예총 束草지부 92업무활동소개

◇제2회 학생예술상 수여식

李光秀예총 속초지부장이 2월10일~13일 까지 학교별로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김선이(속초상고)▲조병걸(속중)▲전수경(속여중)▲전정용(설악중)▲최은경(설악여중)▲김현식(속초고교)▲강정희(속초여고)

◇제2회 하늘소리와초나들 라이브콘서트

92년 3월22일 오후2시와 6시반에 2회에 걸쳐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했다. 관람인원 5백명.

◇제3회 청소년 건전 가요제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92년 4월12일 오후2시 1백61개팀의 신청받아 예심을 실시. 20개팀을 선발. 본선을 실시했다.

◇예총 속초지부 임시총회



정기총회

92년 4월25일 오후2시 속초 힐탑호텔 회의실에서 金光秀지부장의 임기만료로 새임원을 선출했다.

예총지부 새임원

◆고문 ▲김광수(미술) ◆지부장 ▲김영복(미술) ◆부지부장 ▲장규호(연극)▲사상철(문인) ◆간사 ▲윤홍렬▲박명자▲이희갑(이상 문인) ▲이동명▲김광희▲최낙민(이상 미술)▲김인환 ▲김귀선(이상 연극)▲한기학▲오세권▲홍철(이상 연예)▲▲심연홍▲김영일▲임수철(이상 음악)▲박종성(행정).

◇극단(굴렁쇠) 다섯번째 아동극 공연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는 「토끼를 찾습니다」(원제:별주부전)를 92년 5월2~3일(연6회공연) 간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했다.

◇제3회 속초종합예술제

한국예총 속초지부는 92년5월10일~2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제3회 청소년 건전 가요제 오후2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 연예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3회 학생백일장. 문인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5월12일 수복탑 놀이마당에서 개최.

▲제3회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는 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5월12일 수복탑 놀이마당에서 개최.

▲제3회 학생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가 5월23일~25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문인협회, 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전시.

▲제2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 경연대회가 5월22일~26일까지 연극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제3회 청소년 건전 가요제 입상자

▲대상(곡명:솔개)

최재은, 권정현, 윤성미, 최정미(이상 속초여고 2의6)

▲금상(곡명:유리벽)

체희순, 김정아(속초여고 1년)

▲은상(곡명:기도)

김태완, 김광일, 황종민(거진공고 전기과 3의2)

▲동상(곡명:물안개)

이은경(거진여고 2의1)

▲인기상(곡명:사랑으로)

최상훈(설악중 2의2)

▲가창상(곡명:찬바람이 불면)

박미영(설악여중 3의5)

▲장려상(곡명:옛이야기)

윤미숙(설악여중 3의1)

◇제3회 학생 백일장 입상자



학생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 산문

▲국민학교 저학년부

장원:한승연(속초국교 2의4)

차상:이상엽(속초국교 2의1)

차하:최아람(속초국교 2의3)

▲국민학교 고학년부

장원:남희(설악국교 5의2)

차상:문미원(속초국교 5의5), 박은주(중앙국교 6의3)

차하:박민경(설악국교 5의1), 최현미(영랑국교 6의6), 유혜정(중앙국교 5의3)

▲중등부

장원:이영미(설악여중 2의7)

차상:이신희(설악여중 2의4)

차하:김정수(설악여중 2의4), 방은지(설악여중 2의2)

▲고등부

장원:노우영(속초여고 1의3)

차상:강은아(속초여고 1의1)

차하:문정림(속초여고 1년)

○ 시

▲국민학교 저학년부

장원:박은정(중앙국교 3의5)

차상:안선영(양양국교 2의1), 황정민(속초국교 2의1)

차하:최상연(설악국교 3의1), 홍성봉(속초국교 2의5), 송유미(중앙국교 2의3)

▲국민학교 고학년부

장원:최길순(영랑국교 6의2)

차상:안주희(양양국교 6의3), 정예원(중앙국교 5의3)

차하:김혜림(설악국교 5의2), 신진섭(속초국교 4의1), 하인희(속초국교 5의4), 김나영(중앙국교 4의3)

▲중등부

차상:이미숙(설악여중 1의6)

차하:안명향(설악여중 2의3), 김나영(설악여중 1의6)

▲고등부

장원:유선영(속초상고 3의2)

◇제3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수상자.

▲국민학교 저학년부

금상:이지현(속초국 1의1)

은상:유경미(영랑국 1의3), 오수연(중앙국 1의4)

동상:이선영(중앙국 1의4), 안은미(영랑국 1

예총東草지부 92업무활동소개

의1), 장성훈(양양국 2의4)

▲국민학교 중학년부

금상:이지영(중앙국 3의5)

은상:이은혜(임호국 3의1), 오민택(설악국 3의2)

동상:이하나(속초국 3의4), 김영준(중앙국 4의4), 최경록(중앙국 4의4)

▲국민학교 고학년부

금상:박민희(청호국 5의2)

은상:이서희(임호국 6의11), 고경옥(중앙국 6의1)

동상:엄종도(임호국 5의1), 이정은(속초국 5의2), 이미선(양양국 5의2)

▲중등부

금상:김보묵(설악중 1의3)

은상:장지선(설악여중 1의4), 김미나(설악여중 1의5)

동상:장승환(설악중 2의2), 정양숙(설악여중 2의4)

▲고등부

금상:장준규(속초고 3의1)

은상:김헬레나(속초여고 3의6), 문미진(속초여고 2의2), 최혜영(속초여고·한국화)

동상:김현영(속초여고 2의4), 이현숙(속초여고 3의7), 김화정(속초여고 2의5), 김창훈(속초고 3의2)

◇제2회 강원도 청소년연극경연대회

시상내역

◆최우수상(도지사상) ▲거진여자상고, 트로피·50만원

◆지도교사표창(도교육감상) ▲김정환(거진여자상업고교)트로피·20만원

◆우수상(속초시장상) ▲춘천 성수여자고등학교, 트로피·30만원

◆장려상(예총지부장상) ▲속초여고, 트로피·20만원

◆(교육장상) ▲속초상고, 트로피·20만원

◆무대미술상(속초문화원장) ▲거진여상고, 트로피·10만원

◆특별공로상 ▲(속초수협장상)정미현(속초여고)▲(한전 속초지점장상) 전지숙(속초상고) ▲(우체국장상)유주미(춘천성수여상) ▲(소방서장상)한미정(거진여상고) ▲(세무서장상)강구화(삼척 삼일고교)

◆연기상 ▲(전화국장상)윤명숙(속초여고) ▲(상공회의소회장상) 장은경(춘천성수여고) ▲(해양경찰서장상)이기하(삼척 삼일고교) ▲(지원장상)강경하(속초상고) ▲(검찰지청장상)박지숙(거진여상) ▲(경찰서장상)이혜영(춘천 성수여고).

◇학생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전시회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와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공동주관으로 5월23일~26일까지 4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교육극단『사다리』초청공연

예총 속초지부(지부장·金榮福)는 92년 6월28일(2회공연)과 29일(3회공연) 이틀동안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최영에 연출, 이애경, 박현숙, 이미희, 조승임, 유진우, 김건표 출연의 「사다리」를 공연, 연1천5백명이 관람했다.

◇청소년 정서함양 강연회

예총 속초지부는 92년 7월4일 오후3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차범석(전 청주예대학장, 극작가, 예술원회원), 이성선씨(시인)등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강좌가 있은 다음 제2부에서 부채춤, 춤 그리고 춤, 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대신대놀이춤 12마당), 농악 등을 공연해 인기를 끌었다.

◇성남예총과 자매결연

예총 속초지부는 지역간의 예술문화 교류를 통한 예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예술문화 창달을 꾀하기 위해 92년 7월11일 속초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남예총(8개협회 지부)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제27회 설악제 경축 주부가요제



제27회 설악제기념 주부가요열창 본선

행 태국 3박4일

◆우수상 ▲신순애(곡명:내하나의 사랑은 가고)25인치 칼라TV

◆장려상 ▲김귀자(곡명:구월의 노래)숙녀정장 1벌

92년 10월2일 오후2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예총 속초지부 주관으로 8백50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부가요제가 열렸다. 입장자는

◆최우수상 ▲김용원(곡명:이태원연가)해외여

◇제27회 설악제 경축 연극공연



제27회 설악제기념 연극공연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는 92년 10월3일과 4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극 「낯선여인의 함정」을 연4회 공연, 연9백명의 시민들이 관람했다.

연출은 장규호씨, 김귀선, 박영미, 황현중, 김봉준, 허현미, 장규호, 권성진, 곽병옥, 조호석씨 등이 출연, 무대예술 김형관씨, 음악·효과 남상

진씨, 제작 김인환씨가 맡았다.

◇제16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지부장·李東明)는 92년 10월28일~11월1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金榮福(예총지부장) 양화(풍경)를 비롯, 한국화, 조각, 공예, 서예등 45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東草文化院 올해 추진사업

◇국립 국악원 초청공연

시민을 위한『국악의 밤』열어

시민들에게 고급 음악(궁중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그 음율에 동화시킴으로써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국립국악원을 초청, 단오제 행사를 빛내는데 그뜻을 두었다.

이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급 전통 음악에 대한 우수성을 체감으로 유도하면서 고급 음악예술의 접촉 기회를 넓혀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국악의 밤을 열었다.

92년 6월2일 오후3시반 7시반 2회에 걸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는데 공연 프로그램은

◎함녕지곡

▲대금:이철이, 윤병천 ▲피리:곽태규, 황규상

▲해금:문경종 ▲좌고:양승경 ▲장구:정희석

▲당적:채조병 ▲아쟁:안무혁

◎회심곡

이금미, 조경희

◎가야금 산조

이지영 ▲장구:정희석

◎단소독주

곽태규

◎승무

홍웅기 ▲장구:김청만 ▲대금:박천택 ▲피리:박승률, 한세현 ▲해금:김성아

◎경기민요

이금미, 조경희

▲장구:김청만 ▲대금:박천택 ▲피리:박승률, 한세현 ▲해금:김성아

◎사물놀이

남기문, 조감용, 최병삼, 백진석

▲진행:전명숙, 곽태현 ▲악기, 의상:박규환, 박인춘 ▲음향:황수현

◇문화 사랑방(문화원)신축

속초시는 시범문화원으로 승격, 문화원에 문화사랑방을 마련하기 위해 시비 7천9백90만원을 들여 현 문화회관 별관3층에 철근콘크리트 라면조, 건평 56평규모의 문화사랑방을 92년 7월25일 착공, 11월21일 준공했다. 40평규모의 강당에 최신 영상 음향시설 4천63만원들여 가설(노래교실 포함), 피아노, 칠판, 읍음시설, 냉온방시설등 총 8천2백만원(지원 7천3백만원)으로 60명을 수용하는 시민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문화사랑방은 매일오전 10시~오후9시까지 전통음악을 비롯, 영상·음향시설을 통해서 명곡과 명화를 상연하여 시민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또 문화학교를 개설해 전통문화의 맥과 슬기로운 음률을 소개하는 강좌를 비롯, 유아건강 강좌, 각종 식생활 개선강좌, 문학강좌, 꽃꽂이 강좌, 서예강좌, 취미, 오락을 위한 장기, 바둑강좌, 건강관리 강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는 종합문화센터 기능을 다하게 된다.

◇제10회 도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연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92년 9월4일 강릉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속초시 민속놀이팀 55명이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작품으로 출연, 노력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무녀 빈순애씨등 15명과 동우전문대 학생 40명으로 구성, 속초시 대포동 물치부락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축제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작품의 고증은 張正龍교수(강릉대)가 맡았고 속초시 청호동 4통2반 金명익씨가 해설을 담당, 도민축제에서 대단한 인기를 차지한바 있었다. 이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빈순애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전수장학생이고 속초시 출연팀은 9월4일 오전 11시반에서 정오까지 30분간 열연했다.

◇ 가곡과 영상음악의 만남

속초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92년 10월20일 오후7시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가곡과 영상음악의 만남」을 공연기획 예술세계 주관으로 제1부에서 「비발디(1678~1741)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차이코프스키(1840~1893)의 발레 「백조의 호수」작품20, 비제(1838~1875) 오페라 카르멘에서 「전주곡」「하바네라」「투우사의 노래」「꽃노래», 크판로그(서아프리카 민속음악, 사물놀이) 등을 감상했고 2부에서는 초청연주엔 소프라노－양혜정, 바리톤－고성진, 피아노－정미애, 가곡:그리운 금강산(최영섭), 꽃구름속에(이홍렬), 산촌(조두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입맞춤(아르디티), 산타루치아(이태리 민요), 해설은 음악평론가 탁계석씨가 맡았다.

◇ 속초의 향토민속 발간

속초문화원(원장·池一權)은 張正龍교수(강릉대 국문과)에게 속초의 향토민속을 연구의뢰, 이로써 張교수는 이고장(속초)을 지키면서 가꾸어온 이땅의 옛조상이 간직했던 풍속과 문화를 집대성한 속초의 향토민속을 발간해 내외에 시민들의 문화영역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92년 8월1일 발간된 「속초의 향토민속」의 차례를 보면 제1장 속초민속의 개관, 제2장 속초민속의 내용(1절－세시풍속, 2절－통과의례, 3절－의식주, 4절－민간신앙, 5절－민속놀이, 6절－민요, 7절－설화), 제3장 속초민속 연구및 조사자료(1절－설악산 심매마니 연구, 2절－속초 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 조사, 3절－속초 무가자료)등이 수록되어 있고 총 2백6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 효행 청소년 표창

속초문화원은 청소년 선도사업의 하나로 경노효친 사상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옮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효행에 지극한 모범학생들을 표창했다. 92년 2월6일~22일까지 초중고교 졸

업식장에서 효덕지를 갖춘 모범학생들을 포상했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종원(속초국교) ▲홍지은(중앙국교) ▲조민석(교동국교) ▲함용두(영랑국교) ▲장지선(온정국교) ▲정지림(대포국교) ▲김기림(온정국교) ▲김희준(속초중) ▲김영미(속여중) ▲최우영(설악중) ▲문정림(설악여중) ▲박창재(속초고) ▲신금정(속여고) ▲이은현(속초상고)

◎여름독서교실 모범학생

▲김영인(영랑국교)

◇ 문화유적지 순례

속초문화원은 회원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인식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옛 선열들이 이룩한 찬란했던 문화유적지를 탐방해 문화민족의 궁지를 높여 질서의식 함양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 스스로 우리문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92년 11월11일~13일 까지 2박3일간 경주지구의 화랑교육원을 비롯, 황룡사지, 불국사, 석굴암, 안암지 출토유물등 살피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이 순례는 문화원 예산 3백만원과 회원 찬조 1인당 2만5천원으로 경비를 충당했다.

◇ 속초문화 제8호 발간

속초문화의 92년도 제8호를 7호와 같은 규격으로 면수 124(Page)로 92년 12월15일 발간, 문화사랑방 개관식때 회원과 내빈들에게 배부한다. 속초문화8호는 특집에서 ①속초시 조양동의 청동유적지 및 유물 ②국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계조암의 정토사원 보존문제 ③향토기업의 마스터 플랜 ④영북지구 경제 활성화 방안 ⑤어촌의 풍속등 이고장문화의 뿌리와 보존문제를 심도있게 취급하면서 2천년대 속초경제의 전망등을 조명하고 시민들에게 밝은 미래상을 제시했다. 또 27회 설악제를 집중으로 조명하기 위해 화보를 게재했고 北青사자놀이를 부각시키고 문화유적지순례기를 실었다.

조선극장

◇ 단편『조선극장』은 재 구소련 작가 한진선생께서 한소 국교수립전 처음 모국을 방문한 재소 예술인인데 국내 방문후 첫번째 91년 11월20일 속초문화회관 회의실에서『구소련 거주 조선족 문화예술인의 활동현황』을 초청 특강으로 강연했다. 한진 선생은 1세기에 걸쳐 제정 러시아, 스탈린 시대 독재등으로 학대받고 구박을 받던 재소 조선족은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용기와 지혜를 소개했고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유랑하던 참혹상도 소개한 韓鎮선생의 단편소설「오늘의 빛」중에서 우리예술의 애환을 그린 「조선극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9호에도 조선족(한국인)의 애환을 담은 단편을 계속 실기로 했다.

【편집부】

在蘇作家 韓鎮

『조선극장』



1932년 원동변강조선극장이 블라지워쓰또크 꼬레이쓰까야 쓸로본까 즉 해삼 신한촌에 자리를 잡고 조직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로령원동조선사람들의 수도라고 불리운 신한촌은 아무르만의 푸른 물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거기에는 9년제학교,

《쓰랄린》구락부, 《선봉》신문사, 당학교, 로동학원, 조선말라지오방송국, 조선사범대학 등 조선 사람들의 문화교육기관들이 집중되어있었으며 또 오래전부터 조선의 애국열사들이 광복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략과 전술을 닦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신한촌은 많은 인재들을 양성

하여 원동의 쏘베트주권 수립과 조선해방운동에 큰 기여를 한 유서깊은 곳이다.

블라지워쓰또크시가지에서 올라오느라면 신한촌 입구에 《독립대문》이 높이 솟아있었다. 신한촌은 꾸릅쓰까야 빠지-소위 《개똥거리》와 베르와야 레츠까-속칭 《거우재》를 이웃하고 있었으며 촌안에는 하바롭쓰까야, 아무르쓰까야, 멜리니꼽쓰까야, 젤레즈노도로즈나야 거리들이 평행으로 지나가고 그것들을 이으며 서울거리가 가로 질러 내려가고 있었다. 촌 중앙에는 9년제학교 교사들인 2층 3층 벽돌건물이 있었고 《쓰딸린》구락부, 전료소, 주택공리조합사무소, 공리사식료품상점들이 있었다. 아무르만을 따라 블라지워쓰또크에서 모쓰크와로 가는 급행렬차는 신한촌에서 한눈에 바라다보였다. 신한촌은 참 경개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쏘베트주권이 수립되기전에는 《한민학교》가 관립으로 있었고 그 밖에 《장로교》의 《백산학교》와 《삼일녀학교》, 《감리교》계통의 《영신학교》, 《단군교》의 《동홍학교》가 있었고 또 《천도교》와 《회립교》계통의 학교들도 있었다. 《회립교》계통의 학교에서는 순전히 로어로 교수를 하였다. 그리고 블라지워쓰또크시 김나지야에서 공부하는 조선학생들도 많았다.

1920년 4월에 정변이 일어났다. 들이켜보건대 그것은 바로 3.1운동이 있은 한해 후의 일이였다.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신한촌학교와 신문사를 불사르고 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놈들은 신한촌에 《헌병대》를 설치하여 일본을 반대하여 싸우는 독립투사들과 그들을 동정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눈에 쌩심지를 돌구고 발악하였다. 일본헌병대의 앞잡이로 개질을 하는 놈들도 있었다. 그러나 신한촌에는 독립운동과 혁명운동이 죽지 않았다. 리동휘선생의 동료들이 지하공작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일본과 기타 외국침략자들이 블라지워쓰또크에 상륙하며 백파간당들을 도와 서로 자기 주권을 세우려고 날뛰던 때였다.

바로 이때 해삼 신한촌에는 《조선신파숙청단》이란 극단이 조선에서 들어와 순회공연을 하였다. 그 극단은 광고를 굉장히 하였다. 단원들이 분장을 하고 기발을 휘날리며 음악을 울리며 온 거리가 들썩하게 광고를 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극장이 없은것만큼 연극은 마당이 아니면 집을 안에 무대를 짓고 화불로 무대를 밝히며 놀았다. 숙청단의 공연은 어느 때나 만원이였다. 우리 어린이들은 입장권을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지붕에 올라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타리 밑을 파고 기여들어가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잡혀 발길에 채우며 쫓겨나는 일도 있었으나 하여튼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구경을 하곤 하였다. 구경만 한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들은 입내를 내며 놀아보기도 하였다.

그 시기 연초공장 청년로동자들속에는 중국 창시에 열중하여 창시놀음과 《청룡도》쓰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많았다. 실례로 후날 조선극장 부총장으로 일을 한 정후경은 중국곡조로 《한량아, 잘 있거라》를 잘 불렀으며 《청룡도》칼부림을 능란하게 하였다. 그는 몇해후 태장춘작 연극 《종들》에서 그 재간을 홀륭하게 시위하였다.

또 그때 신한촌에는 《천도교》관현악단이 있어서 조선음악과 노래, 바이올린독주, 로씨야 및 우크라이나 춤으로 작성된 공목을 가지고 조선에 순회공연을 나갔던 일이 있으며 백의동포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원동에 쏘베트주권이 서기전에 있었던 신한촌 조선사람들의 예술문화생활의 일명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1922년 시월 드디어 일본무장간섭자들은 영원히 블라지워쓰또크에서 쫓겨나고 원동병강에는 완전히 쏘베트주권이 수립되었다. 바다건너로 쫓겨가는 마지막 일본군함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목이 터지라 만세를 불렸다.

해마다 3.1절이 돌아오면 블라지워쓰또크 시립극장이나 《원동공장 문화회관》에서 3.1절경축

조선극장

대회가 진행되었는데 회의뒤에는 3.1운동을 이야기해주는 소인연극을 상연하군 하였다. 그때 나도 어른들과 같이 이 연극들에 참가하여 어린이역을 놀았다.

이때쯤부터 신한촌구락부에서는 연극을 자주 놀게 되었다. 《레완트》연초공장 로동자들이 출연하였는데 정후겸, 전위또르, 김익수, 리 나제즈다, 최봉도등이 그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9년제학교에도 교원들과 학생들이 연예부가 있었다. 거기에는 연성용, 최길춘, 김해운, 한영혜, 채경신과 필자 등이 망라되고 있었다.

또한 신한촌에는 관현악단이 있었다. 악단의 악사들과 그의 지도자들인 리 인노엔찌와 김니꼴라이는 재간있는 음악가들이었으며 대중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군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 관현악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한촌의 조선사람들은 블라지워쓰또크시 시위행렬에도 자랑스럽게 참가할 수 있었으며 생활이 한층 더 유쾌하고 즐거웠다. 이 관현악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행진곡과 고전음악을 익힐 수 있었으며 또 그의 무도곡에 맞추어 춤장에서 춤도 췄다. 특히 이 악단이 참가하는 연극은 그 효과가 훌륭하였으며 연극의 가치를 높였다.

신한촌구락부 연예부에는 재간있는 소인연극 배우들이 많았다. 그들은 로씨야극장에도 관심을 두어 그들에게서 연기를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한번은 하리꼬브극장이 블라지워쓰또크에 와서 공연한 일이 있는데 신한촌구락부의 연예부 부원들은 매일 같이 극장에 드나들며 연기를 보았으며 어떤 장면들은 자기들의 무대에 옮기는등 열성을 다하였다. 실제로 꼬르네이추크작 《류보위 야로와야》를 상연했는데 신파식 연기와는 달리 사실주의적인기를 보이려고 노력하였으며 의상도 세를 내다가 쓰면서 아주 전문적인 극단의 면모를 방불케 하였다.

신한촌연예부 사업에는 또한 《메즈립쁨》(국제로동구제위원회)제품인 조선영화 《도적》이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이 영화에 참가한 배우들은 모두 신한촌사람들이었다. 그중에도 최봉

도와 김익수는 주인공의 역들을 담당하였다. 나는 1930년 겨울 모스크와영화대학에서 공부할 때 《지나모》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다. 내용은 이러하다. 한 조선학생이 미국전도사의 집 울타리밖으로 뻗어나온 사과나무가지에서 사과를 따먹은것이 죄가 되여 그 전도사는 불들린 그 아이의 이마에 도적이란 《도》자를 새긴다. 이 이야기는 조선에서 정말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영화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최봉도와 김익수는 연출가와 배우들의 충고로 모스크와 영화대학으로 공부하러 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참가한 소인배우들은 촬영과정에 많은것을 배웠으며 더 열성을 발휘하여 후날 직업적배우들로 자라났다. 이 영화 한편이 쏘련조선사람들의 극장예술발전에 끼친 영향은 자못 크다.

한편 신한촌구락부에서는 자주 영화를 상영하였다. 구락부에는 다른데와 달라 영화해설자인 변사가 있어 구경꾼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어느때나 만원이였다. 영화는 소인예술단의 연기학습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1928년 봄에는 신한촌구락부에서 블라지워쓰또크 조선소인예술단의 연극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쓰딸린》구락부, 9년제학교, 당학교, 로동학원 연예부들이 참가하였다. 이 경연대회에서 《쓰딸린》구락부가 첫자리를 차지하고, 9년제학교가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경연대회는 블라지워쓰또크에서 조선사람들의 연극운동이 활발해지며 소인배우들의 연기수준이 높아가며 직업적 면모를 띠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쓰딸린》구락부의 소인배우들은 정말 훌륭한 연기를 부여주었으며 김익수, 혼일구, 정후겸, 최봉도, 리 나제즈다 등은 후날 유명한 배우들로 되었다. 9년제학교도 연성용, 최길춘, 김해운, 한영혜등 훌륭한 연출가들과 배우들을 배출하였다.

그후 신한촌에 로동청년극장-《뜨람》이 조직되어 《황무지》란 연극을 공연하였다. 극장지도자는 협사일과 연성용이였는데 그들은 레닌그라드 드라마극장 배우를 이 연극의 연출가로

초청하였었다. 아주 훌륭한 연극이였다. 그러나 『뜨람』은 이것으로 자기 존재를 끝내였다.

들이켜보건대 그때 우리 젊은이들속에는 극계나에 일생을 바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음의 길을 찾아 모스크와로 류학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쓰랄린』구락부 연예부 출신인 채영은 모스크와영대학 연출학부로, 9년제학교 연예부 출신인 최길춘은 동대학 배우학부로, 1930년에는 최봉도와 필자가 배우학부에 입학하였다. 그후 모스크와 루나차르쓰끼극장대학에서 연성용, 김영익, 전수라가 공부하였다며 황니나, 리경희 등이 극장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동무들이 후날 조선극장을 찾건하고 발전시키는데 골간으로 되였다.

조선극장의 일기

배우들은 저녁공연과 연습외에도 순회공연을 하였고 또 제순으로 무대장치와 소도구를 만들었다. 자기들의 등에 무대장치를 실어 날랐고 제힘으로 무대를 졌다. 『조선극장을 오늘의 이런 극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극장일군들이 그 어떤 곡경을 겪었는가』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들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불을 때지 못한 행방에서 7~8시간씩 쉬지 않고 연습을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월급을 회사하여 무대장치와 소도구를 만들었다…』—1935년 10월12일 『찌호오께안쓰까야 스웨스다』신문은 이런 기사를 실었다. 그때 극장에서는 일기를 썼다. 그중의 몇몇 기록이 지금 남아있다.

1935년 7월27일. 아침부터 맑던 하늘이 점심 후에 흐리기 시작하여 소낙비가 내리다가 저녁 6시에야 끊쳤다. 밤10시부터 12시까지 두채의 수레의 무대장치를 싣고 부두로 나갔다. 우리 배우들외에 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20명 더 있었다. 조고만 『가와사끼』선에 50명이 타고 무대장치를싣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 의논을 해본 결과 그래도 떠나기로 결정이 되여 밤한시에 따뜻한부두를 떠났다. 큰 다리를지나 나무가 무성한 해변을 벗어나니 광활한 바다였다. 배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인자 자리를

잡고 누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앉아 저녁겸 조반겸 식사를 하였다.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와 배전을 갈겼으나 배는 그냥 앞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폭풍이 일어나 배는 좀처럼 움직이질 못하였다. 모두 말없이 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드디어 큰 파도가 갑판을 내려덮었다. 한 녀배우가 물결에 밀려나가다 누구였던지 그의 발목을 틀어잡고 겨우 바다에 떨어지진 않았다. 그 대신 모든 문서가 든 리 니꼴라이의 가방이 물이 질편한 갑판 우에 누워들 있었다. 근 일곱시동안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기슭에 배를 대였다. 무대장치를 내리워 수레에 싣고 구락부까지 날랐다.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녀자들은 쉬라고 보냈다. 무대에서 자게 되여있던 젊은 배우들이 춤을 조직하여 폴호스의 청년들이 몰려와 들썩하였다.

1936년 8월 5일. 조반을 먹고 무대장치를 거두었다. 수레가 없어 부두까지 무대장치를 지여 날랐다. 점심후에 작은 『가와사끼』에 올랐다. 몹시 파도가 심하였다. 7시반후에 따우제미에 이르렀으나 파도가 거세여 배를 부두에 댈 수가 없었다. 운이 사나워 발동기까지 꺼져 더욱 난처하였다. 공청원 다섯명이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그런데 리동빈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리 인노엔찌가 바줄을 몸에 매고 물에 뛰여들어 그를 구원하였다. 공청원들이 기슭에 올라 배를 끌어당겼다. 널빤지로 내림대를 만들어 무대장치를 부리웠다. 우등불을 피우고 옷들을 말리웠다. 수레를 구해오라고 세사람을 출장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리동빈이 구원되었다고 『축하연』을 벌렸다. 아침 다섯시에 무사히 따우제미에 도착하였다.

1937년 5월 5일. 항구까지 거의 다 왔는데 폭풍이 일어났다. 우리 배를 끌고가던 견인선의 바줄이 베껴져 우리 배는 다시 바다로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배우 김호남이 베껴진 바줄을 허리에 감고 이 얼음물에 뛰여들어 견인선을 향하여 헤엄쳐갔다. 사람들은 모두 기가 죽어있었다. 어느때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형편이었

다. 그런데 큰 파도가 김호남을 덮고 삼켜버렸다. 모두 그가 죽은줄만 알았다. 그런데 김호남은 다시 솟아나 무사히 견인선까지 가닿았다. 견인선은 우리 배를 끌고 항구에 들어섰다.

이 간단한 일기는 그 때의 조선극장 단원들의 혈기와 랑만, 헌신성과 단결성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극장 역사에 깃든 이런 이야기는 끝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전쟁 때 우리 배우들은 죽은 자식을 땅에 묻고 그 날로 무대에 나서서 희극을 놀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춰야 했다. 또 호례슴, 까라깔빠끼야지방의 처녀지개척자들을 찾아 길없는 길을 조선극장배우들은 걸었다. 이런 희생으로 하여 우리 관중들은 우리 극장을 사랑하는 것일것이다.

인민배우 김진

모스크와영화대학과 극장대학에서 공부하는 조선학생들은 해삼 신한촌에 조선극장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는 자고로쓰끼명청 정치망명가구락부에 모였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조선극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휘황한 극장의 앞날을 그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직은 모두 공부를 하는 몸이여서 당장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때 졸업론문을 쓰고 있던 영화대학 연출 학부학생인 채영과 배우학부학생인 최봉도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지었다. 1933년 3월초에 우리는 그들을 야로쓸립쓰끼역에서 전송하였다. 다른 학생들은 그 해 여름방학에 모두 귀향하여 신한촌에 모였다. 와보니 극장형편이 말이 아니였다.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없었고 배우들과 직원들은 반년이상 월급도 못받고 하여 극장은 해산되다시피 되고있다. 그러다가 주당위 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다시 복구하는 때였다. 이 때 나는 극장에서 처음 김진을 만났다. 김진은 고수머리에 몸집이 호리호리한 20세 안팎의 새파란 청년이였다. 알고보니 그도 나처럼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연극을 좋아하여 소인예술단에서 연극을 놀았다. 그러나 배우가 되려고 공상한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 정말 그 때 사정

을 보면 극장이 없었으니 배우를 희망 할 수도 없었다. 그래 정어리배에서 막일도 하고 밥끓이는 일도 보며 어부생활을 하였는데 하루는 《선봉》신문에 조선극장이 조직되었으니 배우를 희망하는 자는 청원을 드리라는 광고를 읽게 되었다. 이렇게 김진은 극장을 찾아와 조직 첫날부터 극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1933년에 회복된 조선극장은 다시 걸음마를 타기 시작하였다. 김진과 같이 재간있고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한덩이가 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극단창건 3년이 되는 해 드디어 연극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게 되였다. 이 연극으로 하여 조선극장은 완전히 직업적 극장으로 되였으며 조선근로자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되였다. 그 때 조선극장을 떠밀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 널리 알려진 연출가들인 채영, 최길준, 연성용, 화가인 방일추, 작곡가들인 리계르만과 오철암, 배우들인 김진, 리함덕, 최봉도, 리경희, 리장송, 태장춘, 김해운, 김호남, 박춘섭, 정두겸, 진우, 조정호, 김따찌야나, 리동빈, 공태규 등이였다.

《춘향전》의 배역은 다음과 같았다. 리도령에 김진, 춘향에 리함덕, 춘향모에 최봉도, 방자에 김해운, 신관사도에 공태규…

《춘향전》을 상연하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였다. 우선 연출가들과 배우들이 조선고전극을 한번도 본 일이 없으며 옛날 봉건사회의 풍습도 알躬이 없었다. 김진이는 리도령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였다. 봉건계급사회 의 제약성속에서 리도령의 민주주의적 사상을 거짓없이 보여주는 것은 더구나 불가능한 일이였다. 블라지워쓰또크한간에 내려가 로인들을 찾았다. 그들에게서 조선풍습 이야기를 듣고 량반들의 견음걸이, 몸가짐을 배웠다. 판소리를 잘하는 령감을 찾아가 그에게서 소리를 배웠다. 그리하여 김진이는 훌륭한 리도령의 형상을 쏘련에서 처음으로 창조하였다. 이것이 1934년의 일이다. 조선에서는 《춘향전》이 언제 처음으로 상영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쏘련의 조선극장에서 상

연한 《춘향전》은 대중의 절찬을 받았으며 우리 극장예술발전에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이 연극이 있은 후부터 민간에서는 김진을 거쳐 《도령》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조선극장은 1936년부터 로씨야희곡들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직업적인 조선희곡작가들이 없어 좋은 각본이 없은 것도 원인이였지만 로씨야극장문화를 흡수하여 배우들의 연기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1937년 5·1절에 즈음하여 조선극장은 뜨레노브작 《류부위 야로와야》를 상연하였다. 로씨야 사람들은 생활을 조선무대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조선극에서는 제법 손색없이 노는 배우들도 번역극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역시 연기의 제한성에서 오는 부족점이였다. 그러나 김진은 번역극에서도 훌륭한 연기를 보였다. 연극 《류보위야로와야》에서 김진은 슈완자의 역을 리행하였다. 김진이 창조한 슈완자는 비스듬해 해군모를 쓰고 부슬라트를 입은 소박하고 무식한 해병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혁명을 자기 목숨 같이 여기고 미래의 주인공으로서의 락천성과 고결한 심정을 가진 순수한 인민의 대표자이다. 그는 또한 익살군인 동시에 영웅적성격도 소유하였다. 김진이 창조한 이 형상은 관중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김진은 35년동안에 조선극장무대에 100여개의 역을 놀았다. 그중에는 우에서 말한 역들외에 태장춘작 《홍범도》의 홍범도, 《38선이남에서》의 김의사, 《장한몽》의 김중배, 《크레믈리의 종소리》에서의 기사 사벨린, 《검찰관》에서의 시장 로드니치, 오쓰뜨롭쓰끼작 《뢰우》에서의 지꼬이, 《오뗄로》에서의 오뗄로 등은 조선극장역사를 빛내기 한 형상들이다. 김진이 창조한 오뗄로의 형상은 쏘련 일류배우들이 창조한 오뗄로의 형상보다 못하지 않다는 절찬을 받았다.

김진은 조선극장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그는 자기에 대한 관중의 사랑이 커갈수록 거기에 보답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 참된 예술

에 봉사할 수 있음은 나의 큰 행복이다》라고 김진은 말하였다. 그동안 고생인들 얼마나 많았으랴. 조선극장배우들은 자신들이 배경을 만들고 짓고 날랐다. 수십리길을 무대장치를 지고 걷기도 하였다. 배가 파선되어 물에 빠진 일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카사흐쓰딴으로 이주해 와서는 새로 극장을 꾸려야 했다. 짚주리면서도 연극을 놀아야 했다. 당과 정부는 김진이 세운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영예표식》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카사흐공화국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는 그에게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하였다. 김진은 1966년 9월28일 연극 《북쪽길》을 연습하다가 서거하였다. 당년 53세. 너무나 애석한 죽음이였다.

김진의 무덤에는 《내가 간들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소냐》라는 비명이 새겨져있다. 이 말은 《춘향전》에서 리도령이 춘향이와 리별할 때 한 대사의 한 구절이다. 김진은 갔어도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전쟁시기의 조선극장

조선극장단원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순회공연을 하느라고 우스또베에 와 있을 때였다. 극단은 순회공연을 중지하고 서둘러 크슬오르다 본거지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극장은 전시체제로 넘어가 《모든것을 전선을 위하여!》, 《모든것을 승리를 위하여!》란 구호밑에 극장 레페르뚜아르는 물론 일체 생활을 개편하게 되였다. 극장지도부는 선전선동사업을 효과적으로 기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음악연주브리가다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해한 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극장이 있던 크슬오르 다시에 많은 군대병원이 후퇴하여 왔다. 우선 우리 음악연주브리가다는 부상병들을 위한 위안공연을 하게 되였다. 이렇게 조선 극장배우들은 조선예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파념도 없는 다른 민족들의 부상병들 앞에서 조선노래를 부르고 조선춤을 추게 되였다. 조선사람이 누군지 한번도 본 일이 없는 로씨야,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병사들이 우리 조

조선극장

선노래와 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저으기 우리 배우들은 근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근심이였다. 부상병들과 병원종업원들은 이동선전대의 출연을 몹시 기쁘게 맞아주었다. 무대도 없고 아무런 장치도 없었다. 병원 현관이나 병실, 병원 마당이나 랑하에서 출연하였는데 일어날 수 없는 부상병들은 침대에 누워서 구경을 하였다.

음악연주브리가다성원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리 게르만(지도자), 김진, 리장송, 박춘섭, 김호남, 리함덕, 김 따찌야나, 김 안또니나 차워또르, 리종식, 박철수 등이였고 필자는 꼰페렌찌야를 담당하였다. 출연을 하는 과정에 관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씨야노래들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 배우들은 밤에도 쉬지 않고 노래연습을 하였고 새춤을 배우고 시를 외우고 촌극을 연습하였다. 뽀로그람마는 합창에 《일어나라, 인민들아, 조국을 위하여》, 《모스크바방어자들의 노래》, 《제8근위대》등이였고 독창곡목에 《까흡까》, 《정다운 도시》, 《후조》, 《정찰병》, 《전송》, 《노란 꾀꼴새》, 춤은 《한산춤》, 《칼춤》, 《한량춤》등이였다.

조선극장배우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굳세게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용감한 붉은군대 군인들을 정성을 다하여 조선노래와 춤으로 위안하였다. 그들은 아마 이 때 처음으로 조선음악을 들었고 조선민족의 옷과 춤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감개무량하여 열광적으로 우리 출연을 환영하였다. 지금도 눈앞에 한광경이 떠오른다. 우리 출연을 보고 흥분한 부상병이

한팔은 봉대를 하여 박수를 할 수 없어 옆사람의 손에다 손을 치며 박수를 하는 것을 보았다. 부상병들을 위한 음악연주브리가다의 출연은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눈앞에 섬섬거린다. 특히 붉은군대창건 24주년 기념공연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942년 2월 23일 붉은군대창건의 날이였다. 우리 음악연주브리가다는 군대병원들의 꼬미쓰르의 초청을 받고 시경축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우리의 공연이 있었는데 정말 대환영 속에서 진행되었다. 정치부지도자 레이킨동무는 공연이 끝난후 조선극장배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의 말을 하였다. 《우선 나는 관람석에 모인 수백명의 부상병들과 의료일군들의 명의로 조선극장배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아 조선예술은 신음하고 있지만 쏘베트국가의 조선예술은 꽂피고 있다는 것을 동무들은 훌륭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무들의 노래와 춤은 우리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오늘의 음악회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재간 있는 조선극장배우동무들이 앞으로 더욱 큰 창작적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배우동무들, 감사합니다!》

그후 우리 음악연주브리가다는 전선으로 떠나는 군인들을 전송하는 모임에서도 출연을 하고 농촌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을 위로하여 출연하기도 하였다. 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우리 음악연주브리가다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文化遺跡地 巡禮記

1. 머리말

東草文化院에서 1992년도 사업으로 11월11일부터 13일까지 慶州를 중심으로 하는 文化遺跡地를 순례하였다.

慶州는 경상북도 동남부에 있는 新羅의 옛 서울이고, 신라의 發祥地로서 歷史時代의 유적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신라의 佛教藝術에는 경주의 佛國寺와 석굴암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그 밖에 塔· 범종· 불상등 우리나라 民族文化 위 최고봉을 자랑하는 것이 많다.

특히 우리一行이 경주의 황룡사지자료전시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北韓文化財寫眞展(문화부 주최)이 개최되어, 최근까지 말로만 듣던 先史時代의 문화유적을 직접 視覺으로 확인할 수 있어 意外의 큰 成果를 얻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韓民族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게 된 經路를, 前期舊石器時代(상원유적과 석장리)·中기구석기시대(역포인과 전곡리유적)·後期舊石器時代(상시인과 덕천인)로 나누어 보고 新石器時代와 청동기시대·鐵器時代를 거쳐 新羅의 문화유적을 살펴본다.

2. 祥原遺蹟과 石壯里

1)崔茂蔣, 韓國의 舊石器文化, 1986, P31.

2)손보기, 한국 구석기학 연구의 길잡이, 1988, P24.

우리의 祖上들은 舊石器時代에 만주·시베리아(siberia)등지에서 넓게 퍼져 살다가, 한동안 氷河(Gunz glacial)에 가로막혀 北쪽에 갇혀있던 갈래가 第1間冰期이후 만주·시베리아·韓半島등에 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0만년 전(상원유적)부터이며, 이들은 중국의 北京原人과 같이 直立步行하였다. 平壤市 상원군 祥原邑의 검은모루(黑隅里)유적은, 舊石器時代의 것으로 약 60~40만년 전에 해당된다.¹⁾ 이 洞窟遺蹟은 상원읍에서 3km의 거리에 있는 석회암 언덕의 남쪽 비탈에서 발견되었다. 石灰岩洞窟의 길이 약 30m 범위 내에서, 물소·말·원숭이·코뿔이 등의 動物化石과 사람이 사용한 석기가 1966년에 출토되었다. 祥原 유적에서 나온 石器는 주먹도끼·몸돌·뚜르개·긁개와 마치 등이다. 이 석기의 주위에는 적은 양의 탄 뼈와 인위적으로 깨어진 外來의 돌들이 있었다.

그리고 충청남도 公主郡 장기면 石壯里 유적(제1문화총)에서는, 적은 수의 외날찌개와 찌르개 등의 石器가 1967년에 출토되었다. 이들은 45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²⁾ 石壯里 유적은 제1문화총뿐만 아니라, 2층(30만년 전), 3·4층(21만년 전), 5층(18만년 전), 6층(12만년 전),

7·8층(7만년 전) 9층(6만년 전), 10·11층(3만년 전), 12층(2만년 전) 등 우리나라 舊石器 時代 유물의 產室이다.

이들의 石器(전기)를 사용한 한반도의 人類 (*Homo erectus*) 타제석기와 골각기를 사용하고, 동굴이나 土窟에서 먹이를 찾아 放浪生活을 하였을 것이다.

3. 力浦人과 全谷里遺蹟

전기구석기(50~20만년 전) 유적에 이어 中期舊石器時代(20~5만년 전)에도, 黃人종인 古人(*Homo sapiens*)이 한반도에 산 흔적이 力浦에서 발견되었다.

平壤市 역포구 대현동 유적에서는, 1977년에 古人の 脛 머리뼈와 앞 머리뼈가 출토되었다. 이것을 力浦人이라고 하나, 그의 원시적인 특징은 이마가 뒤로 상당히 너머지고, 코마루가 넓고, 脛 머리뼈가 평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20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人骨化石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³⁾ 이 유적에서는 큰뿔사슴 등 추운 기후의 짐승과 코뿔이·물소 등 따뜻한 기후의 짐승이 아울러 나와서, 氷河期-빙온기 시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全谷里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북쪽으로 50km거리에 있는 한탄강의 後丘上에 자리잡고 있다. 이 유적은 해발 61m의 높이에 있는 野外遺蹟이다.

전곡리 舊石器遺蹟은 1979년 봄부터 발굴되었는데, 주먹도끼·긁개·밀개·뚜르개 등의 石器가 많이 발굴되었다. 이것은 넓고 큰 考古學의 유적이다. 전곡리 유적의 상대년대에 관해서는 學說이 구구하나, 서울大學校 조사반은 戰記舊石器末로 보았고, 裴基同교수(한양대학교)는 대

략 20만년 전의 유적으로 보았다.⁴⁾ 그리고 延世大學校의 손보기 교수는 褐色상황으로 보아 7만년 전이라고 추정한다.

그뿐 아니라 咸鏡北道 응기군 노서면 屈浦里 (제1기층)에서는 1963년에 몸돌·찌개·긁개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뚜렷하게 가공된 石器이며, 7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⁵⁾ 이 유적에서는 당시 幕을 치고 살던 자리로서, 돌덩이·나무 가지·짐승의 가죽 등으로 엮은 집터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돌 중에서 제일 크고 편평한 바위는 石器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모루와 같았다.

4. 上詩人과 德川人

우리나라에서 舊基구석기시대(5만년전~BC3,000년)의 유적으로서는, 우선 충청북도 단양군 梅浦邑 상시리 바위그늘에서 1981년에 출토된 新人(*Homo sapiens sapiens*)의 頭蓋骨片을 들 수 있다. 이것을 上試人이라고 하며, 남한에서 출토된 유일한 후기 구석기시대의 사람이다. 이 유적에서는 사람의 두개골片 뿐만 아니라 주걱뼈·앞팔뼈·뒤팔뼈·치아 등과 動物의 화석 13종이 나왔다.

상시리 유적은 제천에서 단양으로 가는 國道 5번 길의 중간에 있다. 근처의 山은 모두 석회암이다. 여기서는 찍개 등의 石器뿐만 아니라 긁개·밀개·자르개·톱날·찌르개·찌르개·쑤시개 등의 骨角器도 출토되었다. 절대년대는 4만년 전으로 분석되고 있다.⁶⁾

그리고 平安南道 덕천군 덕천 승리산의 洞窟 유적에서는 수 점의 人骨片 2,000점의 동물화석과 石界가 1973년에 발견되었다. 德川은 낭림산 맥에서 흘러내리는 大同江 상류에 있는데, 平壤에서 동북방향으로 75km의 거리에 있다. 勝利山에는 커다란 自然洞窟이 여러 개 있는데, 이 山

3) 손보기, 한국 구석기학 연구의 길잡이, 1988, P41.

4) 崔夢龍의 韓國先史考古學史, 1992, P40(배기동)

5) 손보기, 前揭書, 1988, P25.

6) 손보기, 구석기유적(한국·만주), 1990, P134.

의 동남쪽 비탈면에 있는 것이 德川洞窟이다.

동물화석의 연구와 層位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 동굴유적의 舊石器시대층은 洪積世 말인 4만년전으로 추정되며, 동물화석과 함께 사람의 어금니 2개와 아래 턱뼈 1개가 출토되었다.

아래 턱뼈의 보존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며, 턱뼈의 가지 부분이 대칭적으로 떨어져나간 것 외에는 거의 손상이 없다. 齒牙들은 오른쪽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두번쩨 작은 어금니의 뒷조각과 첫번쩨 큰 어금니뿐이다. 이 人骨은 35세 정도의 壯年 男子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인공은 德川人이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咸鏡北道 웅기군 노서면掘浦里 유적 제2기층에서는 1977년에 積개·찌개·돌칼·몸돌·새기개·찌르개·밀개·홈날·톱날·주먹대패 등 많은 石器가 출토되었다. 이들은 제1기층의 석기들보다 한층 발전된 手法으로 제작되었으며, 3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⁷⁾ 이들은 露天住居나 동굴에서 植物을 채집하거나 동물을 잡아 먹으면서 무리지어 떠돌이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舊石器文化(전기·중기·후기)의 발굴에 의하여 韓半島에서도 여러 시대에 걸쳐 人類가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5. 新石器時代와 青銅器文化

舊石器時代에 이어 신석기시대가 시작된다. 韓半島의 신석기시대는 BC 3,000년경부터이다.⁸⁾ 이 시대의 유물은 돌로된 화살촉·돌칼·돌도끼·石劍·돌가래·돌방망이 등의 석기와 빗살무늬土器이며 일찍부터 국내의 40여 유적에서 풍부히 발견되었다. 돌도구를 만드는 製作法이 보편화되고, 土器도 사용함으로써 人間의 생활을 원시적인 동굴이나 수렵채집경제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들의 住居은 땅속으로 절반 들어가 지붕이 가까스로 地上에 나와 있는 움막이었다.

이것은 氣候條件이나 손에 잡히는 재료 등에 비추어, 매우 粗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舊石器人們은 떠돌이 생활을 했으나, 新石器時代부터는 이 움막에서 定着生活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현존하는 韓民族의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⁹⁾

신석기시대의 시작은 원시사회로부터 生存競爭의 사회, 즉 農業과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의 이전과 부합된다. 단순히 식량을 採集하는 단계로부터 그것들을 재배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灌溉등을 통해 그 植物의 발육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살핌은 農耕을 향한 첫 걸음이 된다. 그러나 농경의 특징은 파종, 그것도 특별히 선정한 씨앗을 뿌리는데 있다.

신석기시대는 金層의 발견과 그의 사용에 의하여 종식된다. 青銅器時代는 동에 鑄物이나 아연을 섞어서 만든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대이며, 青銅器는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구실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는 BC 1,000년경부처 시작하여 鐵器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BC 300년까지이다. 이때의 유물로서는 동검·銅鏡·패총 등과 無文土器와 支石墓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국내의 60여 遺蹟地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青銅器文化가 만주의 요하 유역에서 大同江유역으로 번져감에 따라 이 지역의 부족들은 外敵을 막기 위해 하나의 部族聯盟體를 형성하게 되었다. 遼河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대동강 유역까지 걸쳤던 部族聯盟體의 우두머리가 檜君王儉을 그의 시조로 하는 君長이었던 것이다.

6. 韓民族의 형성

우리가사는 國土는 아시아대륙의 東南部에, 남동쪽으로 돌출한 半島와 여러 작은 섬으로

7) 손보기, 前揭書, 1990, P170.

8) 韓國通史, 韓國通史, 1984, P16.

9) 李氣乙, 民族文化와 韓國經濟學, 1990, P44.

이루어졌다. 북쪽은 압록강과 白頭山·두만강의 선에서, 중국의 滿洲와 舊 소련의 沿海州에 인접하고 동쪽은 동해에, 남쪽은 대한해협을 건너 日本을 바라보며, 서쪽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멀리 中國本土와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地理的 위치로 말미암아, 주위의 여러 民族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흔히를 民族이라고 하면, 인종적 개념으로서의 古代民族을 뜻한다. 그 기원은 氏族이며, 이것은 혈연관계에 의한 家族集團이다. 씨족이 합하여져서 種族이 생기고, 수개의 종족이 단결하여 部族을 이룬다. 부족은 血緣者이외에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奴隸도 포함하며, 혈연관계가 가까운 수개의 部族은 외적을 막기 위하여 部族聯盟을 맺는다. 부족연맹 간에 대립이 일어나 征服者와 패배자가 생기게 되어, 여기에 古代民族이 성립되는 것이다.

韓民族은 인종상 黃人種에 속하며, 원래 우랄山脈 이남, 카스피海 동쪽 그리고 天山山脈의 북쪽과 알타이山脈(Altai Mountain Range)의 서쪽에 위치한 中央아시아(Uzbek, Kazakh)지방에 原住居地를 갖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알타이 계통의 北方民族(유목민족)중에서, 舊石器時代 말엽에 동쪽(몽고)으로 이동해온 一派에 속하리라고 생각된다.¹⁰⁾ 이 移動이 시작되기 전에, 아시아(Asia)의 내륙지방에는 이미 古아시아族이 있었다. 그들은 새로 이동해온 알타이族에 허기어 北極·사하린(Sakhalin)·北海道 그리고 동북의 베링海峽에까지 이르렀다. 아이누族이나 에스키모族은 이 古아시아族에 기원을 가지고 있다. 古아시아族의 일부는 韓半島의 남쪽으로도 쫓겨 왔을 것이다.

그후 青銅器로 무장한 알타이系統의 북방민족이 한반도로 쳐들이 오자, 종전부디 土着되어 있던 新石器時代의 빗살무늬土器人은 이들과 싸웠으나, 力不足이어서 패배하였다. 이리하여 BC 1,000년경부터 青銅器文化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社會를 이루하면서, 이들이 우리 民族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 의거하면, 韩民族이란 北몽골族을 주축으로 하여 古아시아族의 요소가 섞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韩民族은 한반도의 수려한 風土속에서 구석기시대(50만년 전)와 新石器時代(5,000년 전)를 거쳐, 청동기시대(BC 1,000년 이후)에 이르는 과정에서 民族의 기틀을 형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單一民族으로서 거의 비슷한 生活樣式과 획일적인 社會속에서 살아아고, 전체로서 공통적인 心理나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三國時代(AD 53)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 바꾸어 말하면 처음 氏族社會를 이룬 시대를 新石器時代(BC 3,000년 이후)로 보고, 씨족이 部族으로 뭉치고, 여러 부족이 모여서 部族聯盟을 이룬 古朝鮮(BC 2,333년 이후)을 거쳤다. 그리고 松花江(만주)유역의 夫餘, 압록강 유역의 高句麗, 한강 이남의 三韓 그리고 동해안의 沃沮와 동예 등의 여러 部族聯盟文化가 이루어지고, 각 部族聯盟國家가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들던 三國時代(신라·고구려·백제) 이후에야, 하나의 氏族 또는 국가로서의 개념이 통일적으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즉 청동기문화뿐만 아니라 鐵器文化(BC 300년 이후)가 들어온 후인 기원후 1세기에야 民族의 기틀이 통일적으로 잡혔다.

7. 石窟庵과 佛國寺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여 만들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그것이 自然의 암석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경주의 것은 人工으로 花崗岩石을 쌓아올려 그 안에 佛像을 봉인한 것이다. 신라통일시대(AD 699~926)의 건축과 造像技術의 정예가 이곳에 다 모였으니 本尊佛(국보 24호)을 비롯하여 窟內·漢道·前室의 여러 벽에 조각된 十二面觀音菩薩

10) 申千湜·金鎬逸, 韓國民族史, 1979, P12.

11) 尹泰林, 意識構直上으로 본 韓國人, 1984, P27.

·十弟子·四天王·兩仁王·八部象 등 불상에서 정 치한 그 手法과 線感覺의 풍부한 표현을 볼 수 있다.¹²⁾ 더욱이 그 彫像들이 각각 따로 있으면 서 한편으로는 本尊佛과 서로 조화를 이루게 배열되어 있음은 全體와 부분과의 조화를 도모 한 것으로 新羅佛教의 이상과 和合의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또 불국사(751년에 건립)는 동서남북으로 둘러진廻廊으로써 堂塔을 둘러싸게끔 설계된 것이다. 정문인 紫霞門으로 올라가는 白雲橋와 青雲橋의 아름다운 구름다리 層層이며, 자하문 서쪽에 있는 泛影樓의 기발한 구조며, 그 어느 하나 美의 정화 아닌 것이 없다. 절 안에 들어가면 다보탑과 釋迦塔이 있는데, 多寶塔은 복잡하고도 화려한 構造美를 지닌 것으로 동양에 類例없는 독특한 造形美를 나타내고 있다.

新羅人들은 경주 부근의 岩石으로 조각할 만한 곳은 거의 다 찾아다니며 彫刻하였다. 경주의 南山은 조각의 산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石佛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優秀性과 섬세한 藝術性을 표현한 것이며, 技術力이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맺는말

이번 東草文化院이 시도한 문화유적지 순례는 회원들이 우리文化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조상의 슬기와 얼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 성과를 살펴 보면 ①오랜 역사속에서 전통문화를 활짝 피게 한 문화유적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문화민족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②종전의 겉핥기식 소비성 관광에서 벗어나 학문적, 교육적 차원으로 진입시켜 앞으로 예상되는 해외관광에서도 자세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③위대한 韓國건설에서 정신적 지주를 틀튼히 하였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④마지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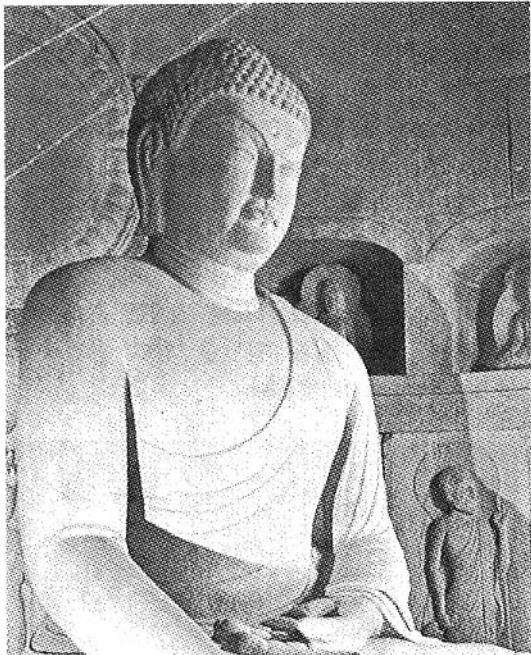
속초문화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속초문화 발전에 가속도가 생기는 동참의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 큰 수확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문화행사가 자주 있기 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개인적으로는 문화원 사업을 적극 지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난다. 이로써 우리는 문화시민의 자부심을 갖고 밝은 앞날을 함께 전진하기를 소망하면서 끝을 맺는다.



<빗살무늬 토기>

12)高麗大學校, 韓國文化史大系 (宗教·哲學史), 1970, P251.



<불국사 석굴암>



<노령토기>



<북한문화재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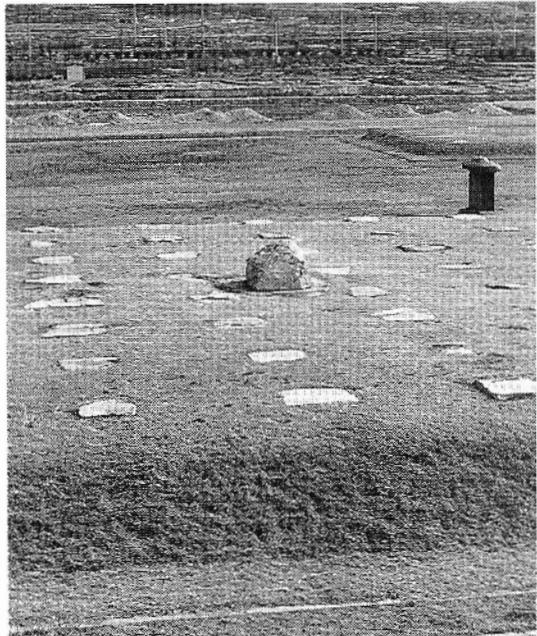
<慶州 佛國寺>



<속초문화원의 문화유적지 순례단 회원들이 화랑의집에서 기념촬영>



<굴포리 서포항유적>



<동양최대 가랄 黃龍寺址>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 시대: 신석기시대, 기원전 4,000년 – 3,000년
- 크기: 49cm × 40.3cm
- 소재: 조선미술박물관(평양)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유적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우리나라 신석기인들이 쓰던 빗살무늬 토기의 전형적인 것으로 이와같은 유물은 한강변의 암사동등 전역에서 출토되는 자료이다.

뇌문토기(雷文土器)

- 시대: 신석기시대, 기원전 3,000년
- 크기: 높이 17cm
- 소재: 조선미술박물관(평양)

평안북도 용천군 쌍학리에서 출토된 귀중한 유물이다. 그릇의 표면에는 번개무늬를 정연하게 나타냈고 그릇 몸체에는 변형된 번개무늬를 엇바꾸어 나타낸 것이 특징이며 점선무늬토기와 와문토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전형적인 토기이다.

굴포리 서포항 유적(屈浦里 西浦項 遺蹟)

- 시대: 구석기시대 중기, 10만년전
- 소재: 함북 선봉군 굴포리(옛 응기군 굴포리 서포항동)

굴포리 서포항동에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1963년 북한의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에서 발굴하였다. 1947년에 이미 청동기시대 및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바 있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전체를 『굴포문화』라고 하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한장의 귀한 옛사진을 찾습니다

本文化院에서는 문화은행에 보존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옛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원 사무국(☎32-1231)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료의 종류

※문헌자료: 향토사, 지명, 인물등에 관한 기록등

※사진자료: 속초의 옛풍물, 인물, 옛구조물등을 찍은 사진

※음향자료: 강연, 연설, 기타 주요인사의 육성을 담은 녹음등

2. 수집기간: 제한없이 받음.

- 알 림 -

우리 문화가족(회원)이 되면 회원증 제시로 시내 각극장과 설악산 케이블카는 요금의 50%를 할인 받습니다.

표지화



金光秀

- 함흥사범, 평양 미대 회화과 졸
- 개인전 5회(서울 덕수, 잠실 롯데미술관 외)
- 일본아세아 현대미전 초대참가(한국대 표단장·83)
- 한국미협전 출품(1984-1987국립 현대 미술관).
- 함남도전, 한국현대미술 신기획회전 출 품(세종문화회관)
- 강원초대작가전 원우회전 출품.
- 속초시 문화상 수상
- (현)강원도전 초대작가, 현대미술 신기획, 원우회 회원.
- 근무처: ☎32-8322
- 주 소: 속초시 교동 로얄1차APT B동 409호 ☎635-5853.

편집위원

주간 이건석
위원 박의훈
오세하
이인철
오윤근
김광수
최현도
최재정
심현우
간사 김호응

束草文化 제8호(비매품)

인쇄 : 1992. 11. 10

발행 : 1992. 11. 30

발행인: 池一權
발행처: 束草文化院
인쇄처: 강원일보사 출판국



금설라이온스크럽

會長 金基明

束草市 青鶴洞 482-9

프로스팩스 束草대리점

대표 김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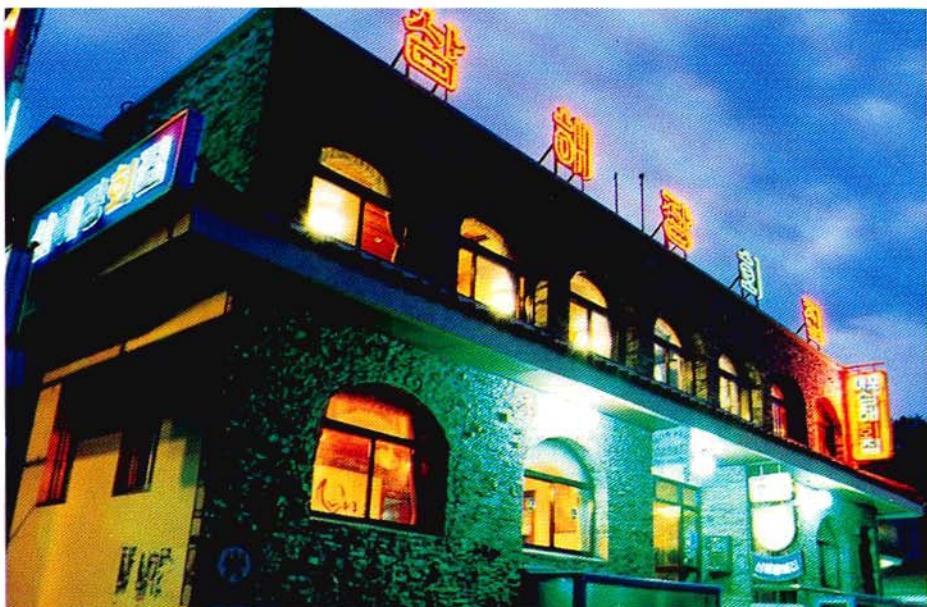
事) 33-5592 야간) 32-8518

전국 최고의 명산 **설악산**에 오시면

대포항 싱싱한 활어의 명소

삼해장회집

대 표 김 영 복



넓은 연회장



삼 해 장 회 집

속초시 대포동(대포항 내)

전화 : (0392) 32-8181, 32-8182 자택 : (0392) 32-5220

연회석 완비 · 차량행상대기

國際ライオンズ協會 309(韓國)-L地區

東草라이온스클럽

會長 李明德
直前會長 金相彬

第1副會長 崔敬順 第2副會長 張昌榮
第3副會長 尹鴻



충무로양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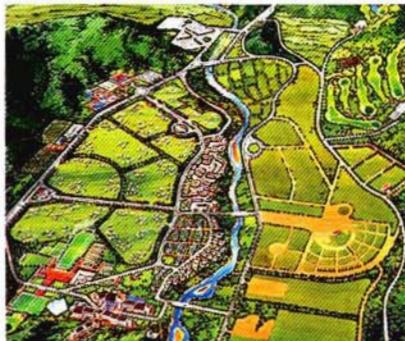
대표 李 明 德

東草市 中央洞

☎ 33-4233



• 하일라 설악밸리 콘도미니엄



• 하일라 설악밸리 종합개발 계획안



• 하일라 경주 콘도미니엄



• 하일라 동해비치 콘도미니엄



• 하일라 동해비치 종합개발계획안



• 하일라 지리산 콘도미니엄



• 하일라 중원 콘도미니엄



• 하일라 제주 콘도미니엄



• 하일라 발리 환타지 리조트

도시인이 소망하는 환상의 신천지!

커튼 사이로 어렵잖이 비쳐지는 아침 햇살,
 창문을 열면 지저귀는 산새들 소리,
 흐르는 시냇물 소리, 신선한 초록의 내음,
 고개들면 아련히 펼쳐지는 고향의 아침풍경...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생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株式會社 三立開發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5-2 회일빌딩3층
 TEL.(02)588-0631~4, 521-5851~3
 FAX.(02)588-0635

- 설악밸리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129
 TEL.(0392)33-0100~4, 31-8640~4
 FAX.(0392)33-0105
- 동해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2
 TEL.(0392)31-7601~14
 FAX.(0392)31-7615
- 제주사무소 : 제주도 제주시 3도 1동 535-19
 TEL.(064)57-8338, FAX.(064)57-8339

• 하동사무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31-3
 TEL.(0595) 84-4147
 FAX.(0595)83-6762

• 경주사무소 : 경북 경주시 북군동 산 27
 TEL.(0561)748-8023~5

• 예약과 : TEL.(02)583-7164~5

대자연, 인간, 그리고… 건강한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명설악콘도 전경



양평 콘도



홍천 스키장
(현재 공사중)



제주그린빌 관광호텔

(주)대명리저산업

대표전화 : (02) 557-9311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嶽山新興寺



新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하
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2년(1644)에 灵瑞, 惠元, 蓮玉 세스님
이 중건하여 新興寺라 개명하였다.

新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
락보전(指定文化財 14號), 경판(指定
文化財 15號), 보제루(지정문화재 104

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寶物
第 443號)이 보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
사 국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판 강원도지방유형
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계
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문
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존좌상외 9점

◎수행하는 도량 ◎포교하는 도량 ◎청정한 도량

신흥사 주지 송지홍 외 대중일동